

도시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 확장사업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濟州 道連洞遺蹟

- 614-1番地 -

2011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목 차

contents

I. 머리말	13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9
1. 지리적 위치와 환경	21
2. 고고학적 환경	28
3. 역사적 배경	36
III. 조사방법 및 층위	43
1. 조사방법	45
2. 층위	45
IV. 조사내용	49
1. 탐라성립기	51
가. 주거지	51
나. 굴립주건물지	91
다. 수혈유구	92
라. 집석유구	105
마. 소토유구	112
바. 구상유구	113
사. 옹관묘	118
아. 토광묘	120
자. 주혈군	124
2. 조선시대	126
가. 수혈유구	126
나. 구상유구	129
3. 지표수습	132
V. 고찰	135
1. 탐라성립기	137
2. 조선시대	141
3. 삼양동취락의 변천	142
4.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의 변천양상	153
5.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 변천양상	162
6. 삼양동취락의 편년적 위치 검토	164
7. 제주지역 송국리형 취락 단계의 묘제양상	171
VI. 맺음말	181
附錄 1. 出土試料의 科學分析報告書	185
附錄 2. AMS測定結果	195
圖版	201
報告書 抄錄	242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일대 용천수 분포현황	_ 22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삼양동 일대 유적 분포도	_ 23
도면 3.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통 분포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에서 일부 수정)	_ 25
도면 4. 조사대상지 주변 토양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0 참조)	_ 25
도면 5.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 이용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_ 26
도면 6.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 토성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_ 26
도면 7. 조사대상지 주변 지질도(1/25,000)	_ 27
도면 8. 조사대상지의 위치도	_ 29
도면 9. 토양개황도 및 송국리형취락 분포도	_ 35
도면 10.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_ 52
도면 11. I 구역 1지점 · 2지점 유구배치도	_ 53
도면 12. I 구역 3지점 · 4지점 유구배치도	_ 54
도면 13. I 구역 5지점 · 6지점 유구배치도	_ 55
도면 14. I 구역 7지점 · 8지점 유구배치도	_ 56
도면 15. II구역 5지점 · 6지점 유구배치도	_ 57
도면 16. II구역 8지점 · 10지점 유구배치도	_ 58
도면 17. 1호 주거지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59
도면 18. 2호 주거지 평단면도	_ 61
도면 19. 2호 주거지 출토유물(1)	_ 65
도면 20. 2호 주거지 출토유물(2)	_ 68
도면 21. 2호 주거지 출토유물(3)	_ 70
도면 22. 2호 주거지 출토유물(4)	_ 71
도면 23. 3호 주거지 평단면도	_ 72
도면 24. 4호 주거지 평단면도	_ 74
도면 25. 4호 주거지 출토유물(1)	_ 77
도면 26. 4호 주거지 출토유물(2)	_ 80
도면 27. 4호 주거지 출토유물(3)	_ 84
도면 28. 4호 주거지 출토유물(4)	_ 88
도면 29. 4호 주거지 출토유물(5)	_ 90
도면 30. 굴립주건물지 평단면도	_ 91
도면 31. 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92
도면 32.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93
도면 33. 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95
도면 34. 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96
도면 35. 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97
도면 36. 6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98
도면 37. 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98

도면 38. 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99
도면 39. 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99
도면 40. 10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99
도면 41. 1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100
도면 42. 1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1
도면 43. 1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1
도면 44. 1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2
도면 45. 1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2
도면 46. 16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2
도면 47. 1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3
도면 48. 1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3
도면 49. 1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4
도면 50. 20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4
도면 51. 2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4
도면 52. 2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05
도면 53. 집석유구 평단면도 _ 106
도면 54. 집석유구 출토유물(1) _ 108
도면 55. 집석유구 출토유물(2) _ 110
도면 56. 1호 소토유구 평단면도 _ 111
도면 57. 2호 소토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112
도면 58. 1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_ 114
도면 59. 2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_ 114
도면 60. 3호 구상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115
도면 61. 4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_ 117
도면 62. 5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_ 117
도면 63. 옹관묘 평단면도 _ 118
도면 64. 옹관묘 출토유물 _ 119
도면 65. 1호 토광묘 평단면도 _ 120
도면 66. 2호 토광묘 평단면도 _ 121
도면 67. 3호 토광묘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122
도면 68. 4호 토광묘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123
도면 69. 주혈군 평면도 _ 125
도면 70. 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26
도면 71. 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26
도면 72.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127
도면 73. 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128
도면 74. 1호 구상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_ 129
도면 75. 2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_ 130
도면 76. 3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_ 131

도면 77. 지표수습유물 _ 133

삽도목차

- 삽도 1. 도련동유적 위성사진(출처 : 네이버 지도) _ 24
- 삽도 2. 도련동유적 위성지형도(출처 : 구글맵스) _ 24
- 삽도 3.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도련평촌(道連坪村)과 매
둔지리(每敦地里) _ 36
- 삽도 4. 1709년 1월부터 1716년 사이에 제작된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해동지도(海東地圖)』에 나
타난 도련평촌(道連坪村) · 삼소천(三所川) · 매둔지촌(每敦地村) _ 37
- 삽도 5. 1872년에 제작한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세미오름[思美岳] · 삼소내[三所川] · 도련막을
[道連里] _ 38
- 삽도 6. 1919년에 제작한 「제주지도(濟州地圖)」에는 서동(西洞), 도련마을(道連里), 매촌(梅村) _ 39
- 삽도 7. 「탐라도」에 나타난 소흘촌(所屹村) · 소흘개[所屹浦] · 원당촌(元堂村) · 원당봉수(元堂烽燧) _ 40
- 삽도 8.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소흘리(所屹里) · 원당봉(元
堂烽) · 소흘개[所屹浦] _ 41
- 삽도 9.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원당봉(元堂烽) · 삼양막을(三陽
里) · 삼양개[三陽浦] _ 42
- 삽도 10. 1919년도 「제주지도」에 나타난 삼양동 마을 분포도 _ 42
- 삽도 11. 조사대상지 층위 모식도(I 구역 3지점 · 5지점) _ 46
- 삽도 12. 조사대상지 층위 모식도(I 구역 6지점) _ 46
- 삽도 13. 조사대상지 층위 모식도(II구역 6지점 · 8지점) _ 47
- 삽도 14. 삼양동유적 역삼동계주거지 장단축비 분포도 _ 146
- 삽도 15.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주거지 평면형태 분포도 _ 146
- 삽도 16.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주거지 평면형태 _ 147
- 삽도 17. 삼양동유적 역삼동계주거지 장축방향 분포도 _ 148
- 삽도 18. 삼양동유적 역삼동계주거지 면적 분포도 _ 149
- 삽도 19.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주거지 면적별 분포 _ 149
- 삽도 20.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 분포현황 _ 151
- 삽도 21. 상모리유적 무문토기 태토 분류도(좌:외래계, 우:재지계) _ 154
- 삽도 22. 상모리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_ 155
- 삽도 23. 하모리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_ 156
- 삽도 24. 삼양동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_ 156
- 삽도 25. 상모리유적 출토 토기의 분포현황 _ 158
- 삽도 26. 하모리유적 출토 토기의 분포현황 _ 158
- 삽도 27. 삼양동유적 출토 토기의 분포현황 _ 158
- 삽도 28. 제주지역 출토 적색마연호(1:상모리, 2:하모리, 3~8:삼양동) _ 161
- 삽도 29. 제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 조성비 분포도 _ 164

- 삽도 30. 광령리 지석묘(6형식) _ 172
- 삽도 31. 화순리 지석묘(6형식) _ 172
- 삽도 32. 용담동 지석묘(6형식) _ 172
- 삽도 33. 제주도 지석묘 분포도 _ 172
- 삽도 34. 제주도 토광묘의 장축방향 분포도 _ 174
- 삽도 35. 제주도 토광묘의 장단축비 분포도 _ 174
- 삽도 36. 제주지역 출토 옹관 (1~21:삼양동, 22:화순리, 23~24:하귀리, 25~27:용담동) _ 176
- 삽도 37. 제주도 옹관묘의 장축방향 분포도 _ 177
- 삽도 38. 제주도 옹관묘의 장단축비 분포도 _ 177
- 삽도 39. 제주도 옹관의 체적분석표 _ 177
- 삽도 40. 제주도 옹관의 기고 분석표 _ 178

도판목차

- 도판 1. ①~② 조사대상지 전경(공중촬영) _ 203
- 도판 2. ①~③ 조사 모습 _ 204
- 도판 3. ① 1호 주거지 2차 조사후 전경(서에서) ② 유물 출토 모습 ③ 조사 완료후 전경(남에서) ④ 타원형구덩이 ⑤ 출토유물 _ 205
- 도판 4. ① 2호 주거지 1차 조사후 전경(남에서) ② 2차 조사후 전경(서에서) ③ 북벽 토층 _ 206
- 도판 5. ①~② 2호 주거지 2차 세부 모습 ③ 3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④~⑤ 3차 세부 모습 _ 207
- 도판 6. ①~⑧ 2호 주거지 유물 출토 모습 ⑨ 조사 완료후 전경(서에서) ⑩ 타원형구덩이 ⑪ 출토유물 _ 208
- 도판 7. 2호 주거지 출토유물(1) _ 209
- 도판 8. 2호 주거지 출토유물(2) _ 210
- 도판 9. 2호 주거지 출토유물(3) _ 211
- 도판 10. 2호 주거지 출토유물(4) _ 212
- 도판 11. ① 3호 주거지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② 단면 토층 ③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_ 213
- 도판 12. ① 4호 주거지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② 2차 조사후 전경 ③ 적석 세부 _ 214
- 도판 13. ①~⑥ 4호 주거지 유물 출토 모습 ⑦ 3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⑧~⑨ 세부 모습 ⑩ 북벽 토층 _ 215
- 도판 14. ① 4호 주거지 조사 완료후 전경(북동에서) ② 타원형구덩이 ③~④ 세부 모습 ⑤ 출토유물 _ 216
- 도판 15. 4호 주거지 출토유물(1) _ 217
- 도판 16. 4호 주거지 출토유물(2) _ 218
- 도판 17. 4호 주거지 출토유물(3) _ 219
- 도판 18. 4호 주거지 출토유물(4) _ 220
- 도판 19. ① 4호 주거지 출토유물 ② 굴립주건물지 조사 완료후 전경(남에서) _ 221
- 도판 20. ① 1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② 출토유물 ③ 2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동에서) ④ 3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⑤ 4호 수혈유구 2차 조사후 전경(서에서) ⑥ 세부 모습 ⑦ 유물 출토 모습 ⑧ 출토유물 _ 222


- 도판 21. ① 5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② 유물 출토 모습 ③ 조사 완료후 전경 ④ 출토유물 ⑤ 6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남서에서) ⑥ 조사 완료후 전경 ⑦ 7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⑧ 조사 완료후 전경(남에서) _ 223
- 도판 22. ① 8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남서에서) ② 단면 토층 ③ 조사 완료후 전경 ④ 9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남에서) ⑤ 조사 완료후 전경 ⑥ 10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⑦ 조사 완료후 전경(동에서) ⑧ 11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북서에서) _ 224
- 도판 23. ① 11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② 출토유물 ③ 12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북동에서) ④ 13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북서에서) ⑤ 14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⑥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⑦ 15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⑧ 조사 완료후 전경 _ 225
- 도판 24. ① 16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②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③ 17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④ 남벽 토층 ⑤ 조사 완료후 전경 ⑥ 18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⑦ 조사 완료후 전경 ⑧ 19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_ 226
- 도판 25. ① 20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② 21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③ 조사 완료후 전경 ④ 22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⑤ 집석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⑥ 세부 모습 _ 227
- 도판 26. ① 집석유구 2차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② 남동벽 토층 ③~⑦ 유물 출토 모습 _ 228
- 도판 27. 집석유구 출토유물(1) _ 229
- 도판 28. 집석유구 출토유물(2) _ 230
- 도판 29. ① 1호 소토유구 조사전 전경(북서에서) ② 1차 조사후 전경 ③ 동벽 토층 ④ 세부 모습 ⑤ 조사 완료후 전경(남동에서) ⑥ 2호 소토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⑦ 유물 출토 모습 ⑧ 조사 완료후 전경(북동에서) ⑨ 출토유물 _ 231
- 도판 30. ① 1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② 2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③ 3호 구상유구 2차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④ 세부 모습 _ 232
- 도판 31. ① 3호 구상유구 세부 모습 ② 유물 출토 모습 ③ 출토유물 ④ 4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⑤ 5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_ 233
- 도판 32. ① 1호 옹관묘 전경(북서에서) ② 1차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③ 2차 조사후 전경(남서에서) ④ 단면 토층 ⑤ 3차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⑥ 세부 모습 ⑦ 4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⑧ 5차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_ 234
- 도판 33. ① 옹관묘 출토유물 ② 1호 토광묘 2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③ 남벽 토층 ④ 조사 완료후 전경 ⑤ 2호 토광묘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⑥ 2차 조사후 전경(남에서) ⑦ 서벽 토층 _ 235
- 도판 34. ① 3호 토광묘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② 동벽 토층 ③ 유물 출토 모습 ④ 조사 완료후 전경(남에서) ⑤ 출토유물 ⑥ 4호 토광묘 2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⑦ 2차 조사후 전경 ⑧ 동벽 토층 _ 236
- 도판 35. ① 4호 토광묘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② 출토유물 ③ 주혈군 조사 완료후 전경(남서에서) ④ 조사 완료후 전경(동에서) _ 237
- 도판 36. ①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동에서) ② 2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남동에서) ③ 3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④ 유물 출토 모습 ⑤ 4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남동에서) ⑥ 3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_ 238

- 도판 37. ① 조선시대 1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② 세부 모습 ③ 2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④ 유물 출토 모습 ⑤ 출토유물 _ 239
- 도판 38. ① 조선시대 2호·3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② 2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_ 240
- 도판 39. 지표수습유물 _ 241

표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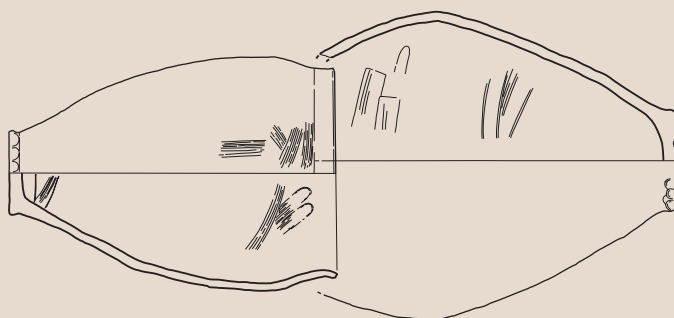
- 표1) 신석기시대 주변유적 현황 _ 31
- 표2) 청동기시대 주변유적 현황 _ 32
- 표3) 탐라성립기의 주변유적 현황 _ 33
- 표4) 탐라시대의 주변유적 현황 _ 34
- 표5) 고려시대의 주변유적 현황 _ 35
- 표6) 주거지 현황 _ 137
- 표7) 수혈유구 현황 _ 138
- 표8) 토광묘 현황 _ 139
- 표9) 옹관묘 현황 _ 139
- 표10) 출토유물 현황 _ 140
- 표11) 수혈유구 현황 _ 141
- 표12)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주거지 현황 _ 143
- 표13)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주거지 평면형태 _ 145
- 표14) 삼양동유적 역삼동 단계의 주거지 면적 _ 149
- 표15) 상모리유적 무문토기 태토 분류표 _ 153
- 표16) 상모리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_ 155
- 표17) 하모리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_ 156
- 표18) 삼양동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_ 156
- 표19) 상모리유적 출토 토기 분포현황 _ 157
- 표20) 하모리유적 출토 토기 분포현황 _ 157
- 표21) 삼양동유적 출토 토기 분포현황 _ 157
- 표22)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조성비 _ 163
- 표23)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취락의 14C연대 측정치 _ 165
- 표24) 삼양동유적 송국리계 취락의 14C연대 측정치 _ 166
- 표25) 삼양동유적 역삼동단계 취락의 14C 연대측정치 현황 _ 167
- 표26) 삼양동유적 송국리단계 취락의 14C 연대측정치 현황 _ 168
- 표27)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 주변 지석묘 분포현황 _ 171
- 표28)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과 지석묘 형식별 비교 _ 171
- 표29) 제주지역 토광묘 현황 _ 173
- 표30) 제주지역 옹관묘 현황 _ 175
- 표31) 제주지역 옹관묘 출토 옹관의 규모 _ 180

일러두기

1. 본 보고서 도면의 방향표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유구의 토층도 및 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3. 도면의 축소비는 유구의 경우 주거지 · 수혈유구 1/40, 굴립주건물지 · 소토유구 · 옹관묘 · 토광묘 1/30, 구상유구 · 집석유구 1/50, 구상유구 · 기타유구 1/80, 유물은 토기 · 자기 · 토제품 1/3, 소형석기 1/2, 석기 · 대형토기 1/4, 장신구 1/1을 원칙으로 하였다.
 4. 소성유구의 피열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



I. 머리말



I. 머리말

도련동유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2동 614-1번지 일대에 해당한다¹⁾. 도련동유적의 주변으로는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에 해당하는 역삼동단계의 취락과 함께 후기의 대표적인 송국리형취락이 연속적으로 형성된 매우 중요한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송국리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규모취락은 현재 제주지역 최대규모의 마을유적으로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최근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남해안 일대의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 본격적으로 대규모취락이 조성되는 단계에 해당하는 유적임을 알 수 있다²⁾.

삼양동 일대에 조성된 송국리형취락은 해안변에서 한단 올라온 평탄대지상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주변으로는 옹관묘와³⁾ 토광묘⁴⁾, 지석묘⁵⁾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삼양동유적은 한반도 남해안지역과 직선적으로 마주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용천수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해안에 맞닿아 있어 풍부한 해산물과 어족자원은 물론 양질의 미사질양토가 폭넓게 퇴적된 배후지를 이용한 농경에 적합하고 수혈을 굴착한 유구를 조성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즉 삼양동유적은 선사시대 유적을 조성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양동취락은 한반도 서남부지역(영산강·탐진강 일대)에 유행하던 송국리문화가 제주에 유입된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단계의 대규모취락에 해당한다⁶⁾. 특히 1990년대 후반~최근까지 여러차례의 각종 발굴조사를 통해 취락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규명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삼양동취락의 동편에 해당하는 삼화지구에 대한 조사결과 송국리문화에 선행하는 단계의 역삼동단계 취락이 확인되었다⁷⁾. 따라서 삼양동 일대에는 역삼동단계 취락이 조성된 이후 송국리단계의 취락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삼양동유적 주변으로는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와 함께 고려시대의 원당사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이 선사시대~역사시대에 걸쳐 매우 중요한 자연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금번 발굴조사 대상지는 제주시 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 확장구간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탐라성립기(3개소)와 조선시대(2개소)에 해당하는 유물산포지가 확인된 바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따라서 유물산포지에 대한 분포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북서쪽에 위치한 사적 제416호인 삼양동선

1) 금번 발굴조사 보고서의 도련동유적은 제주시 도련2동 614-1번지(시점) ~ 삼양1동 572-4번지(종점)에 이르는 제주시 도시 우회도로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련동과 삼양동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삼양동선사유적지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2)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제주 삼양동유적 VI지구(1665-1번지)』.
김경주, 2010,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한국청동기학보』 제6호.

3)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도시 우회도로(도련사거리 ~ 삼양검문소간) 확장부지내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濟州 三和나地域 遺蹟』.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 I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전계서.

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전계서.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전계서.

5)李清圭·張齊根, 1990, 『濟州市 고인돌』.

6) 김경주, 2010, 전계서.

7)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전계서.

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전계서.

사유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와 유물 및 문화층이 확인되었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8). 이에 제주시청 도시과에서는 공사진행을 중단하고 본 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해움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제 2009-109호)를 득한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발굴조사 대상면적은 도련2동 614-1번지 일대 대략 15,360㎡에 해당한다. 하지만 발주처인 제주시청 도시과에서 교량구간의 경우 이미 공사를 진행하여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발굴조사 결과 탐라성립기의 수혈주거지 4동, 굴립주건물지 1동, 수혈유구 22기, 구상유구 5기, 집석유구 1기, 소토유구 2기, 옹관묘 1기, 토광묘 4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문토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직립구연토기편과 원형점토대토기편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의 중심 점유단계는 삼양동식토기의 주사용 시기와 맞물릴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석기류는 삼각형석촉, 지석, 연석, 고석, 요석 등과 함께 토제방추차 등이 확인되었다. 반면 조선시대 유구는 수혈유구 4기, 구상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2009년 3월 16일~2009년 11월 20일(실조사일수 5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당시 조사단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단 장 :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장)
- 지 도 위 원 : 이청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손명조(국립제주박물관 관장)
- 책임조사원 :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조 사 원 : 현승룡(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팀장)
- 조사보조원 : 임맹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이정하(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상기 조사단 이외에도 김동한(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정성기(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등이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다.

도련동유적(614-1번지) 발굴조사 보고서는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원을 중심으로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유적현황과 유구원고는 현승룡과 임맹주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완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김경주가 전체적으로 체계를 통일하여 최종원고를 작성하였다. 금번 발굴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각각의 업무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 편집기획 및 총괄 : 김경주
- 유물 정리·복원 및 실측 : 현승룡, 임맹주, 정성기
- 유구 및 유물 일러스트 : 이정하(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유물사진 촬영 : 김동한
- 도면작성 : 박재현(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김동한
- 원고작성
 - I. 머리말 : 김경주
 -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김경주, 강창룡(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III. 조사방법 및 층위
조사방법 : 김경주

총위 : 현승룡

IV. 조사내용

유구 : 김경주, 현승룡

유물 : 김경주, 현승룡

V. 고찰 : 김경주

VI. 맺음말 : 김경주

- 편집 : 김경주, 현승룡
- 전산편집 : 고은경(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교열 및 교정 : 김경주, 현승룡, 강창룡
- 감수 : 고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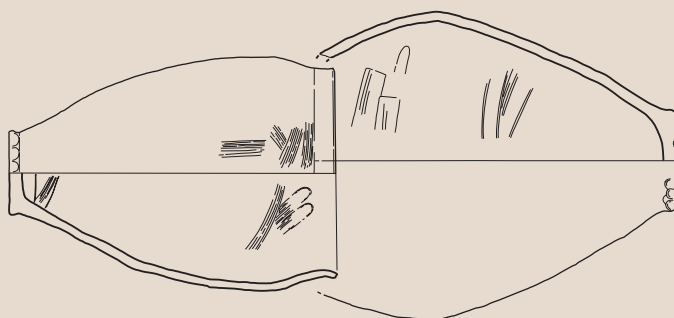
금번 도련동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송국리단계인 삼양동취락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즉 기존에 알려진 삼양동취락의 중심부에서 다소 벗어난 외곽부분으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동취락의 남동쪽 경계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조사지역이 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양동취락의 중심부와 직접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속성과 전체적인 공간분석 보다는 역삼동 → 송국리단계로의 전환과정과 함께 송국리형 취락단계의 묘제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도위원으로 참석해 많은 조언을 주신 이청규 선생님과故 손명조 관장님께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발굴조사에 따른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준 조사단과 참여해주신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외에도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주신 제주시청 도시과 양은석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김경주)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지리적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제주시 중심부의 동북부지역 해안면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런2동 614-1번지(시점)~삼양1동 572-4번지(종점)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경 33° 30′ 56.59″, 북위 126° 35′ 23.90″~ 동경 33° 31′ 11.76″, 북위 126° 35′ 48.86″ 에 해당하며 해안에서는 대략 1.16km 가량 떨어져 있다. 본 조사대상지의 중앙으로는 읍나물내가 관통하여 남에서 북으로 흘러 해안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또한 봉개동 개월오름(해발 743m) 주변에서 발원한 삼수천(동냉이천)이 유적의 서편에서 동북편으로 흘러 바다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현재 읍나물내의 중앙부에 해발 25~36m내외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의 중심으로 하천을 끼고 동-서 구릉상에 취락이 조성되어 있는 셈이다.

삼양동 일대의 지질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파호이호이용암류에서부터 아아용암류의 암반조간대와 해안단에 및 검은 모래 해수욕장 등 다양한 해안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섬⁸⁾과 신촌 마을 일대에는 파호이호이용암류의 빌레해안이 펼쳐져 있으며 삼양 일대에는 아아용암류가 분포한다. 이 용암류의 상부를 원당봉 용암이 덮고 있는 양상이다. 원당봉 용암은 해안선에서 해안단애를 형성하고 있다. 삼양마을의 해안을 따라서는 검은 모래의 해변과 사구가 발달되어 있다. 주변에 위치한 원당봉(해발 171m) 용암은 닭머루⁹⁾에서 삼양화력발전소까지 해안선을 따라 약 1.5km에 걸쳐 해안단애를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원당봉은 분석구로서 북쪽의 바다를 향하여 분화구가 터진 말굽형 기생화산에 해당한다. 원당봉 북쪽의 화구 앞에는 앞오름 등 3개의 작은 화산체가 분포하고 있다. 원당봉 주변의 경작지는 붉은색의 스코리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산탄들이 쉽게 관찰된다. 삼양동의 해안선에는 붉은색의 클링커층과 수직으로 서 있는 암맥들이 노출된 아아용암류의 암반 조간대가 관찰된다. 신촌 해안의 파호이호이용암류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용암류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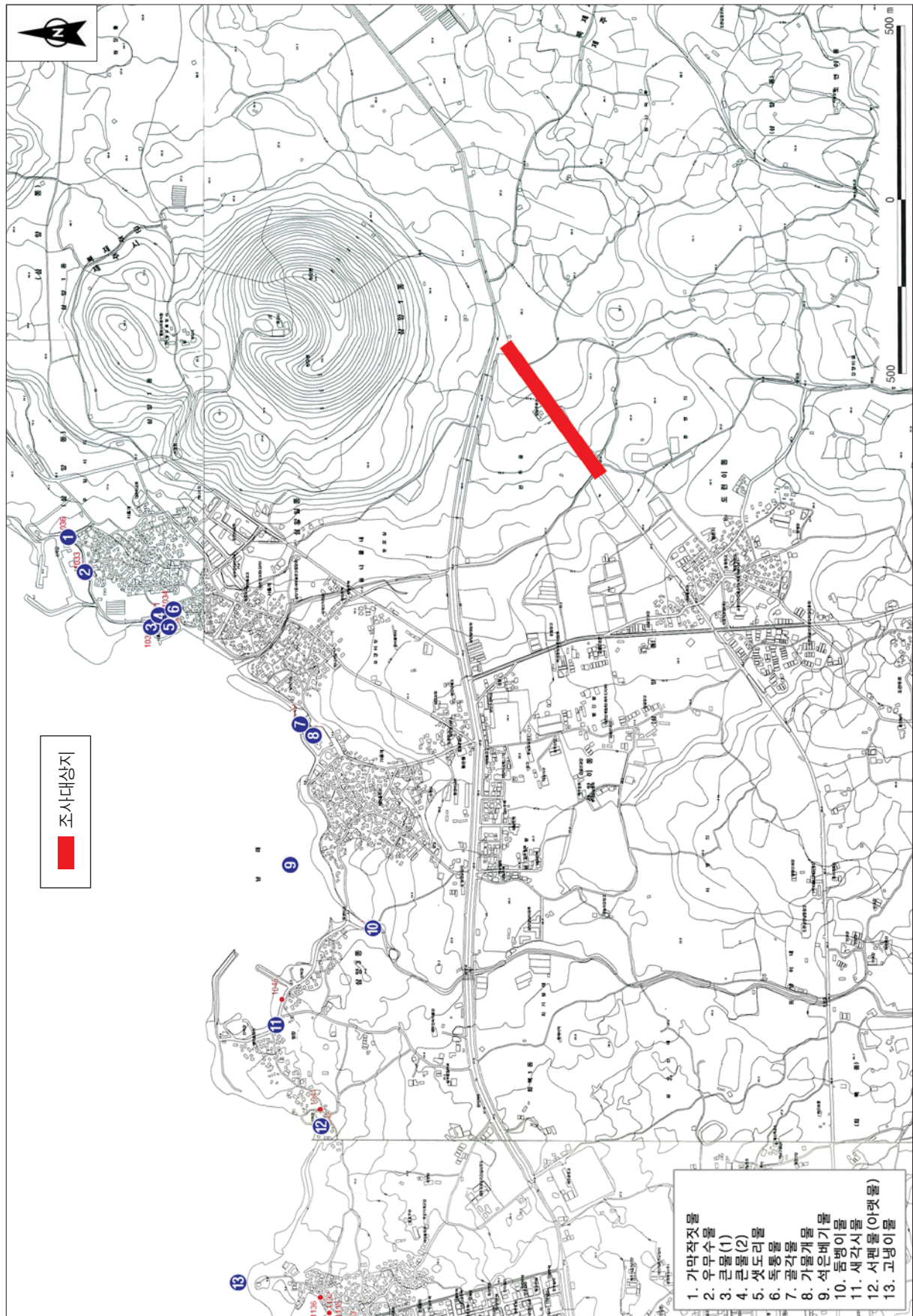
한편 조사대상지의 토양상태를 보면 대체로 동귀-구엄-용흥 토양군에 해당한다. 이 토양군은 용암류평탄지, 배수 양호하며 암갈색인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의 토양군을 띠고 있다. 분포범위를 보면 조천읍~대정읍에 이르는 북서부 및 남서부 해안면에 대체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면적인 181,997ha중에서 30,974ha(17.02%)가 이 토양군에 해당한다. 토양군별 분포면적을 보면 먼저 동귀통¹¹⁾은 8,759ha(28.28%)이고 구엄통¹²⁾은 3,179ha(10.26%), 용흥통¹³⁾은 2,636ha(8.51%)에 해당한다.

8) 조천과 신촌 마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파호이호이용암류의 투물러스로 구성되어 있어 평평하다. 일명 죽도(竹島)라고도 부르며 주변의 암반 조간대로 빠르게 흐른 빌레용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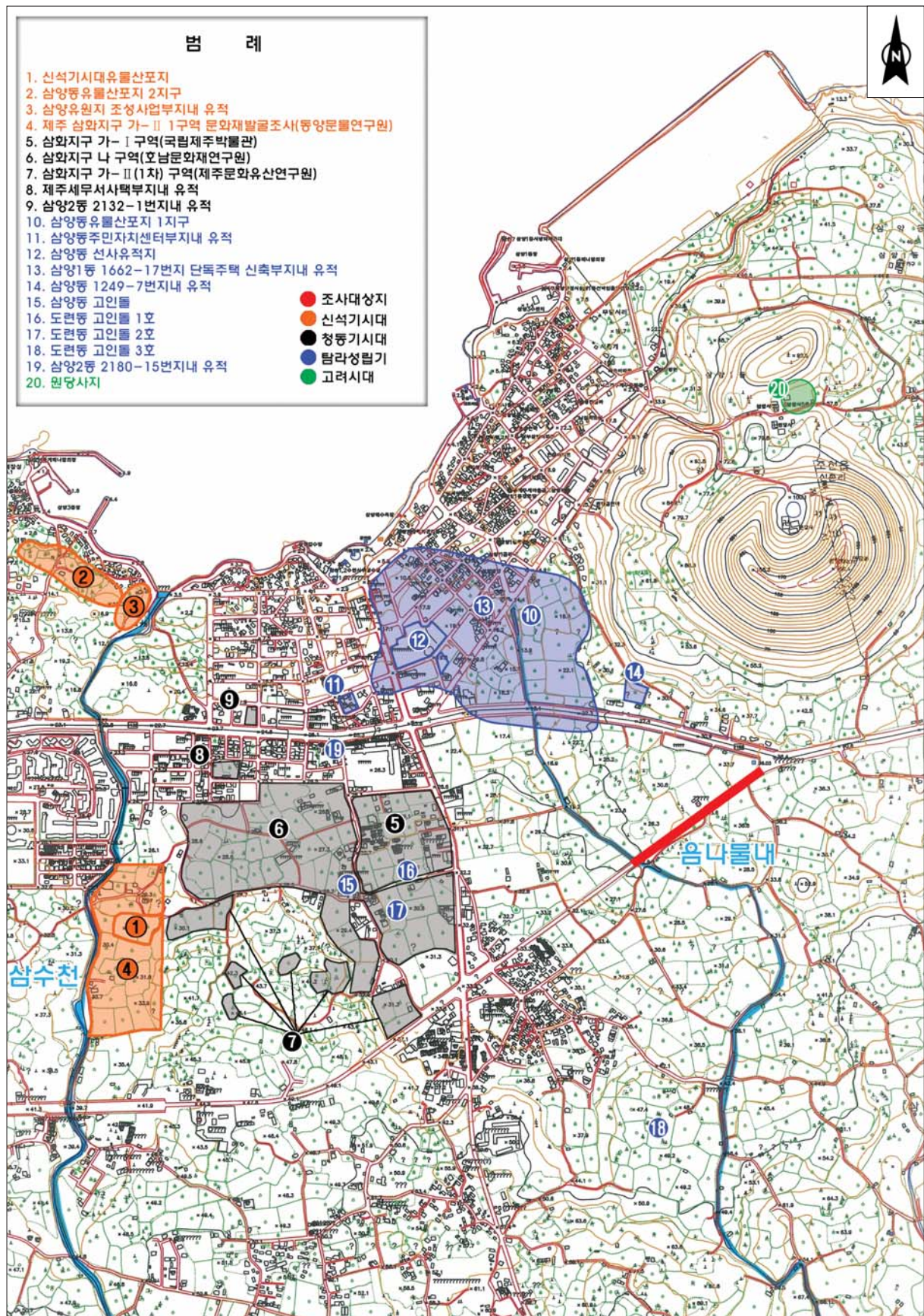
9) 신촌마을의 서동 해안을 '닭머루' 라고 부른다. 이 일대는 신촌 해안에 넓고 평평하게 분포하고 있던 파호이호이용암류를 원당봉에서 흘러나온 높이 15~20m의 새로운 용암류가 덮고 있다. 닭머루는 기존의 빌레용암과 원당봉 용암류의 접촉부에 해당하는데 이 용암은 휘석장석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강순석, 2004, 『제주도 해안을 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1) 배수가 양호하고 전층을 통하여 자갈이 35% 미만 산재되어 있으며 밭, 과수상전으로 이용할 경우의 적성등급은 1등급 내지 3경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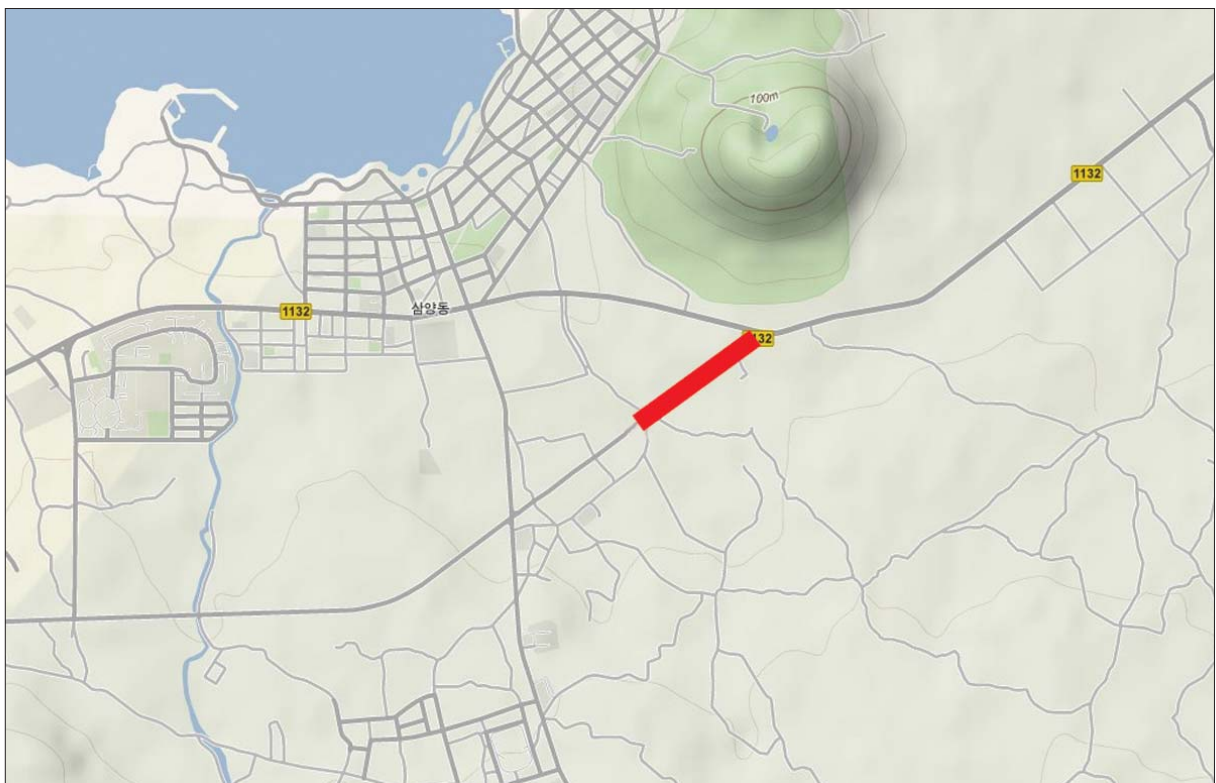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 일대 용천수 분포현황(1/5,000-제주의 물 · 용천수 도엽:CHEJU 044+045, 053+054+0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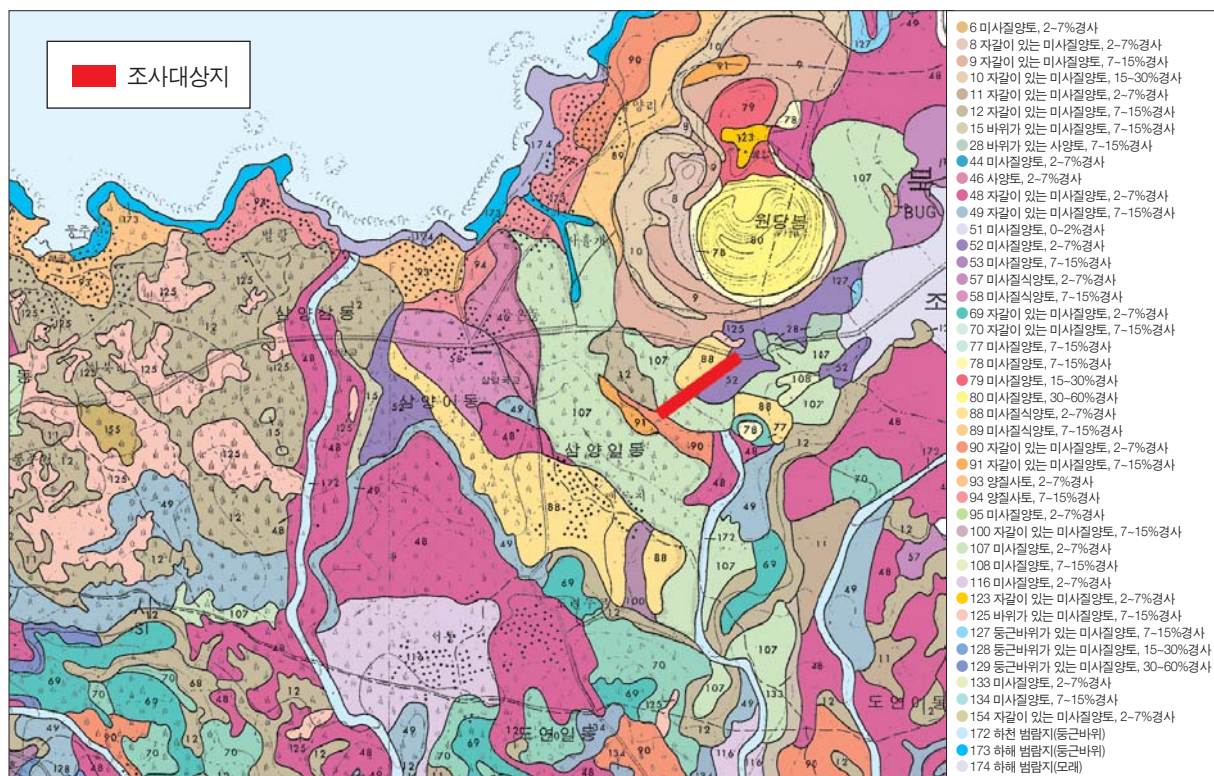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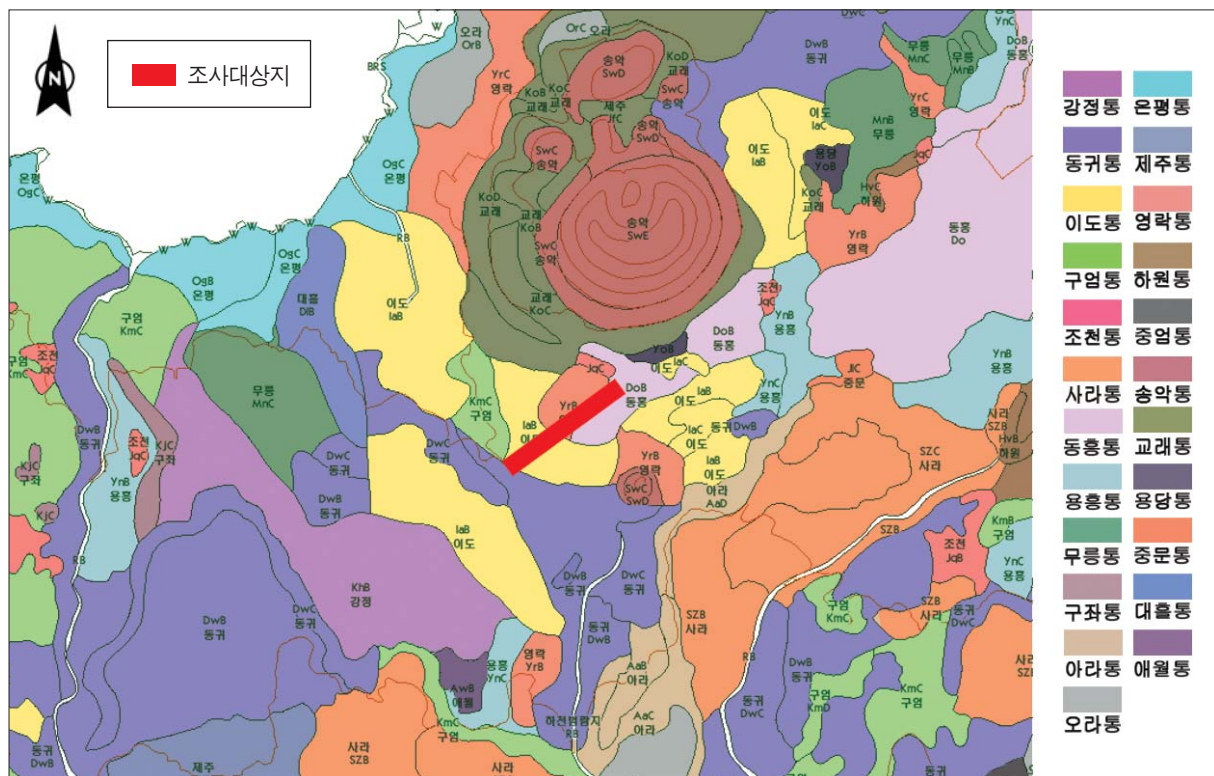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삼양동 일대 유적 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 참조 <GRS80-도엽:33607043+44+45 · 33607053+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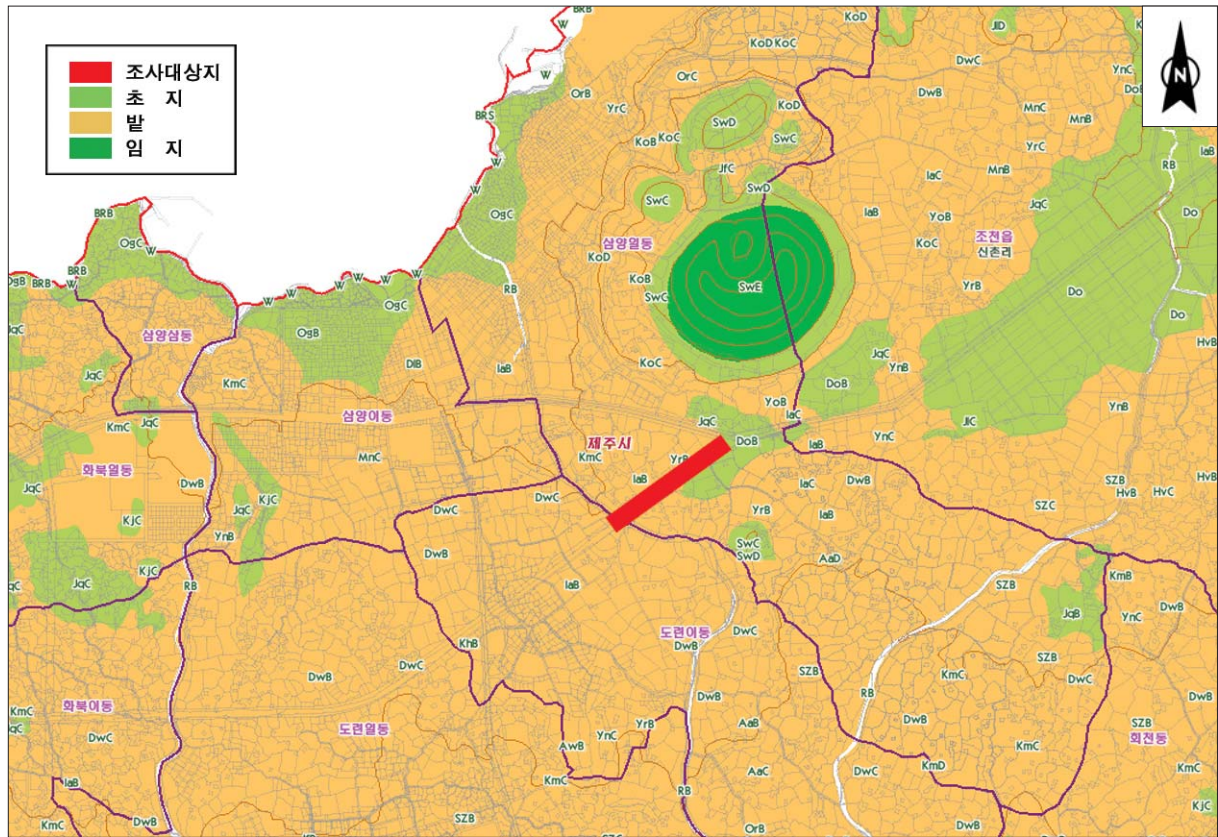


삽도 1. 도련동유적 위성사진(출처 : 네이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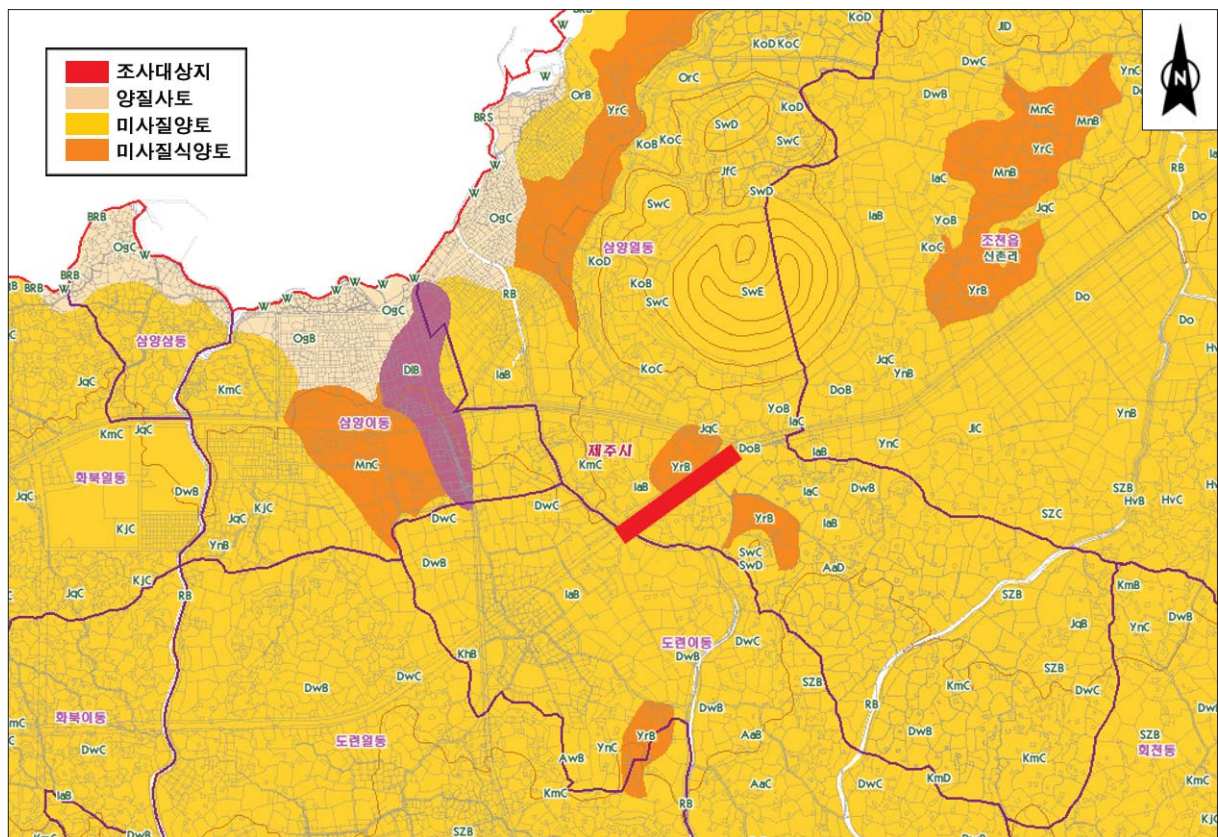


삽도 2. 도련동유적 위성지형도(출처 : 구글맵스)





도면 5.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 이용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도면 6.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 토성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특히 조사대상지의 구체적인 토양성분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도 미사질양토¹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주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98ha로 0.932%에 해당한다¹⁵⁾.

삼양동은 해안선을 따라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해 삼양1동, 감물개를 삼양2동, 벌랑을 삼양3동으로 구분하는데 용천수가 많고 그 수량이 풍부하여 현재까지도 수원지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삼양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를 살펴보면 대략 16개소¹⁶⁾가 확인된다. 용천수는 대부분 해안변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곳은 현재 삼양수원지 부근에 위치한 ‘골각물’과 ‘가물개물’이 해당한다. 특히 ‘가물개물’은 삼양동 일대에 위치한 16개소의 용천수 중에서 그 용출량이 가장 많은 장소이다¹⁷⁾.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삼양동유적은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취락형성의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연하면 취락의 양단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은 결국 자연적인 방어시설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내부에 퇴적된 양질의 미사질양토는 주거지를 비롯한 각종 수혈유구를 축조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다수의 용천수가 분포하는 점도 취락형성의 중요한 필수조건임을 알 수가 있다. 이와함께 동북쪽에 형성된 원당봉은 취락에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상부구조에 대한 건축부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주)

2. 고고학적 환경

조사대상지인 삼양동유적은 1970년대 고인돌 3기가 보고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여¹⁸⁾ 1986년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취락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⁹⁾. 당시 조사내용을 보면 유적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수습된 토기는 철기시대 팍지리식 무문토기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유구석부편과 합인석부편등이 동반 수습되었다. 이후로는 삼양동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예가 없었으나 1996년도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작업중 퇴적토 단애면상에서 파괴된 각종 유구와 함께 유물이 출토되어 발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1997~1999년도에 걸친 연차조사를 통해 삼양동 일대에 대규모 취락이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²⁰⁾. 또한 최근에는 삼화택지지구와 삼양유원지 개발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이 일대에 신석기시대~탐라성

12) 배수 양호한 미사식양질토로서 대개 40~50cm 토층하부에 풍화가 안된 견고한 암반이 놓여 있으며 밭, 과수, 상전으로서의 토지이용등급은 2~4암반이다.

13) 서귀포시 중문면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토양 배수가 양호한 식질계 토양으로 토양단면내에 자갈이 35% 미만 산재되어 있으며 밭, 과수, 상전으로서의 토지이용등급은 2~3중점이다.

14) 이도토는 현무암에 기인된 층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으로 용암류 평탄지에 분포한다. 이 토양은 보통 동귀, 동흥, 용흥, 구업 및 조천통과 서로 인접되며 미사식양질로서 토양 배수가 양호하고 토심이 깊다. 이 토양의 형태적 특성을 보면 표토는 암갈색의 미사질 양토이며 심토는 황갈색의 미사질 양토 내지 미사질 식양토이다. 이 토양의 자연 비옥도는 높고 유기물 함량은 적으며 토양 반응은 강한 산성이다. 염기치환용량 및 염기포화도는 높다.

15)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정밀토양도 - 제주도』.

16) 삼양동에는 1동(8개소), 2동(4개소), 3동(5개소)등에 모두 16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17) ‘가물개물’은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가 2차에 걸쳐 용출량을 분석한 결과 35,000m³(일/1998년)와 40,000m³(일/1999년)가 검출되어 다른 곳의 용천수에 비해 일일 10,000~20,000m³이상의 많은 양이 검출되었다. 제주도, 1999, 『제주의 물·용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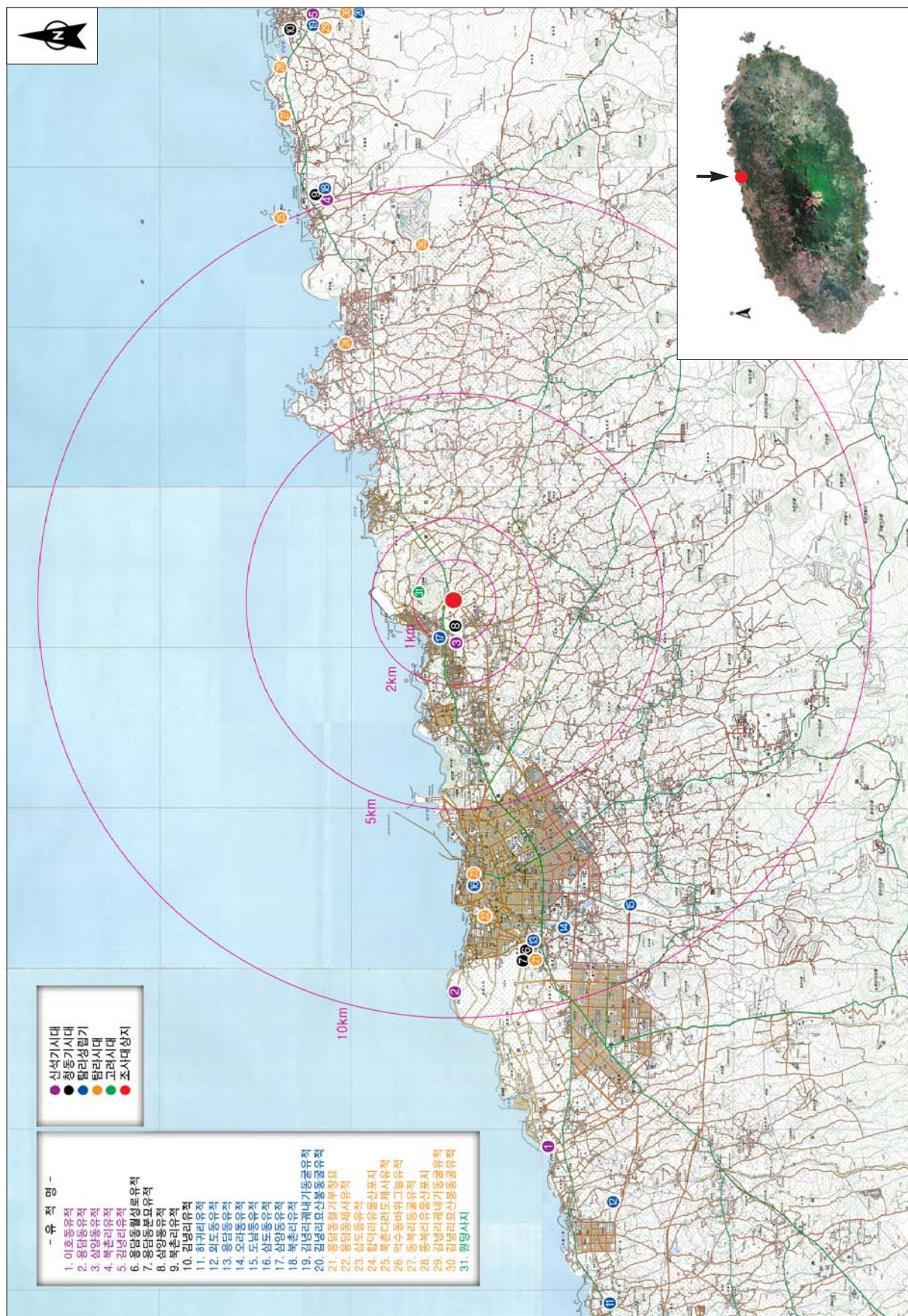
18) 金元龍, 1976, 「濟州島の 先史文化와 住民」, 『耽羅』10.

宋錫範, 1979, 「濟州島の 支石墓」, 『考古學』161.

19) 李清圭, 1986, 『濟州島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20) 濟州大學校博物館, 2001, 『濟州 三陽洞遺蹟 - II・III地區』.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 三陽洞遺蹟 - I・V地區』.



도면 8. 조사대상지의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조 <도엽:NI52-9-16-2+NI52-9-17-1+NI52-9-17-2 · NI52-9-16-4 +NI52-9-17-3+NI52-9-17-4>)

립기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²¹⁾. 이외에도 삼양동에는 고려시대 사찰인 원당사지에 대한 조사결과 출토유물로 미루어 볼 때 13세기 이전에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²⁾. 이와같이 삼양동의 단일구역내에서만도 다양한 유적이 형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사시대 유적을 조성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곳임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삼양동유적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이후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탐라성립기~탐라건국기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를테면 삼양동유적을 위시하여 서쪽으로 용담동유적군과 함께 외도·광령·하귀리유적군 등 대규모 취락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되고 있어 동시기 제주지역의 취락분포정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이와 맞물려 다수의 고인돌이 각각의 취락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깊은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1) 신석기시대²³⁾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서쪽으로 이호동, 용담동유적과 동쪽으로 삼양동, 북촌리, 김녕리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호동과 북촌리유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의 고산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동시기의 유적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북촌리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후반기에 해당하는 점렬문토기와 함께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어 동시기 문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반면에 구제주시권의 경우 산지천을 중심으로 다수의 유적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후대 대규모취락이 중복점유 조성되면서 이전 단계의 유적이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21) 제주문화예술훈재단, 2006, 『삼양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國立濟州博物館, 2007, 『濟州稅務署 職員舍宅敷地 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國立濟州博物館, 2007,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湖南文化財研究院, 2008, 『濟州 道連洞甕棺墓』.

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濟州 三和 나地域 遺蹟』.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삼화지구 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삼양1동 1249-7번지 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삼양동유적(2136-9번지)』.

22) 제주문화예술훈재단, 2007, 『元堂寺址 - 불탑사(옛 원당사지)5층석탑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3)李清圭, 1986, 『北村里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9, 『濟州 金寧里 遺蹟』.

濟州文化藝術財團, 2005, 『제주국제공항착륙대 확장공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 三陽洞遺蹟- I · V地區』.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2002, 『北濟州郡 文化遺蹟分布地圖』.

오연숙, 2004, 「제주도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학회 학술 세미나 자료집, 한국신석기학회, 34~43쪽.

康昌和, 2003, 「耽羅 以前の社會와 耽羅國의 形成」, 『강좌 한국고대사』 제10권,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강창화, 2005, 「고대 탐라의 실체와 물자의 교류」, 『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 문화의 형성 -고대를 중심으로-』, 동북아고대사회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한중양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70~81쪽.

康昌和, 2007, 『濟州 高山里 新石器文化 研究』, 嶺南大學校博士學位論文.

동양문화연구원, 2009, 「제주 삼화지구 가-II-1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표1) 신석기시대 주변유적 현황

순번	유적명	유형	직선거리(km)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1	이호동유적	생활유적	12.6	유물산포지	삼각점렬문토기, 파수부토기	
2	용담동유적	생활유적	8.1	유물산포지	고산리식토기, 이중구연토기	
3	삼양동유적	생활유적	0.6	수혈유구 유물산포지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조우문토기, 무문양토기, 타제석촉	
4	북촌리유적	생활유적	10.4	암음	점렬문토기, 이중구연토기	
5	김녕리유적	생활유적	15.4	유물산포지	고산리식토기, 점렬문토기, 타제석촉 등	

2) 청동기시대²⁴⁾

청동기시대 유적을 살펴보면 서북부지역의 용담동과 삼양동유적군, 동북부지역의 북촌리와 김녕리유적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시기의 취락은 다음 단계인 탐라성립기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며 현재 확인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혹은 방형계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삼양동유적 주변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단계의 유적은 대체로 상모리단계 이후의 유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육지산 태토의 혼암리계토기가 제주에 유입된 이후 상모리유적에서 재지화 과정을 거쳐 문양이 단순화된다. 따라서 복합문양→단순문양으로 변화하는 단계에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⁵⁾. 이를테면 삼양동세무서사택부지와 김녕리유적 등에서 구연단이 외반되는 각목문토기가 출토되고 있는데 상모리식토기의 말기 변화형으로 여겨진다. 또한 삼화지구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방형 혹은 장방형의 주거지에서 단순 공렬문과 각목문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일대에 동시기 취락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⁶⁾. 자세한 유적현황을 보면 표2)와 같다.

24)李清圭, 1986, 『北村里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5, 『金寧里 靑內기洞窟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2002, 『北濟州郡 文化遺蹟分布地圖』.

강창화·김경주, 2003, 『濟州 龍潭洞 月星路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國立濟州博物館, 2007, 『濟州稅務署 職員舍宅敷地 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國立濟州博物館, 2007,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湖南文化財研究院, 2008, 『濟州 道連洞甕棺墓』, 湖南文化財研究院.

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濟州 三和 나地域 遺蹟』.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삼화지구 유적』.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 I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5) 필자는 혼암리식토기가 재지화된 단계의 토기를 상모리식토기로 구분하고 송국리식토기의 접촉과 관련된 변화과정 속에서 구연단의 외반화 현상에 주목하여 퇴화단계의 무문토기로 설정하였다.

金慶柱, 2007, 「三陽洞式土器의 始原에 對한 考察 -外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26) 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濟州 三和 나地域 遺蹟』.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삼화지구 유적』.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 I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표2) 청동기시대 주변유적 현황

순번	유적명	유형	직선거리(km)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6	용담동월성로유적	취락유적	8.0	주거지 수혈유구 등	직립구연토기, 지석, 고석 등	
7	용담동분묘유적	취락유적	8.2	유물산포지	무문토기(공렬토기, 각목토기), 석기류	
8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0.3	주거지 수혈유구 등	무문토기(역삼동식토기 · 직립구연토기 · 마연토기), 유구석부, 편인석부 마제석검, 석착, 옥제품, 동검편	
9	북촌리유적	혈거유적	10.4	암음	무문토기(공렬토기 · 각목토기), 석기류	
10	김녕리유적	생활유적	15.5	패총	무문토기(공렬토기 · 각목토기), 석기류	

3) 탐라성립기²⁷⁾

탐라성립기에 접어들면 이전 단계에 비해 대규모 취락유적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다. 서쪽으로는 하귀리, 외도동, 용담동, 삼도동유적이 있고 삼양동유적을 비롯하여 동쪽으로는 북촌리, 김녕리유적등이 위치한다. 특히 전기에는 삼양동과 용담동 일대에 송국리형주거지 초기형태의 취락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이후 후기로 가면서 외도동과 하귀리 일대에 변형된 송국리형주거지를 바탕으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반면 토기형태는 전반적으로 삼양동식토기→외도동식토기로 전환되며 직립구연토기는 점차적으로 소멸하게 된다²⁸⁾. 이 단계에는 송국리형주거지를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취락과 함께 고인들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반면에 동굴입구를 활용한 암음유적이 급증하게 되며 또한 광지리와 종달리에 대규모 패총이 조성되기도 한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서부지역과 동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취락이 조성되고 있다. 자세한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27)李清圭, 1986, 『濟州島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李清圭·張齊根, 1991, 『濟州고인돌 調査報告』, 濟州市.

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研究』, 學研文化社.

濟州大學校博物館, 20001, 『濟州 三陽洞遺蹟 - II · III地區』.

濟州大學校博物館, 20002, 『濟州 三陽洞遺蹟 - I · V地區』.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2002, 『北濟州郡 文化遺蹟分布地圖』.

濟州文化藝術財團, 2004, 『龍潭洞 龍門路遺蹟』.

濟州문화예술재단, 2005, 『濟州市 外都洞遺蹟』.

金慶柱, 2005, 「耽羅成立期 聚落의 形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22號, 湖南考古學會.

濟州문화예술재단, 2006, 『용담동 먹돌로유적』.

濟州문화예술재단, 2007, 『濟州 外都洞遺蹟 II』.

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濟州下貴1里 遺蹟』.

마한문화연구원, 2009, 『용담2동 2704-15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金慶柱, 2007, 「三陽洞式土器의 始原에 對한 考察 -外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28) 직립구연토기의 경우 화순리유적 단계 이후 거의 대부분 소멸하고 외도동단계가 되면 완전히 사라지고 외반 구연토기로 단일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濟州문화예술재단, 2005, 『濟州市 外都洞遺蹟』, 237~239쪽.

濟州문화예술재단, 2007, 『濟州 外都洞遺蹟 II』, 237~239쪽.

金慶柱, 2007, 「三陽洞式土器의 始原에 對한 考察 -外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201쪽.

濟州文化藝術財團, 2009, 『濟州 和順里遺蹟』, 377~383쪽.

표3) 탐라성립기의 주변유적 현황

순번	유적명	유형	직선거리(km)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11	하귀리유적	취락유적	16.5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12	외도동유적	취락유적	14.7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13	용담동유적	취락유적	8.7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14	오라동유적	취락유적	7.8	지석묘 유물산포지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15	도남동유적	분묘유적	8.0	지석묘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16	삼도동유적	취락유적	6.2	유물산포지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17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0.3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	삼양동식토기, 유구석부, 마제석착, 옥환 등	
18	북촌리유적	혈거유적	10.4	암음	삼양동식토기	
19	김녕리케네기동굴	생활유적	15.5	패총 및 암음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패촉	
20	김녕리묘산봉동굴	혈거유적	14.6	암음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4) 탐라시대²⁹⁾

탐라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구제주시권의 용담동과 삼도동유적이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함덕리, 북촌다려도, 역수동, 동북리, 김녕리 케네기동굴, 묘산봉동굴 등이 확인되고 있다. 용담동유적에서는 전·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각각 조사되었다. 먼저 탐라전기에 해당하는 철기부장묘에서는 내부에서 철검과 함께 철부, 철촉, 철도자, 유리옥 등을 부장한 무덤이 확인되었다. 이 무덤은 철검의 형식과 동반유물상으로 볼 때 기원 3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후기에 해당하는 제사유적은 해안이 조망되는 구릉상에 입지하고 있는 점, 생활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경병 등의 병류와 호류만 출토되는 점, 출토유물이 대부분 깨진상태로 출토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사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병과 호류의 통일신라시대 도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이외에도 삼도동유적에서는 전기·후기에 해당하는 판지리식토기와 함께 고내리식토기편이 수습되고 있어서 동시기에 걸쳐 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김녕리 묘산봉 동굴에서도 백제계의 토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월정리 용천동굴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장군, 대부병, 인화문장동호 등이 출토되어 8C代 유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29)李清圭, 1990, 『龍潭洞古墳』, 濟州大學校博物館.

李清圭·康昌和, 1993, 『濟州市龍潭洞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2002, 『北濟州郡 文化遺蹟分布地圖』.

제주문화예술회관, 2007, 『제일주차빌딩 시설공사부지내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2009,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용천동굴 내 고고유물 수습조사 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2011, 『용천동굴의 신비』.

표4) 탐라시대의 주변유적 현황

순번	유적명	유형	직선거리(km)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21	용담동철기부장묘	분묘유적	8.2	석곽묘 옹관묘	철검, 철부, 철촉, 철도자, 유리옥, 적갈색경질토기 등	탐라전기
22	용담동제사유적	제사유적	6.8	대형 수혈유구	통일신라토기(병·호류), 중국자기, 과대금구, 철촉, 철부, 유리구슬 등	탐라후기
23	삼도동유적	생활유적	5.7	수혈유구	적갈색경질토기(고내리식토기)	탐라전~후기
24	함덕리유적	생활유적	8.7	유물산포지	회색연질토기	탐라전기
25	달여도유적	제사유적	10.8	유물산포지	곽지리식토기	탐라전기
26	억수동유적	혈거유적	9.0	암음	곽지리식토기	탐라전기
27	동북리유적	혈거유적	12.6	암음	곽지리식토기	탐라전기
28	동북리유적	생활유적	13.7	유물산포지	곽지리식토기	탐라전기
29	김녕리 케내기동굴유적	혈거유적	15.5	암음	곽지리식토기	탐라전기
30	김녕리 묘산동동굴유적	혈거유적	14.6	암음	회색연질토기	탐라전기
31	월정리 용천동굴유적	제사유적	17.4	암음	장군, 대부병, 인화문장동호, 단경호, 철도자	탐라후기

5) 고려시대³⁰⁾

제주지역에서 고려시대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3대 사찰로는 법화사, 수정사, 원당사 등이 알려져 있다³¹⁾. 이 중에서 원당사는 삼양동 원당봉에 위치하고 있다. 일부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고 다량의 도자기와 기와편이 출토되어 축조시기를 가늠케 하고 있다. 확인된 2동의 건물지는 각각 정면 5칸, 측면 2~3칸 이상의 건물지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막새는 수막새 2종(연화문, 국화문)과 암막새 3종(나선형문, 연화문, 초화문)이 수습되었다. 평기와는 어골문을 비롯하여 모두 39여종이 확인되었다. 한편 도자기류는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를 비롯하여 중국제 청자와 백자도 소량 출토되었다. 청자는 10세기 중반경 제작된 것, 11~12세기 제작된 것,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구분되는데 11~12세기대에 만들어진 도자기의 양이 가장 많다. 따라서 원당사지의 건립시기는 대략 13세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4·15세기대 존재했던 김녕현사지(金寧縣司址)에 대한 최근 조사결과 굴립주건물지와 함께 각종 수혈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여기서는 무단식와를 비롯하여 청자 및 분청 등 동시기 유물이 출토되

30) 제주대학교박물관, 1988, 『水精寺·元堂寺 地表調査報告書』.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元堂寺址』.

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제주 불교유적 조사 보고서 - 濟州의 廢寺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김녕리유적(2410번지)』.

31) 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지역 3대 사찰은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法華寺址', 제주시 외도동 소재 '水精寺址', 제주시 삼양동 소재 '元堂寺址'가 있다.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法華寺址』.

濟州大學校博物館, 1997, 『法華寺址』.

濟州大學校博物館, 2000, 『水精寺址』.

강창화, 2000, 「濟州 法華寺址의 考古學的 研究」, 『濟州島史研究』9집, 濟州島史研究會.

김일우, 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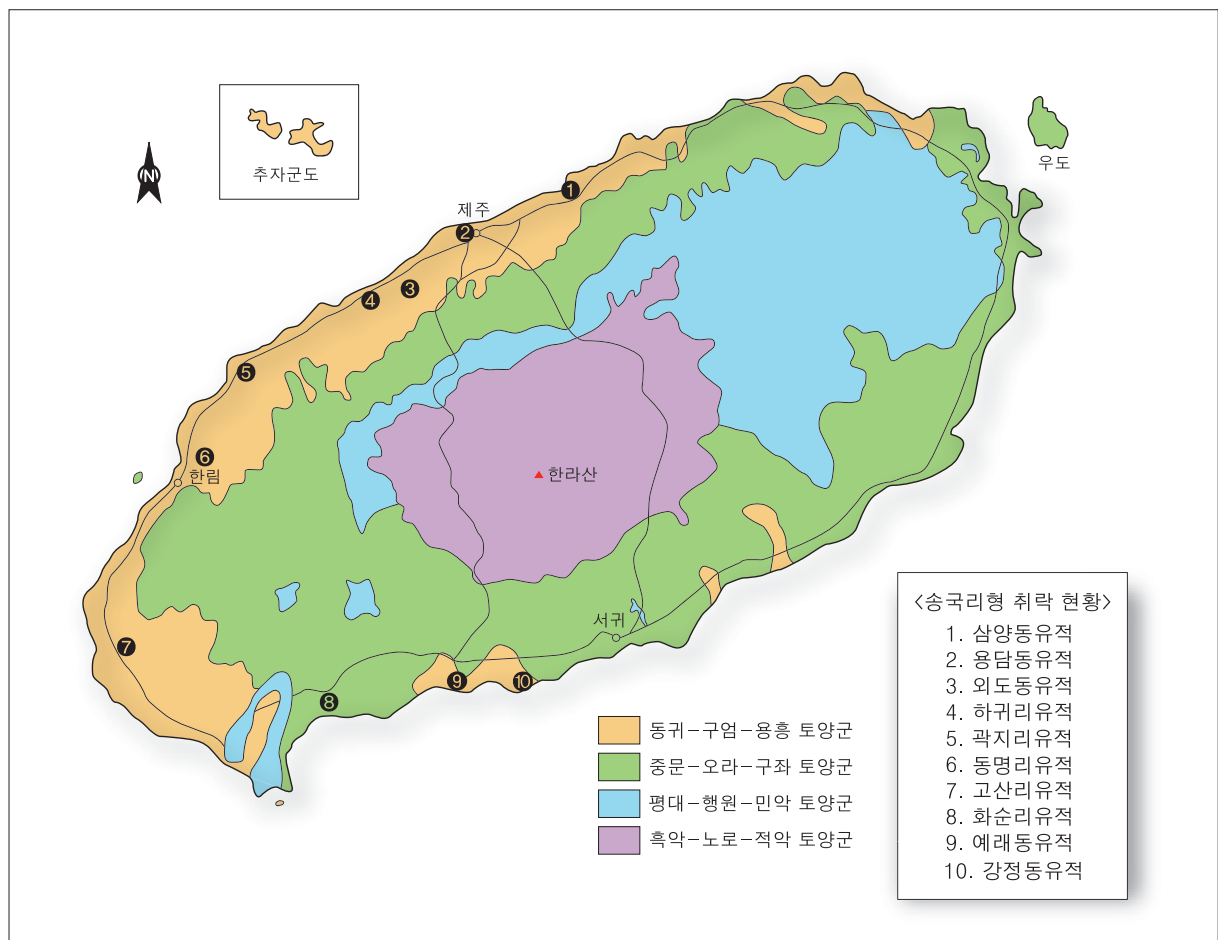
었다. 하지만 조사범위가 협소하여 구체적인 자료 획득에는 어려움이 있다.

김녕리사지(왕사지, 흥법사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 곳 주변 경작지에는 많은 자기편과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으며 경작지 주변 경계돌담에서도 연화문 막새편이 수습된 바 있다. 도자기류는 대체로 14세기대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분청사기, 백자, 도기가 출토되고 있다. 반면 기와는 어골문과 어골문계 복합문이 확인되며 복합문은 중위에 정격자문이 결합된 종류, 중원문과 함께 내부에 선문이 표현된 종류가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5) 고려시대의 주변유적 현황

순번	유적명	유형	직선거리(km)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32	원당사지	사찰유적	1.0	건물지	막새, 평기와, 청자, 분청사기, 백자	고려시대
33	김녕현사지	관아유적	14.7	굴립주건물지 수혈유구	평기와, 청자, 분청, 백자	고려~조선시대
34	왕사지	사찰유적	14.9	유물산포지	막새, 어골문와, 청자, 분청, 백자, 도기, 기와	고려~조선시대
35	흥법사지	사찰유적	14.4	유물산포지		

(김경주)



도면 9. 토양개황도 및 송국리형취락 분포도(김경주 2010, 前掲書)

3. 역사적 배경

1) 도련동(道連洞)의 마을 형성과 그 연혁

도련동에는 도련1동과 도련2동이 있다. 도련1동은 삼양2동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도련1동은 행정동인 삼양동 관할에 있는 법정동으로 옛날 중심 마을은 ‘도련드르믈³²⁾’이었다. 또 도련2동은 행정동인 삼양동 관할에 있는 법정동으로 옛날 중심 마을은 ‘맨돈지’였다.

특히 1680년 이후부터 1700년 이전에 편찬(編纂)한 『제주속오군적부(濟州束伍軍籍簿)』에 의하면,

수종(隨從)³³⁾시노(寺奴) 진복(眞福)은 나이 18세이며 아버지가 계조(戒祖)이고 제주(濟州)에 소속되어 매돈지(每敦地) 밭에 거주한다. 키는 4자 4치이고 얼굴색이 검으며 수염(鬚)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 얼굴에 흉터로는 검은 사마귀가 하나 있으며 기예로는 칼(刀)이다.

군기색(軍器色) 시노(寺奴) 계조(戒祖)는 나이 50세이며 아버지가 보즙(寶楫)이고 제주(濟州)에 소속되어 매돈지(每敦地) 밭에 거주한다. 키는 4자 4치이고 얼굴색이 검으며 수염(鬚)은 낳고 있다. 얼굴에 흉터로는 검은 사마귀가 하나 있으며 기예로는 궁술(射)이다³⁴⁾.

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이전에 매돈지(每敦地)이라는 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17세기 후반에 간행한 『제주속오군적부(濟州束伍軍籍簿)』에 제주목(濟州牧) 동면(東南面) 매돈지(每敦地) 밭에 거주하는 속오군(束伍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삽도 3.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도련평촌(道連坪村)과 매돈지리(每敦地里)

수종(隨從) 시노(寺奴) 진복(眞福)과 군기색(軍器色) 시노(寺奴) 계조(戒祖)의 부자(父子)가 거주하는 곳이 매돈지(每敦地) 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당시에는 매돈지(每敦地) 밭이 숙종 원년(1675)에 비변사(備邊司)에서 정당(停當)한 「오가족통(五家作統)의 사목(事目) 21조(條)」에 나타난 '1리(里)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小里)를 삼는다'는 내용에 10통(5호)인 25호로부터 50호까지 이르는 마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

32) 오창명, 1998,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pp. 254~256.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세림원색인쇄사, pp. 74~76.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행정명사·제주시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pp. 466~468.

33) 수종(隨從)은 남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34) 『濟州束伍軍籍簿』,

隨從寺奴眞福 年十八 父戒祖 係濟州 住每敦地 長四尺四寸 面鐵 鬚未生 疤面黑痣一 藝刀

軍器色寺奴戒祖 年五十 父寶楫 係濟州 住每敦地 長四尺四寸 面鐵 鬚生 疤面黑痣一 藝射.

에는 도련평촌(道連坪村)과 매둔지리(每敦地里)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 31년 후 숙종 35년(1709) 1월부터 숙종 42년(1716) 사이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 중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³⁵⁾에는 도련평촌(道連坪村)과 삼소천(三所川) 및 매둔지촌(每敦地村)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해동지도(海東地圖)』에 의하면, 숙종 35년(1709) 1월부터 숙종 42년(1716) 사이에는 삼소내(三所川)을 경계로 하여 동쪽에는 도련평촌(道連坪村)과 서쪽에는 매둔지촌(每敦地村)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다가 56년 후인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사이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³⁶⁾권5 「제주(濟州) - 면촌(面村) 증(增)」에 ‘중면(中面)에는 소면(小面)이 3개가 있다. 3개의 소면으로는 중좌면(中左面), 주중면(州中面), 중우면(中右面)이 있다. 이 가운데에 ‘중좌면(中左面)에는 별도(別刀) · 서흘개(鋤訖浦) · 도련평(道連坪) · 천미(泉味) · 와호흘(臥乎訖) · 세은쇄(細隱刷) · 상봉개(上奉蓋) · 하봉개(下奉蓋) · 무등천(無等川) · 별라화(別羅花) 등이 합계가 10마을이다³⁷⁾’이다. 이에 의하면 영조 41년(1765) 8월부터 영조 42년(1766) 6월 사이에 도련드르[道連坪] 마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조 41년(1765) 8월 이전에 매둔지(每敦地) 마을은 「오가작통(五家作統) 사목(事目)」에 나타난 ‘1리(里)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小里)를 삼는다’는 내용에 10통(5호)인 25호로부터 50호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때문에 매둔지(每敦地)는 영조 41년(1765) 8월 이전에 행정적인 마을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다.



삽도 4. 1709년 1월부터 1716년 사이에 제작된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해동지도(海東地圖)』에 나타난 도련평촌(道連坪村) · 삼소천(三所川) · 매둔지촌(每敦地村)

35) 『해동지도(海東地圖)』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① · ②」의 범례(凡例)에 의하면, “耽羅兩地圖 皆是本邑印本 而詳略不同 并存以備參考”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 나타난 구지도(舊地圖)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한라장축(漢拏壯嘯)」이며 신지도(新地圖)는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 - 필자주」이다. 이 두개의 지도는 제주목(濟州牧)의 판(版)에 박힌 인쇄본(印刷本)이다. 더욱이 이 두개의 지도는 상세함과 간략함이 서로 같지 않았다. 이에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① · ②」 『해동지도(海東地圖)』는 함께 존재한 것을 참고하여 갖추었다. 또한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① · ②」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만호(萬戶)가 둘(二)’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수산조방장(水山助防將)이 수산만호(水山萬戶)로 승격(陞格)한 것이 숙종(肅宗) 31년(1705)이며 수산만호에서 수산조방장으로 환원한 것이 숙종 44년(1718)이다. 게다가 차귀조방장(遮歸助防將)이 차귀만호(遮歸萬戶)로 승격한 것이 숙종 32년(1706)이며 차귀만호에서 차귀조방장으로 환원한 것이 숙종 42년(1716)이다. 특히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가 숙종 35년(1709) 1월에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① · ②」 『해동지도(海東地圖)』는 숙종 35년(1709) 1월 이후부터 숙종 42년(1716)까지에 이루어진 지도임을 추정할 수가 있다.

36)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는 영조 41년(1765) 8월부터 영조 42년(1766) 6월 사이에 윤시동(尹蓍東) 제주목사가 편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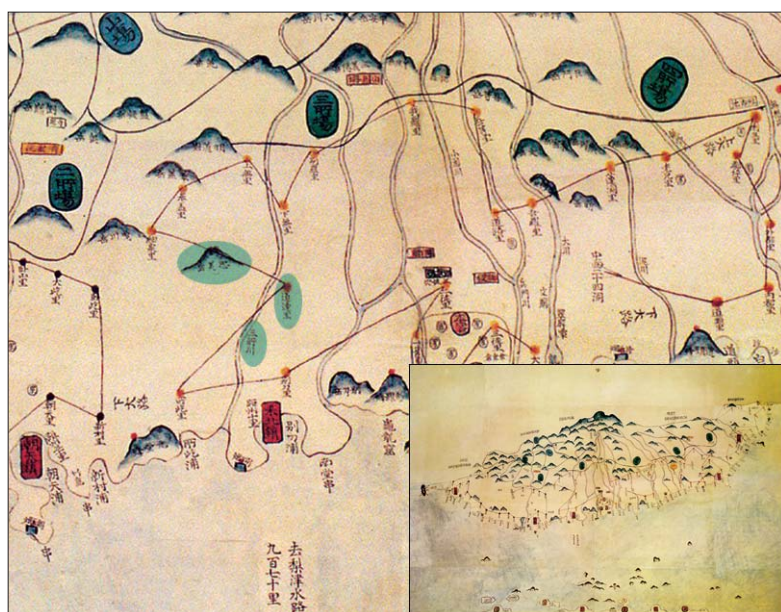
37)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濟州 - 面村 增」,

中面 小面 中左面 州中面 中右面

中左面 別刀 鋤訖浦 道連坪 泉味 臥乎訖 細隱刷 上奉蓋 下奉蓋 無等川 別羅花 合十里.

이 당시의 제주목에 대면(大面)은 4개에 풍헌(風憲) 각 1인이 있다. 소면(小面)에는 12개에 약정(約正) 각 1인이 있으며 81개 마을마다 경민장(警民長)·권농(勸農)·기찰관(機察官)·포도(捕盜)·존위(尊位)·동장(洞長)·이임(里任)·색장(色掌)·지심(指審)·유사(有司)가 각 1인이 있어 모두 서무(庶務)를 담당했다³⁸⁾.

그러다가 20년 후 정조(正祖) 9년(1785) 2월 이후에 편찬 『제주읍지(濟州邑誌)』 「방리(坊里) - 중면(中面)」에는 ‘도련드르마을은 제주 동남쪽 3리에 있다. 백성의 집[民戶]은 36호이며 남자가 80명이고 여자는 136명³⁹⁾으로 남녀 합계가 216명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도련드르마을[道連坪里]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41년 후인 순조(純祖) 26년(1826)에 작성된 『감시절목(減柴節目)』⁴⁰⁾에도 도련(道連)⁴¹⁾마을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당시에 도련드르마을[道連坪里]에서 드르[坪]의 글자가 빠져서 도련마을(道連里)로 바꾸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삽도 5. 1872년에 제작한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세미오름[思美岳]·삼소내[三所川]·도련마을[道連里]

또 46년 후인 1872년에 제작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도 세미오름[思美岳]과 삼소내[三所川] 및 도련마을[道連里]이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18년 후 고종(高宗) 27년(1890) 『경인십이월일 삼읍환폐급서막혁거절목(庚寅十二月日 三邑還弊及庶廢革祛節目)』 「본주(本州) - 중면(中面)」에는 도련(道連) 마을의 인구가 226명⁴²⁾이었다. 이로부터 14년 후 광무(光武) 8년(1904)에 광무(光武) 8년(1904)에 편찬한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제주군(濟州郡) - 중면(中面)」에는 ‘도련드르의 연기가 나는 집(煙家)은 80호다. 남자 132명과 여자 127명을 합하여 259명이고 초가집은 214칸이다⁴³⁾’ 라고 기록되어 있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옛 도

38) 『增補耽羅誌』 「濟州 - 面村(增)」

○ 凡州大面四 風憲各一人 小面十二 約正各一人 八十一里 每里警民長勸農機察官捕盜尊位洞長里任色掌指審有司 各一人 共掌庶務.

39) 『濟州邑誌』 「坊里 - 中面」,

道連坪里 東南距口三里 民三十六 男八十 女一百三十六.

40) 『감시절목(減柴節目)』은 순조 26년(1826)에 관(官)에서 받아들이던 땔감을 절감하는 절목이다.

道頭里 西距十五里 民戶九十五 男三百七 女四百三十二.

37) 『감시절목(減柴節目)』은 순조 26년(1826)에 관(官)에서 받아들이던 땔감을 절감하는 절목이다.

41) 『減柴節目』,

下道 上道 細花 坪岱 槐伊 魚等 無注 北浦 威德 新村 道連 細刷 奉蓋 所屹 下無 上無 別羅 臥屹 右十八里 永減燒木 只捧青草.

42) 『庚寅十二月日 三邑還弊及庶廢革祛節目』 「本州-中面」,

道連 二百二十六 分米二十四石十斗六升四合.

43) 『三郡戶口家間總冊』 「濟州郡 - 中面」

道連 煙家八十戶 男一百三十二口 女一百二十七口 合二百五十九口 草家二百十四間



삽도 6. 1919년에 제작한 「제주시도(濟州地圖)」에는 서동(西洞), 도련마을(道連里), 매촌(梅村)

련리 지역과 삼양리와 봉개리 일부를 통합하여 도련리(道連里)라 하여 제주면(濟州面)에 편입되었다. 5년 후 1919년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간행한 「제주시도(濟州地圖)」에는 서동(西洞), 도련마을(道連里), 매촌(梅村)으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 10년 후 1929년에 당시 제주면(濟州面)에 도련마을의 호수는 243호이며 남자가 562명이고 여자는 711명으로 남녀 합계가 1,273명⁴⁴⁾이었다. 1930년에는 도련마을의 호수는 230호이며 인구수가 1,273명⁴⁵⁾이었다. 1년 사이에 호수는 14호가 줄어들고 인구수는 같았음을 알 수가 있다. 25년 후 1955년 제주시에 편입되어 도련리를 나누어 도련1동과 도련2동으로 갈랐으며 1962년 1월 1일 제주시 삼양동에 통합되었다. 2009년 5월 현재 도련1동에는 서동네(西洞), 중동네(中洞), 동동네(東洞) 등으로 나누어 있다.

2) 삼양(三陽)1동의 마을 형성과 그 연혁

삼양 1동은 삼양동의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로, 조천읍 신촌리와 접하고 있다. 삼양1동은 삼양동 관할에 있는 법정동으로 조천읍 이전에 제일 동쪽 해안에 있는 마을이다. 삼양1동의 식수(食水)인 용천수(湧泉水)로는 고냉이물(위치멸실, 고갈/멸실), 큰물(1, 용암류경계형, 생활·농업용)·큰물(2, 용암류경계형, 생활·농업용)·셋도리물(용암류경계형, 생활·농업용), 우무수물(용암류경계형, 상수원), 독통물(용암류경계형, 미이용), 엉덕알물(용암류경계형, 미이용), 가막작깃물(용암류경계형, 상수원) 등이 있다. 삼양동의 하천으로는 ‘음나물내’와 ‘뚝배기내’가 있다.

삼양1동의 중심 마을로는 ‘소흘개마을, 웅당개마을, 지구리마을’ 등이 있었다⁴⁶⁾. 세종(世宗) 14년(1432)에 완성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 제주목(濟州牧)」에는 ‘봉화(烽火)가 9곳이니, 제주(濟州)의 동문(東門)은 동쪽으로 벨도(別刀)에 응한다. 벨도(別刀)는 동쪽으로 원당(元堂)에 응한다. 원당

44) 善生永助, 『濟州島生活狀態調査』 「II. 部落, 濟州面」.

45) 高禎鍾, 『濟州島便覽』 「濟州面」.

46) 오창명, 1998,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pp. 250~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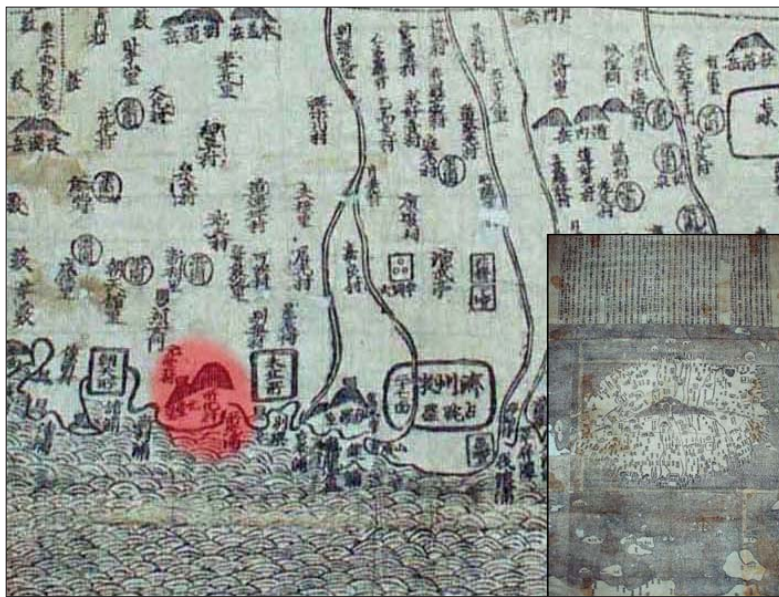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 71~74.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 행정명사·제주시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pp. 459~466.

(元堂) 동쪽으로 서산(西山)에 응한다⁴⁷⁾ 라고 했다. 이를테면 세종 14년(1432)에 원당(元堂) 봉화(烽火)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원당봉에 봉수대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99년 후인 중종(中宗) 26년(1531)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전라도(全羅道), 제주목(濟州牧) - 봉수」조에 ‘원당오름봉수(元堂岳烽燧)는 서쪽으로 벨도(別刀)에 응하고 동쪽으로 입산오름(笠山岳)에 응한다⁴⁸⁾’ 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70년 후 선조(宣祖) 34년(1601) 10월 12일에 『남사록(南槎錄)』에는 ‘병선(兵船)을 감출만 한 곳으로 소흘개(所訖浦)가 동쪽 15리에 있다⁴⁹⁾’ 라고 하여 ‘소흘개’가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소흘개는 본주(本州)의 25포구 중에서 병선(兵船)을 감출만 한 곳이었다.

이로부터 52년 후인 효종 4년(1653)에 편찬한 『탐라지(耽羅志)』 「봉수(烽燧)」조에, 원당(元堂)은 동쪽으로는 서메(西山)와 서쪽으로는 사라(紗羅)와 신호를 주고받는다⁵⁰⁾ 라고 했다. 27년 후 숙종 6년(1680) 2월 16일 『남사일록(南槎日錄)』에는 ‘밥을 먹은 뒤에 순력(巡歷)을 나서려 동문(東門)을 거쳐 길에 나서서 황폐해진 터가 된 만수사(萬壽寺)와 사라봉수(紗羅烽燧), 화북연대(禾北烟臺)를 지나 화북내(禾北川)를 건넜다. 하류는 고늬개(古老浦)를 지나 화북소(禾北所)에 도착하였다. 조방장(助防將) 강취관(康就寬)과 속오초관(束伍哨官) 고상언(高尚彦)이 행례(行禮)를 한 다음 군병(軍兵)과 군기(軍器)를 점열(點閱) 한 후에 15리를 가면서 소흘개(所訖浦), 원당봉수(元堂烽燧), 신촌(新村) 열녀국기(烈女國只)의 정문(旌門), 신촌개(新村浦)를 지난 초천소(朝天所)에 도착하였다⁵⁰⁾’ 라 했다.



삽도 7. 「탐라도」에 나타난 소흘촌(所訖村) · 소흘개(所訖浦) · 원당촌(元堂村) · 원당봉수(元堂烽燧)

한편,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된 「탐라도」에는 소흘촌(所訖村) · 소흘개(所訖浦) · 원당촌(元堂村) · 원당봉수(元堂望)가 표시되어 있다.

요컨대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는 소흘촌(所訖村)은 소흘개(所訖浦)의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촌락일 뿐만 아니라 원당촌(元堂村)은 원당봉수(元堂烽燧)의 주변에 형성된 촌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65년 후인 영조(英祖)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사이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

47) 『世宗實錄』 「地理志 - 濟州牧」,

烽火九處 州東門[東準 別刀] 別刀[東準 元堂] 元堂[東準 西山] … 下略 …

48) 中宗 命撰,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 烽燧」,

元堂岳烽燧 西應別刀 東應笠山岳.

49) 金尙憲, 『南槎錄』 卷之三 十二月 二十日,

兵船可泊 所訖浦 東十五里.

50) 李增, 『南槎日錄』 肅宗 6年(1680) 二月 十六日(丙子),

食後出巡 由東門作行過萬壽廢寺 紗羅烽燧 禾北烟臺 渡禾北川下流爲古老浦 到禾北所 助防將康就寬 束伍哨官高尚彦行禮 仍點閱軍兵軍器後 又行十五里 過所訖浦 元堂烽燧 新村烈女國只旌門 新村浦 到朝天所.

51) 권1「제주(濟州) - 면촌(面村) 증(增)」에 중면(中面)에는 소면(小面)으로 중좌면(中佐面)·주중면(州中面)·중우면(中右面)이 있는데 그 3소면 중에 하나인 중좌면(中佐面)에는 서흘개[鋤訖浦]마을이 있다⁵²⁾. 이를테면 서흘개[鋤訖浦]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은 서흘개리[鋤訖浦里]로 표기했다. 이 ‘서흘개’는 앞서 언급한 있는 ‘소흘개[所屹浦]’의 한자차용 표기로 보인다. 또한 이 당시에 제주목의 4개의 대면(大面)에는 풍헌(風憲) 각 1인이 있다. 소면(小面)에는 12개의 약정(約正) 각 1인이 있으며 81개



삽도 8.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소흘리(所屹里)·원당봉(元堂峰)·소흘개[所屹浦]

마을마다 경민장(警民長)·권농(勸農)·기관관(機察官)·포도(捕盜)·존위(尊位)·동장(洞長)·이임(里任)·색장(色掌)·지심(指審)·유사(有司)가 각 1인이 있어 모두 서무(庶務)를 담당했다⁵³⁾.

그러다가 20년 후 정조(正祖) 9년(1785) 2월 이후에 편찬한 『제주읍지(濟州邑誌)』 「방리(坊里)」조에 중면(中面)의 □흘리(□訖里)는 동쪽으로 거리가 15리이다. 백성의 집(民戶)은 91호이며 남자가 207명이고 여자는 307명으로 남녀합계가 514명⁵⁴⁾이었다고 했다. 특히 □흘리(□訖里)에서 ‘□’는 ‘소(所)’자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보건대 □흘리(□訖里)는 소흘리(所屹里)로 추정된다. 또 41년 후인 순조(純祖) 26년(1826)에 작성된 「감시절목(減柴節目)」⁵⁵⁾에도 소흘(所屹) 마을⁵⁶⁾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 46년 후인 고종 9년(1872)에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는 소흘리(所屹里)·원당봉(元堂峰)·소흘개[所屹浦]가 표시되어 있다.

18년 후 고종(高宗) 27년(1890)에 삼양(三陽) 마을의 인구는 722명⁵⁷⁾이었다. 특히 소흘마을은 고종 9년

51) 『증보담라지(增補耽羅誌)』는 영조 41년(1785) 8월부터 영조 42년(1766) 6월 사이에 윤시동(尹耆東) 제주목사가 편찬했다.

52) 『증보담라지(增補耽羅誌)』 卷一 「濟州 - 面村 增」條,

中面 小面三 中左面 州中面 中右面

中左面 別刀 鋤訖浦 道連坪 泉味 臥乎訖 細隱刷 上奉蓋 下奉蓋 無等川 別羅花 合十里

○ 凡州大面四 風憲各一人 小面十二 約正各一人 八十一里 每里警民長 勸農 機察官 捕盜 尊位 洞長 里任 色掌 指審 有司 各一人 共掌庶務.

53) 『증보담라지(增補耽羅誌)』 「濟州 - 面村(增)」條,

○ 凡州大面四 風憲各一人 小面十二 約正各一人 八十一里 每里 警民長 勸農 機察官 捕盜 尊位 洞長 里任 色掌 指審 有司 各一人 共掌庶務.

54) 『濟州邑誌』 「濟州 - 坊里」

中面 : □訖里 東距十五里 民戶九十一 男二百七 女三百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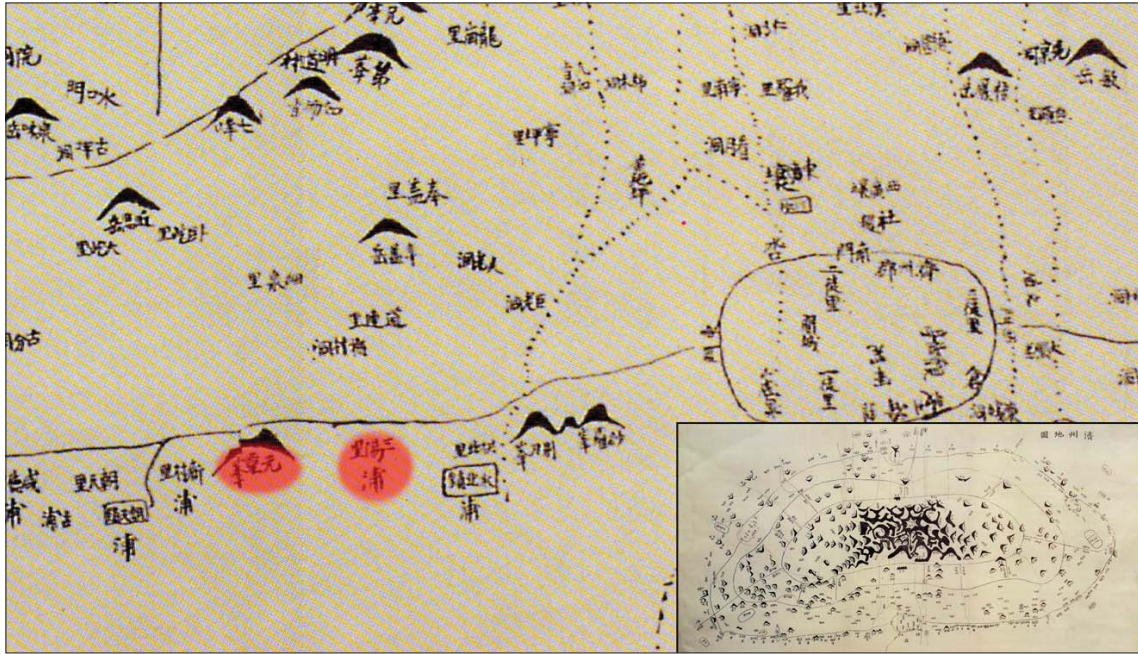
55) 『감시절목(減柴節目)』은 순조 26년(1826)에 관(官)에서 받아들이던 땔감을 절감하는 절목이다.

56) 『減柴節目』,

… 上 略 … 下道 上道 細花 坪岱 槐伊 魚登 無注 北浦 咸德 新村 道連 細刷 奉蓋 所屹 下無 上無 別羅 臥訖 右十八里 永減 燒木 只擗青草.

57) 「庚寅十二月 日 三邑還弊及庶癘革祛節目」 「本州 - 中面」,

三陽人口 七百二十二 分米七十八石十四斗八合.



삽도 9.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원당봉(元堂峰) · 삼양마을(三陽里) · 삼양개(三陽浦)

(1872) 이후로부터 고종(高宗) 27년(1890) 이전에 삼양(三陽) 마을로 마을의 명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7년 후 광무(光武) 3년(1899)에 간행한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제주지도(濟州地圖)」에는 삼양마을(三陽里)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5년 후 광무(光武) 8년(1904)에 『삼군호구가간총책』 「제주군 - 중면」에는 삼양(三陽)의 연기가 나는 집(烟家)은 290호다. 남자가 474명이며 여자는 490명으로 남녀 합계가 964명이다. 초가집은 711칸이

다⁵⁸⁾라고 기록하였다. 25년 후 1929년에 당시 제주면(濟州面)에 삼양리(三陽里)에 호수는 527호이며 남자가 1,274명이고 여자는 1,343명으로 남녀 합계가 2,617명이었다⁵⁹⁾. 1930년에는 삼양리의 호수는 527호이며 인구수가 3,014명이었다. 1년 사이에 인구수가 397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1년에는 제주읍 삼양리이라고 하다가 1955년에는 제주시 삼양동이라 하였다. 1962년에는 옛 삼양동과 도련동을 합하여 삼양동이라 하였다. 현재 행정동인 삼양동에는 삼양1·2·3동과 도련1·2동 등 5개의 법정동을 거느리고 있다.

(강창룡)



삽도 10. 1919년도 「제주지도」에 나타난 삼양동 마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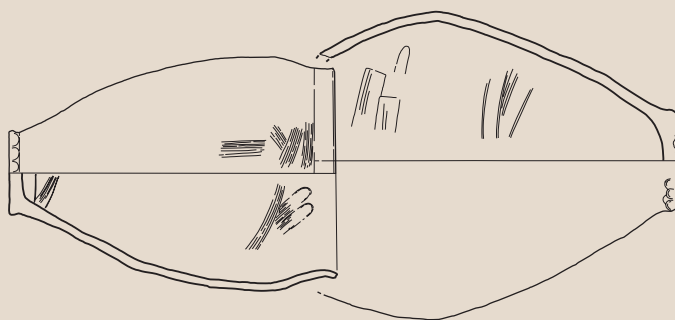
58) 『三郡戶口家間摺冊』 「濟州郡 - 中面」,

三陽 烟家二百九十戶 男四百七十四口 女四百九十口 合九百六十四口 草家七百十一間.

59) 善生永助, 『濟州島生活狀態調査』 「II. 部落 - 濟州面」.



III. 조사방법 및 총위



Ⅲ. 조사방법 및 층위

1. 조사방법

금번 조사는 제주시 도시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 확장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따라서 기존의 왕복 2차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I 구역, 그 반대쪽인 남쪽은 II구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이미 형질변경된 옹벽설치구간과 기존도로구간을 제외한 사업면적 15,360㎡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7월 실시된 분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지는 대부분 퇴적층 하부 대략 30cm 내외에서 황색점토층(생토층)이 노출되었으며 유구의 어깨선은 황색점토층 상부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금번 조사는 전체 발굴조사 대상면적에 대한 표준 퇴적토층을 확인한 후 전면적인 제토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레벨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황색점토층 상부의 퇴적토만을 제거하여 유구의 존재유무를 먼저 확인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지에 대한 전면제토와 함께 유구 어깨선을 확인한 후 각각의 지점별로 중심점(D.P.)을 설치하고 격자상의 Grid를 구획하여 유구내부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구는 먼저 다수의 주혈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였는데 각각의 주혈내부에 퇴적된 토양성분을 비교하여 구분되는 유구별로 정리하여 동시기 축조 여부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반면에 주거지에 대한 조사는 내부에 ‘+’ 자형의 Baulk를 두고 양쪽의 퇴적토층을 관찰하면서 하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 내부의 출토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가 대부분인데 잔편이나 소편인 경우 노출과정에서 수습하여 일괄처리하였으며 기종이나 기형을 알 수 있는 토기편은 모두 노출시키고 도면과 사진자료를 완성한 후 수습하였다. 특히 주거지는 벽체의 조성, 유물의 출토위치, 내부퇴적토의 퇴적상태, 타원형구덩이의 형태, 상면의 축조상태, 주거지 폐기당시의 상황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옹관묘는 외곽으로 둘러진 적석의 축조상태, 옹관의 합구상태, 토광 굴착여부, 상면 축조상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토광묘는 목관을 안치했던 묘광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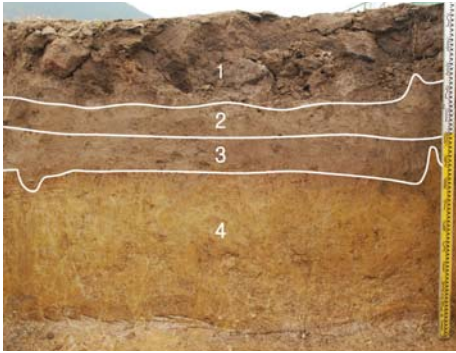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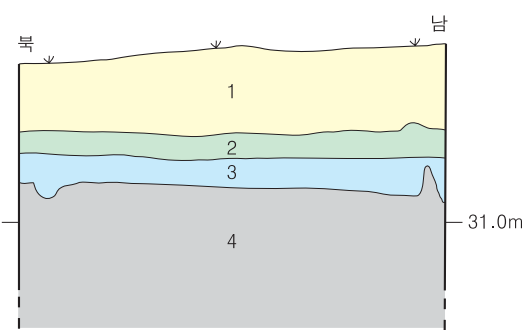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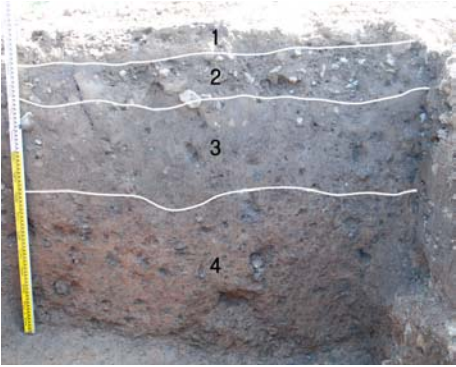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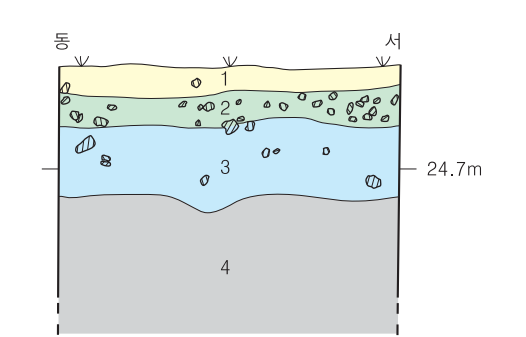
조사대상지는 선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취락의 공간구성에 대한 검토는 어렵다. 다만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특징이 기존 삼양동취락의 송국리형 단계로 추정되는 바 동시기 주거구조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합구식옹관은 기조사된 삼화지구의 옹관묘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동시기 옹관축조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경주)

2. 층위

조사대상지는 조사 착수전에 이미 하천(음나물내)변 옹벽공사로 인해 상당부분이 삭평되고 파괴된 상태이다. 따라서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토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I 구역 3개지점(3지점, 5지점, 6지점)과 II구역 2개지점(6지점, 8지점) 등 모두 5개 지점에 각각 Test-Pit를 설

치하여 문화층의 퇴적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지점에 대한 조사결과 I 구역 6지점을 제외한 모든 층위의 퇴적양상이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즉 총 4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한 토층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층 위(사진)	층 위(그림)
I 구역 3지점		
I 구역 5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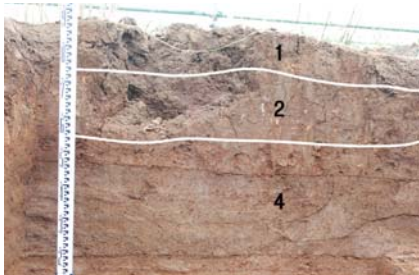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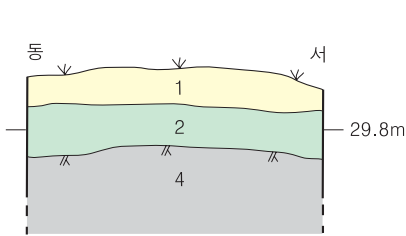
삽도 11. 조사대상지 층위 모식도(I 구역 3지점 · 5지점)

1층 : 표토층(경작층)

2층 :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잔자갈이 함유되어 있다. 사질성분이 적고 점성이 강한 편이다.

3층 :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함유된 층이다. 토층 내에서는 토기편이 포함되어 확인된다. 삼양동유적 일대에서 확인되는 퇴적층 중에 취락과 관련된 문화층으로 판단되는 층이다.

4층 : 황색점토층으로 생토층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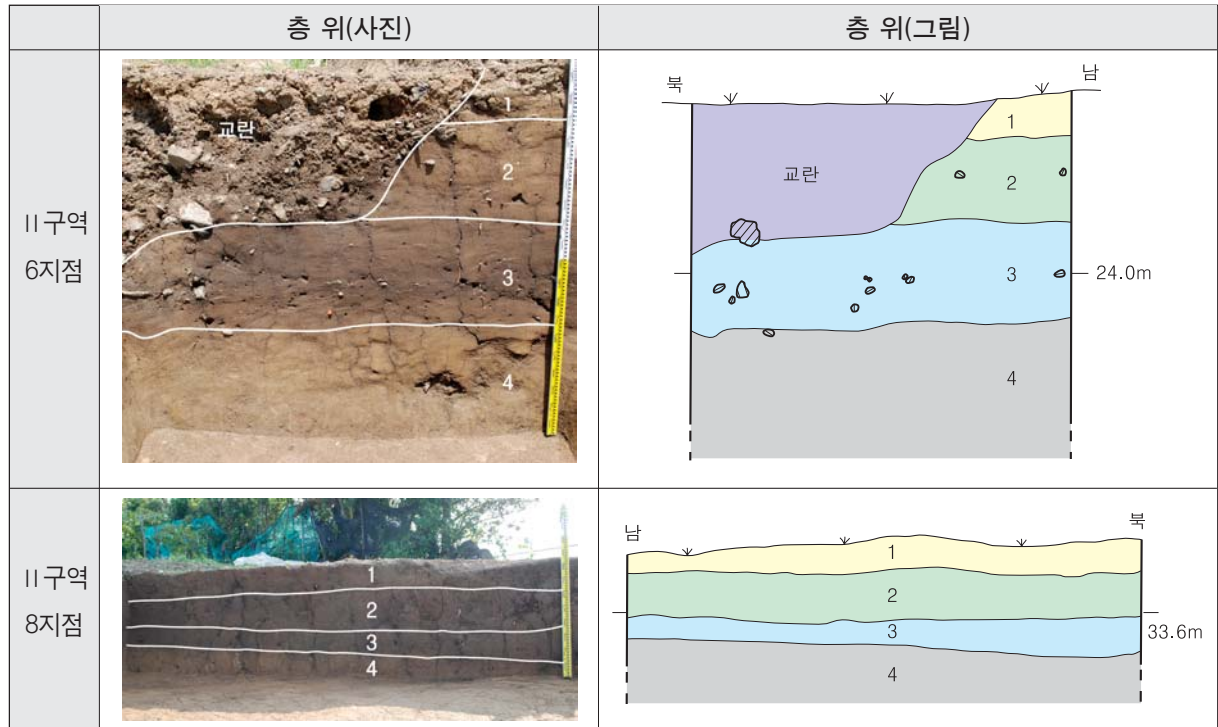
	층 위(사진)	층 위(그림)
I 구역 6지점		

삽도 12. 조사대상지 층위 모식도(I 구역 6지점)

1층 : 표토층(경작층)

2층 :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사질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굵은 입자의 스코리아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다.

4층:황색점토층으로 생토층에 해당하며 미세한 풍화암반 알갱이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삽도 13. 조사대상지 층위 모식도(II 구역 6지점 · 8지점)

1층 : 표토층(경작층)

2층 :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잔자갈이 함유되어 있다. 사질성분이 적고 점성이 강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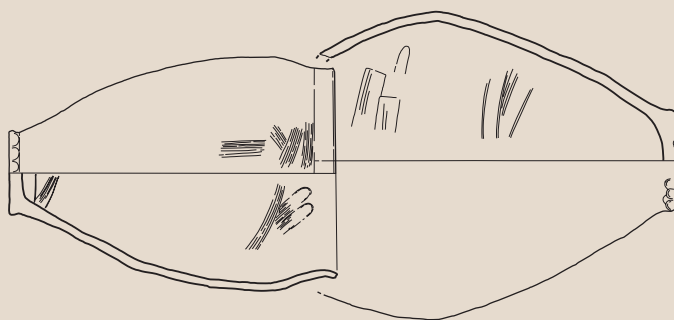
3층 :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함유된 층이다. 토층 내에서는 토기편이 포함되어 확인된다. 삼양동유적 일대에서 확인되는 퇴적층 중에 취락과 관련된 문화층으로 판단되는 층이다.

4층 : 황색점토층으로 생토층에 해당한다.

(현승룡)



IV. 조사내용



IV. 조사내용

금번 발굴조사 결과 탐라성립기와 조선시대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먼저 탐라성립기의 유구를 살펴보면 수혈주거지 4동, 굴립주건물지 1동, 수혈유구 22기, 집석유구 1기, 소토유구 2기, 구상유구 5기, 옹관묘 1기, 토광묘 4기, 기타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유구로는 수혈유구 4기, 구상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1. 탐라성립기

가. 주거지

1) 1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17, 도판: 3)

I 구역 5지점 서편 경계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주거지는 근대 경작으로 인해 상부는 물론 상면 역시 2/3 이상이 결실되었으며 남쪽 상면 일부와 중앙부 타원형수혈만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볼 때 원형으로 판단되며 타원형수혈이 배치된 송국리형주거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N85°W이며 잔존규모를 보면 장축 454cm, 단축 261cm, 깊이 3~7cm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함유된 흑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는 대부분 결실되어 정확한 축조상태를 알 수가 없다. 반면 주거지 상면은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주거지 내부 중앙부에는 동서장축의 타원형수혈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양단 내부에는 각각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타원형수혈의 단면은 상면에서 바닥으로 완만한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타원형구덩이의 규모를 보면 장축 117cm, 단축 56cm, 깊이 10cm 이다. 또한 양단에 배치된 주혈은 동쪽주혈 27(직경)×32(깊이)cm, 서쪽주혈 26(직경)×36(깊이)cm 이다. 양단의 주주간 거리는 대략 97cm 정도에 해당한다. 출토 유물은 옥제품 1점이 주거지 바닥면에서 확인되었고 이외 토기편이 일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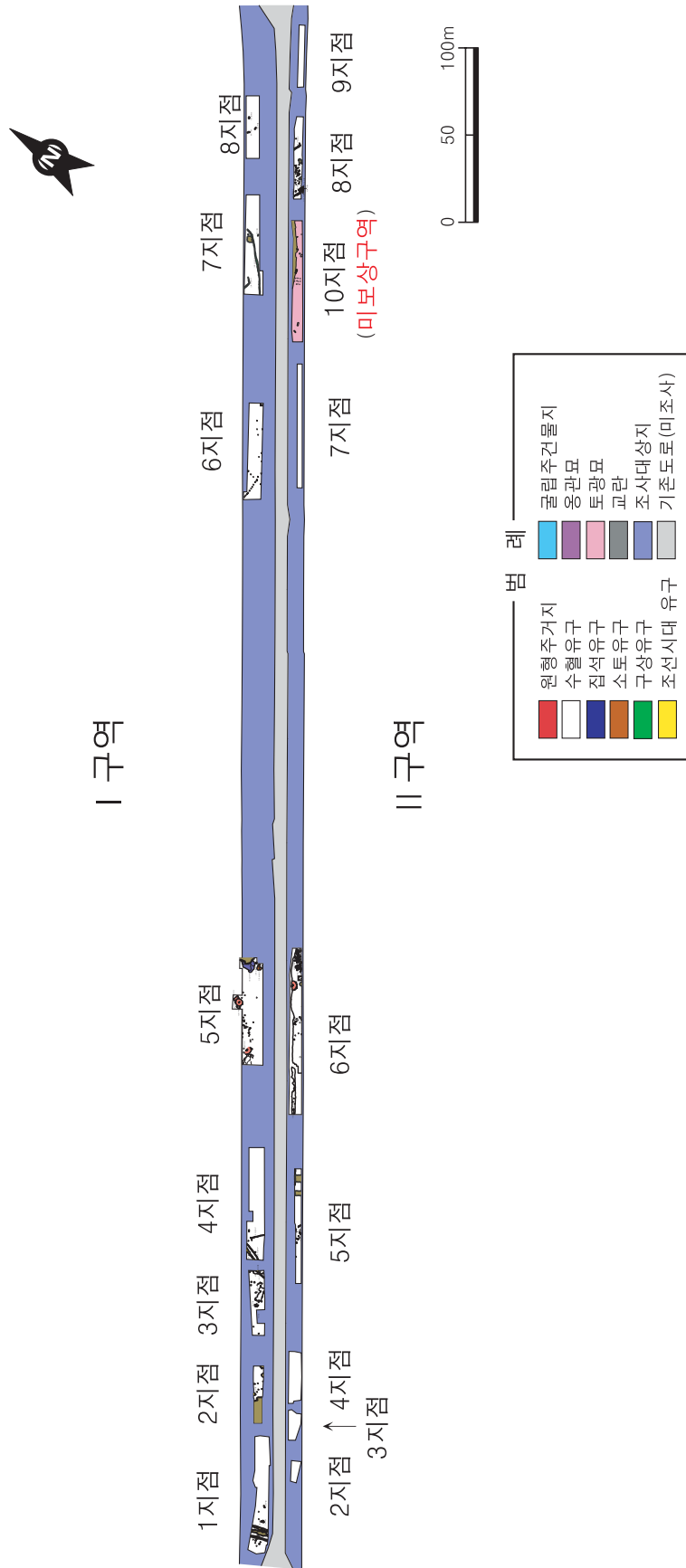
나) 출토유물

1. 옥(도면: 17-1, 도판: 3-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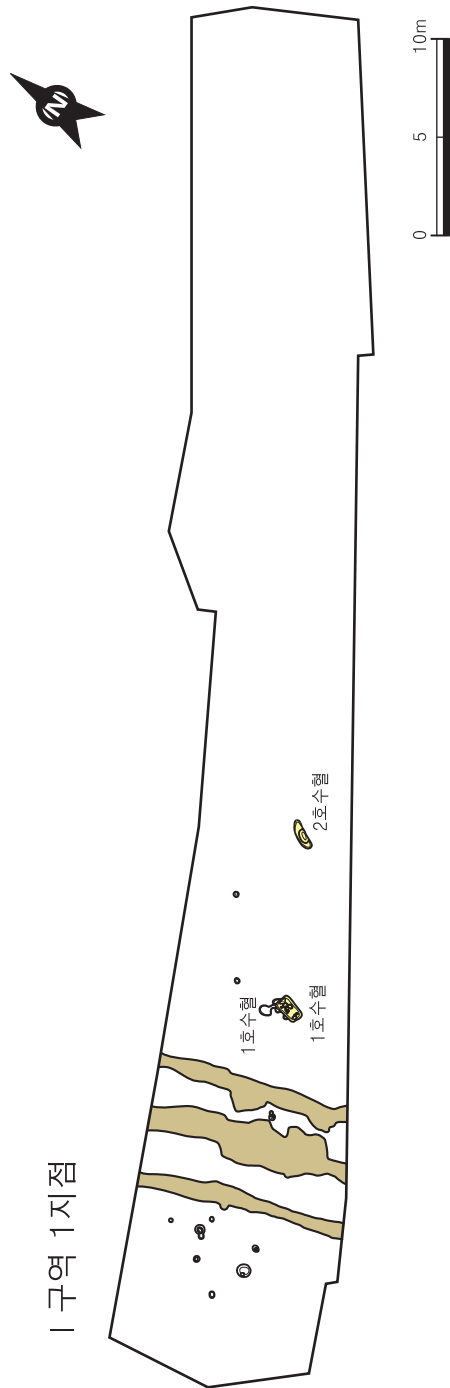
유리제 옥으로 반파되었다. 색조는 청록색을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투공부에 절단 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롱옥으로 1차 제작 사용 후 재가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直徑 0.7cm, 厚 0.4cm, 透孔直徑 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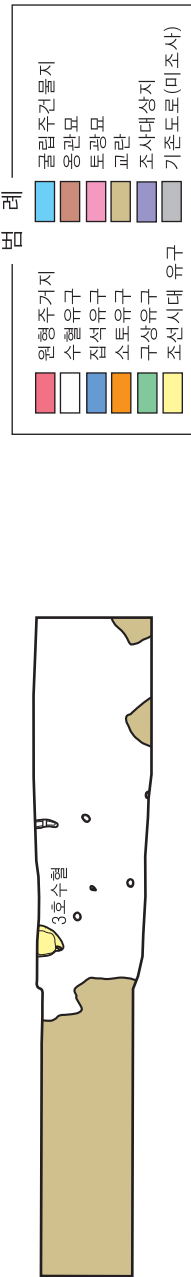
도면 10.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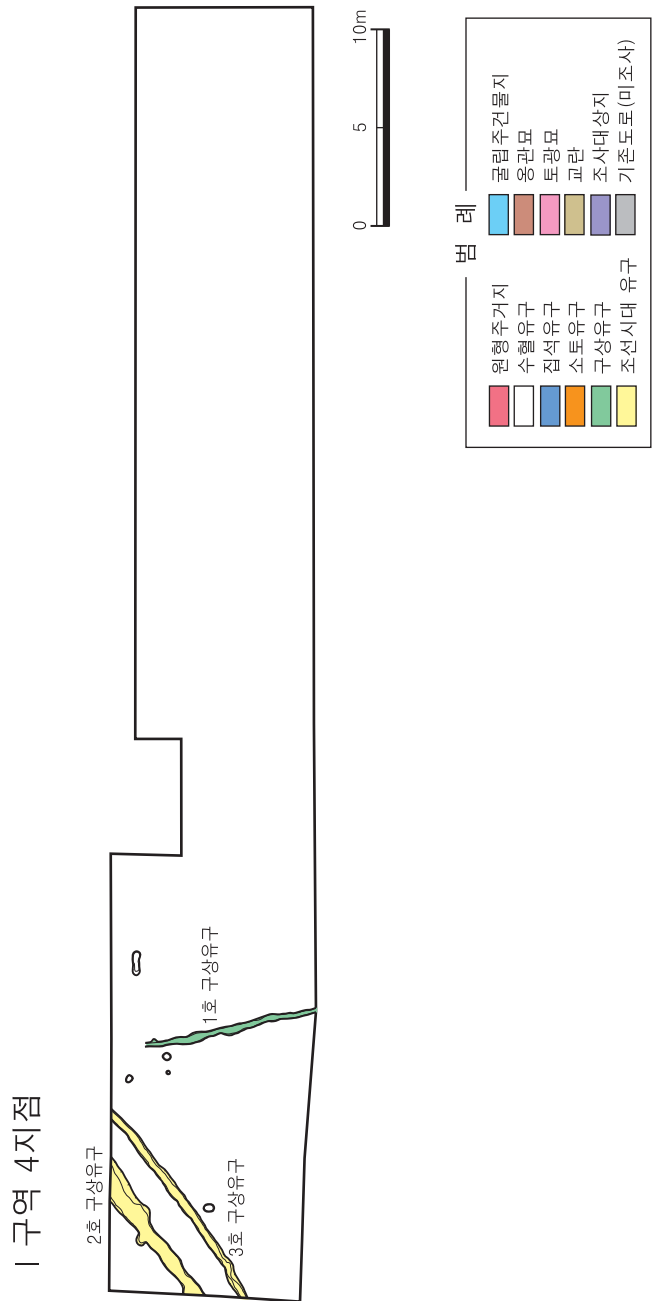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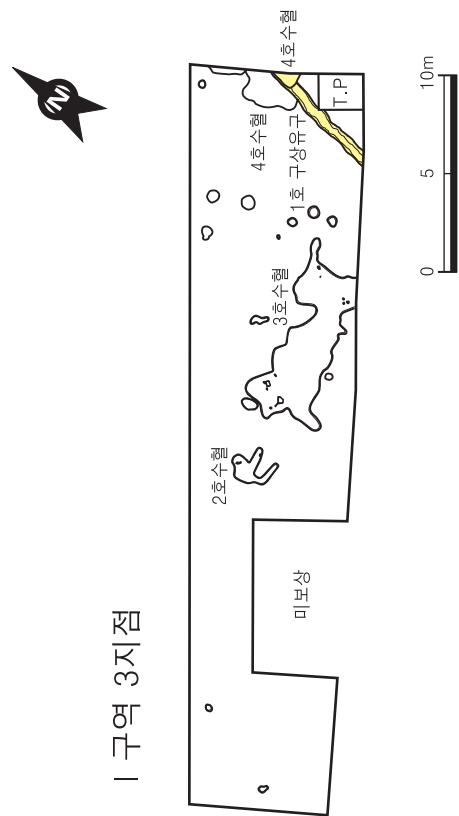


도면 11. I 구역 1지점 · 2지점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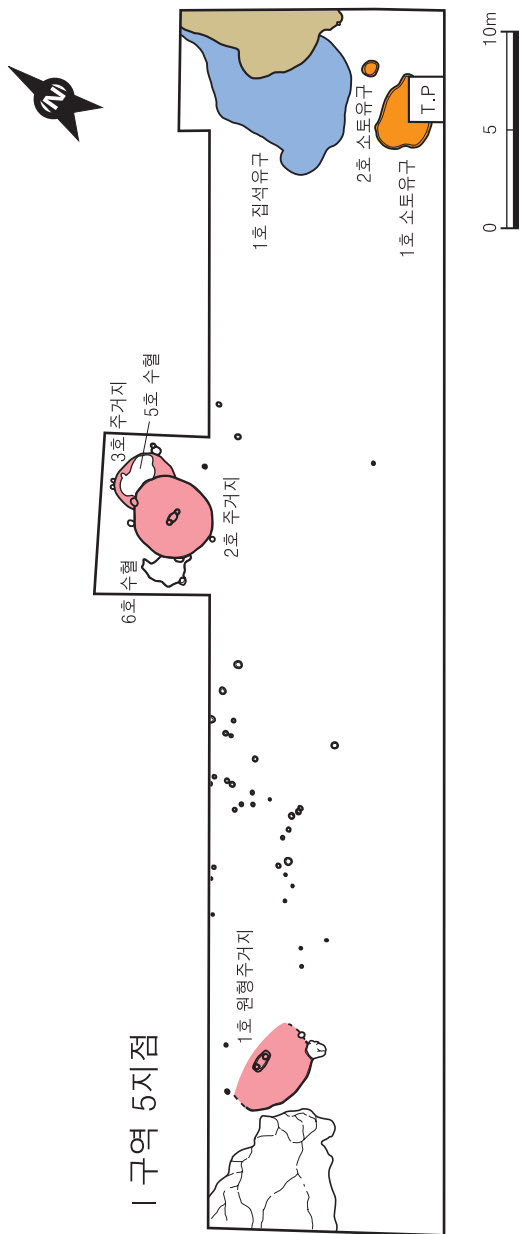
I 구역 2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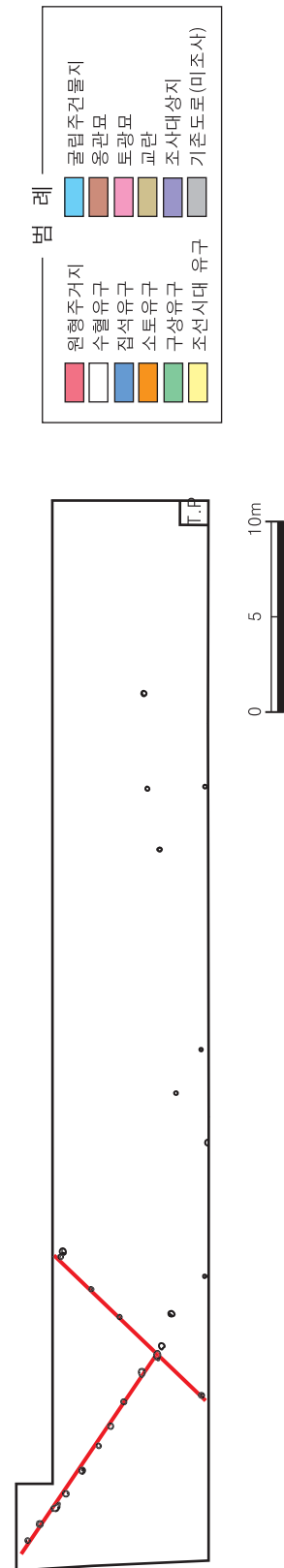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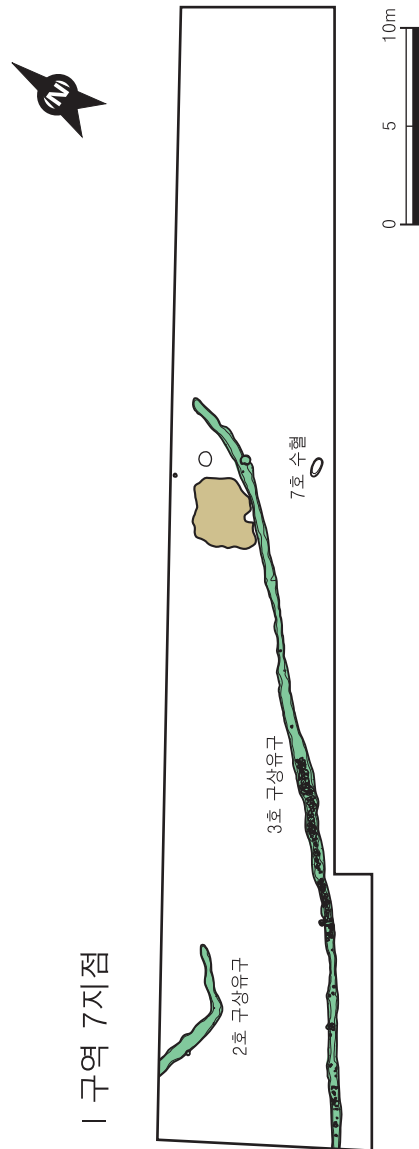
도면 12. Ⅰ 구역 3지점 · 4지점 유구배치도

도면 13. I 구역 5지점 · 6지점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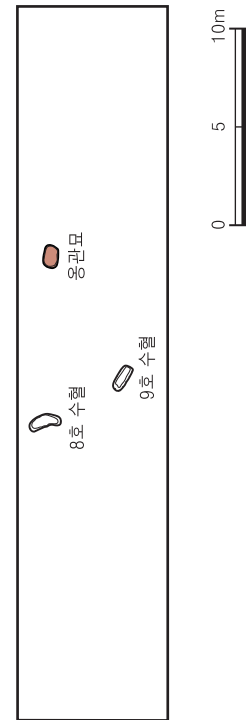
I 구역 6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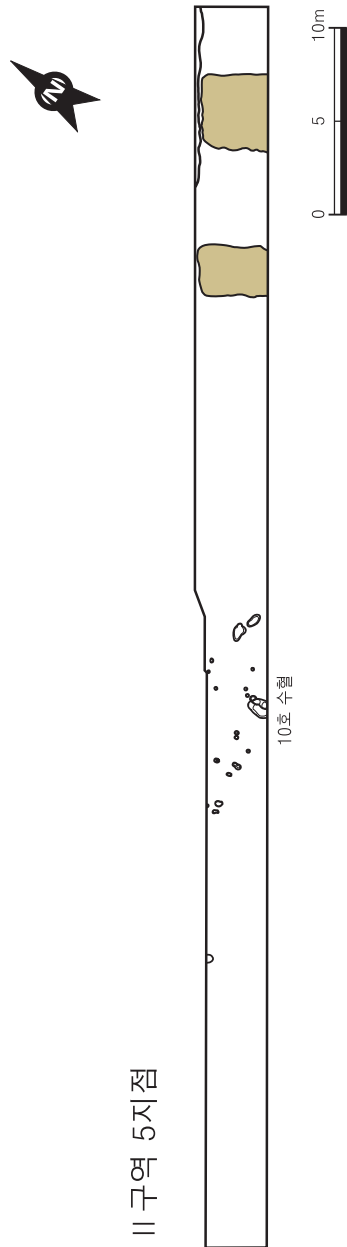
범례	
원형 주거지	굴립 주거지
수혈유구	옹관묘
전적유구	포광묘
소토유구	교란
구상유구	조사대상지
조선시대 유구	기존도로 (미조사)

구역 8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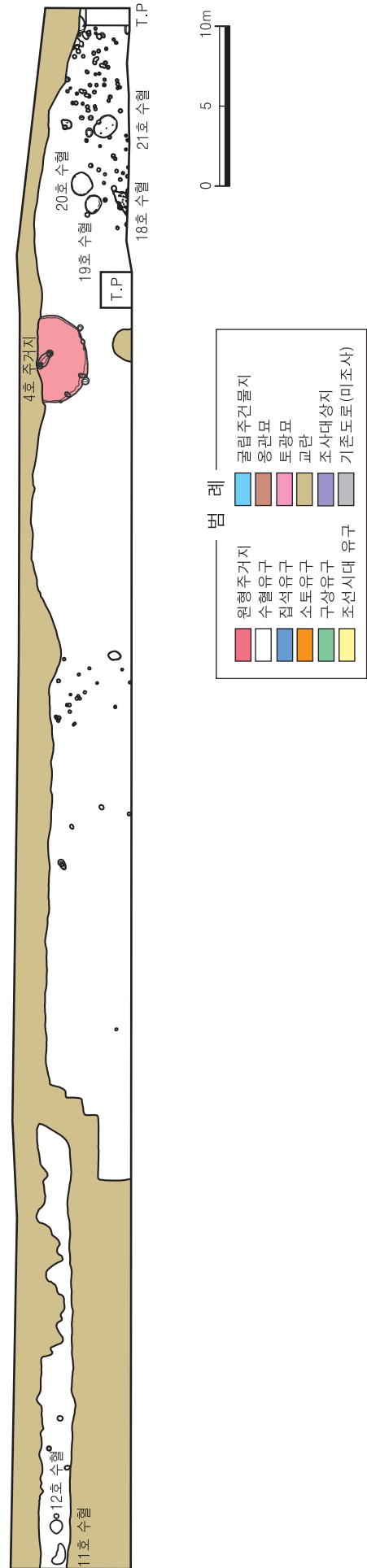


도면 14. I 구역 7지점 · 8지점 유구배치도

도면 15. II 구역 5지점 · 6지점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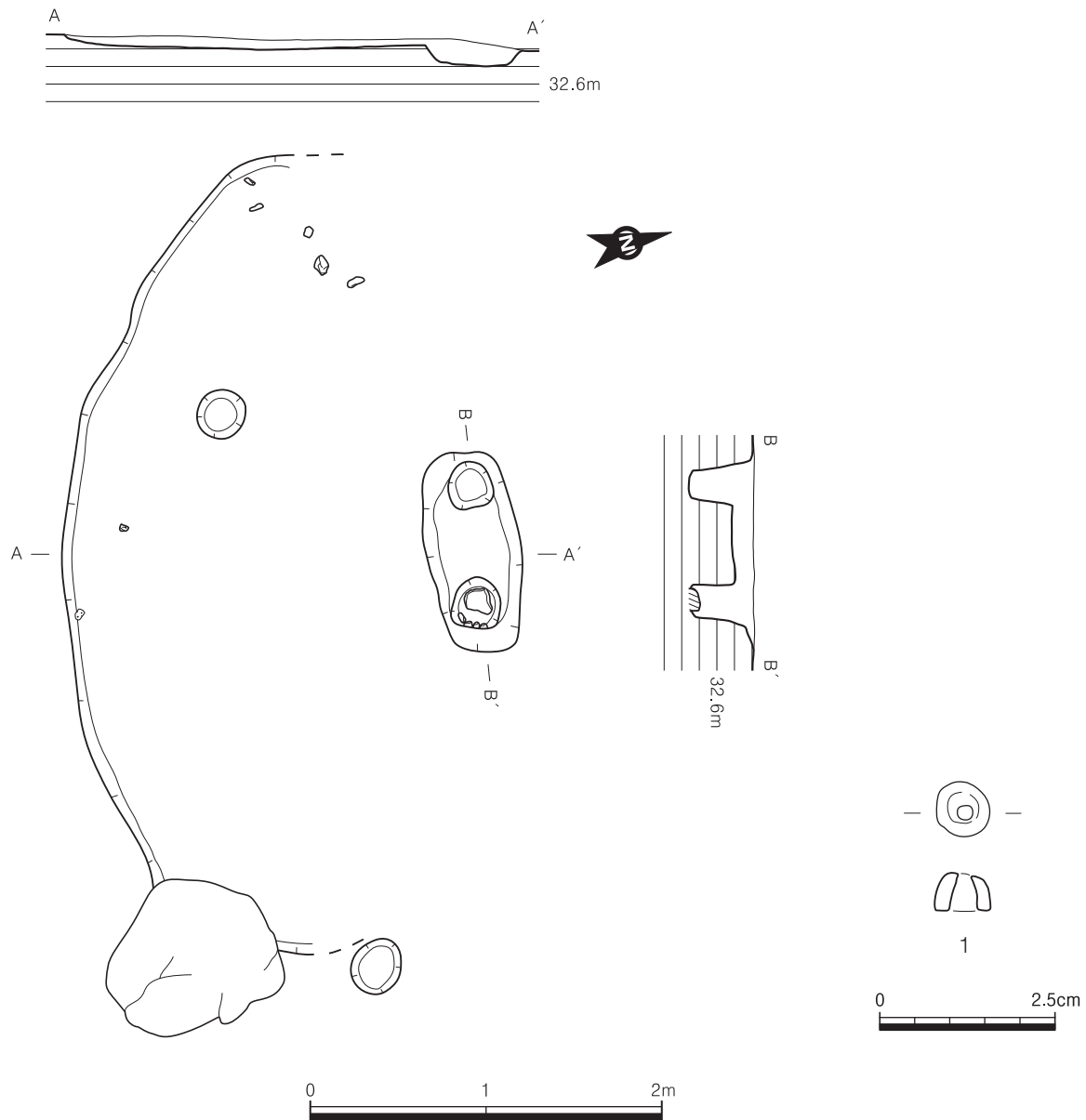


II 구역 6지점





도면 16. II구역 8지점 · 10지점 유구배치도



도면 17. 1호 주거지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2) 2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18, 도판: 4~6)

2호 주거지는 I 구역 5지점 북편 중앙부에 위치한다. 유구의 북편으로는 3호 주거지와 5호 수혈이 자리하고 있으며 서편으로는 6호 수혈이 중복 축조되어 있다. 잔존상태로 볼 때 2호 주거지가 가장 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에 해당하며 내부 바닥 중앙부에 타원형수혈이 배치되어 있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N83°W이며 규모는 장축 444cm, 단축 414cm, 깊이 29cm 내외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점토층인 단일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량의 소토와 목탄, 잔자갈이 함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후술할 4호 주거지의 내부퇴적토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벽체는 풍화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직벽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바닥은 일부 점토다짐 한 것으로 보여지며 벽

체와 동일하게 풍화암반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주거지 내부의 중앙부와 남동편으로는 대형 할석이 무질서하게 적석되어 있는데 주거지 폐기 당시 적석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중앙부에는 동서장축의 타원형수혈이 조성되어 있으며 양단 가장자리에 걸쳐 주혈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타원형수혈의 단면은 'U' 자상으로 상부에서 바닥으로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내부퇴적토는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함유된 흑갈색점토층으로 단일층이다. 타원형수혈의 규모는 장축 104cm, 단축 37cm, 깊이 4cm에 해당한다. 양단주혈은 동쪽주혈 26(직경)×18(깊이)cm, 서쪽주혈 30(직경)×18(깊이)cm 이다. 양단 주주간 거리는 대략 44cm 정도이다. 또한 타원형수혈 내부에 기둥을 올렸던 각각 주혈의 벽체에는 보강석이나 충전토등 기둥보강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거지 내부의 유물 출토상황을 살펴보면 퇴적토에서는 대체로 적갈색경질토기 잔편이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상면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원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 고석, 연석, 지석, 석축, 미완성석기,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나) 출토유물

2. 점토대토기(도면: 19-2, 도판: 6-⑪-2)

점토대토기 구연부편이다. 점토대의 단면 형태는 원형을 이루고 있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재지산 태토로 추정된다. 색조는 내외면에 전반적으로 암갈색과 흑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現長 1.2cm, 厚 1.3cm

3.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3, 도판: 6-⑪-3)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 일부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황갈색과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에 가깝게 처리하였다. 기벽은 5cm 내외의 점토관 접합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동최대경은 동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지두반흔에 의한 성형흔이 관찰된다. 반면 기외면 구연부 하단에는 종방향으로 폭 2.8cm의 판상구 축약흔이 확인된다.

現高 9.4cm, 厚 0.5~1.3cm

4.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4, 도판: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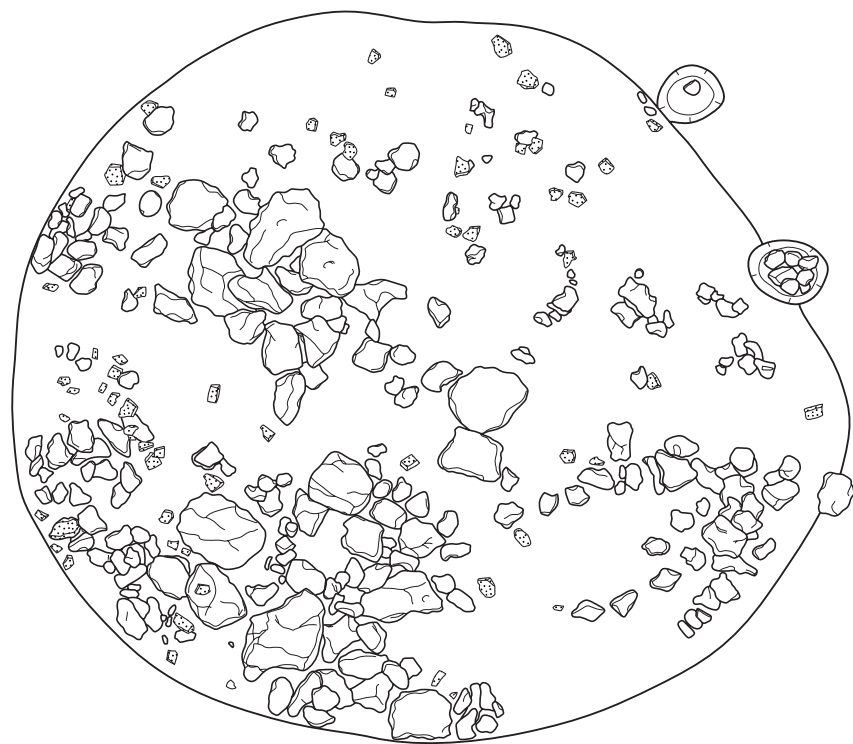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며 잔존상태로 볼 때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8.4cm, 厚 0.9~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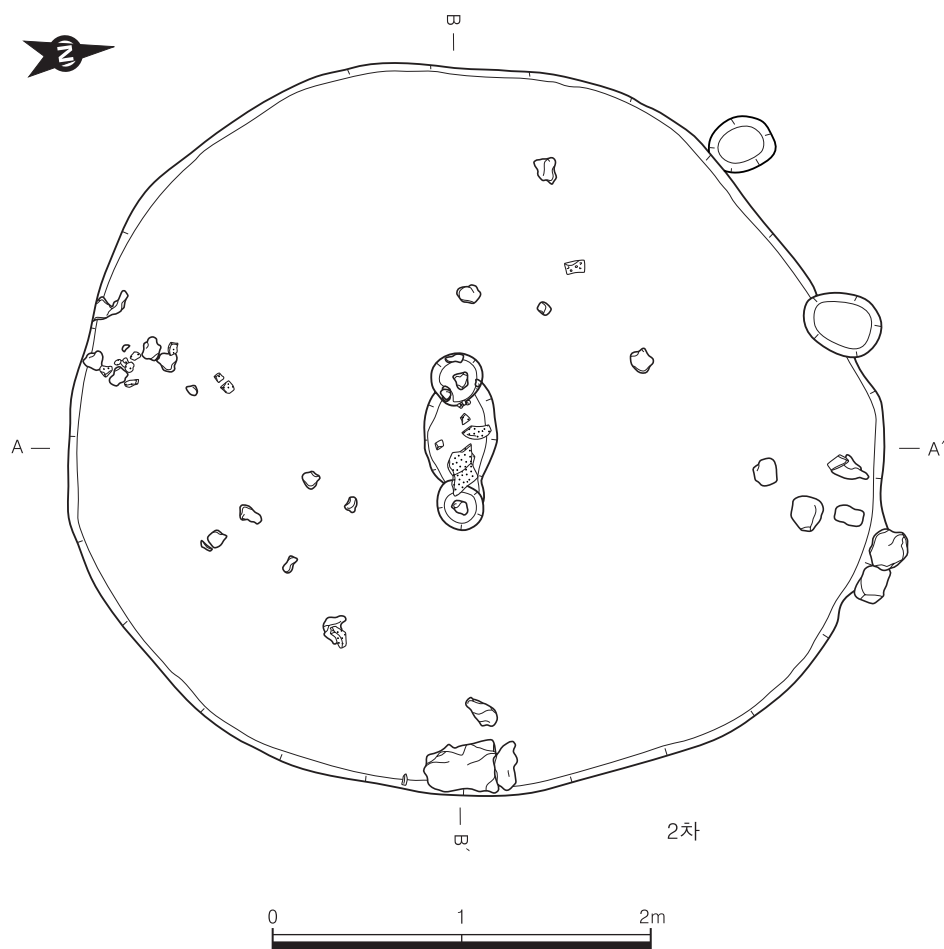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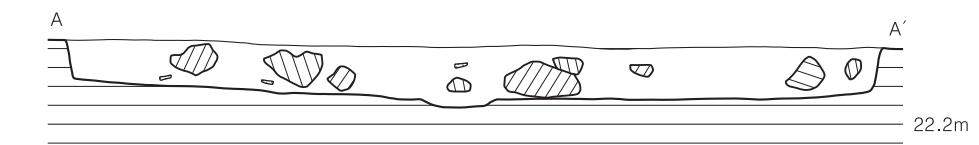
5.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5, 도판: 7-5)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상으로 둥글게 성형하였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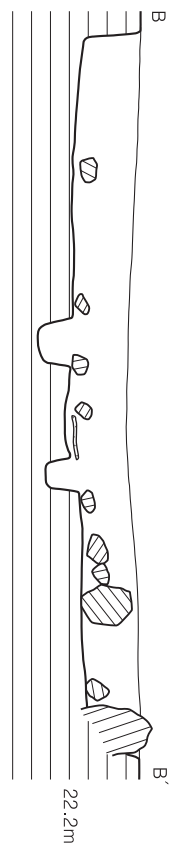
現高 7.6cm, 厚 1.0~1.2cm



1차



2차



도면 18. 2호 주거지 평단면도

6.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6, 도판: 7-6)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 일부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으나 외면에 일부 적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는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지두반흔이 확인된다.

現高 7.7cm, 厚 1.0cm

7.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7, 도판: 7-7)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매우 불량하며 기면이 심하게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기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갈색과 흑갈색조를 띠고 있으며 내면은 적갈색조이다. 구연단은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며 반원형상으로 둥글게 성형하였다. 내면에는 사방향으로 지두반흔이 확인된다.

現高 9.4cm, 厚 0.6~0.8cm

8.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8, 도판: 7-8)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기내외면 색조는 대체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으나 암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에 가깝게 불규칙적으로 성형하였다. 내면의 구연단 하단에는 지두압에 의한 외반 성형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現高 8.4cm, 厚 0.9cm

9.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9, 도판: 7-9)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적갈색과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단은 점토덧씌우기 수법으로 성형하였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4.3cm, 厚 0.7cm

10.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10, 도판: 7-10)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기외면이 황갈색과 암갈색조가 혼재되어 있고 내면은 황갈색조이다. 구연단은 반원형상으로 불규칙하게 처리하였다. 기외면 구연 하단에는 폭 1.5cm 내외의 판상구를 사용하여 외반성형을 하였다.

現高 6.8cm, 厚 0.7~1.0cm

11.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11, 도판: 7-11)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기외면 색조는 흑갈색조를 내면은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지두반흔 성형 후 빗질과 문지르기 수법으로 정면하여 마무리하였다.

現高 8.5cm, 厚 1.0cm

12.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12, 도판: 7-12)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비교적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現高 6.2cm, 厚 0.7cm

13.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13, 도판: 7-13)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기면 일부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외면 색조는 적갈색이고 내면은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7.4cm, 厚 1.2cm

14.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14, 도판: 7-14)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매우 불량하며 기면 일부가 박리되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적갈색과 황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하단에는 0.5cm 내외의 판상구 압흔을 이용하여 외반성형을 하였다.

現高 7.0cm, 厚 0.9cm

15.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15, 도판: 7-15)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적갈색과 암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축약흔이 일부 확인되나 뚜렷하지 않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5.0cm, 厚 1.2cm

16. 적갈색경질토기(도면: 19-16, 도판: 7-16)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 형태는 편평저부이며 축약 후 점토 덧씌우기 수법으로 물손질 처리하여 축약흔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5cm, 厚 1.1cm

17.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0-17, 도판: 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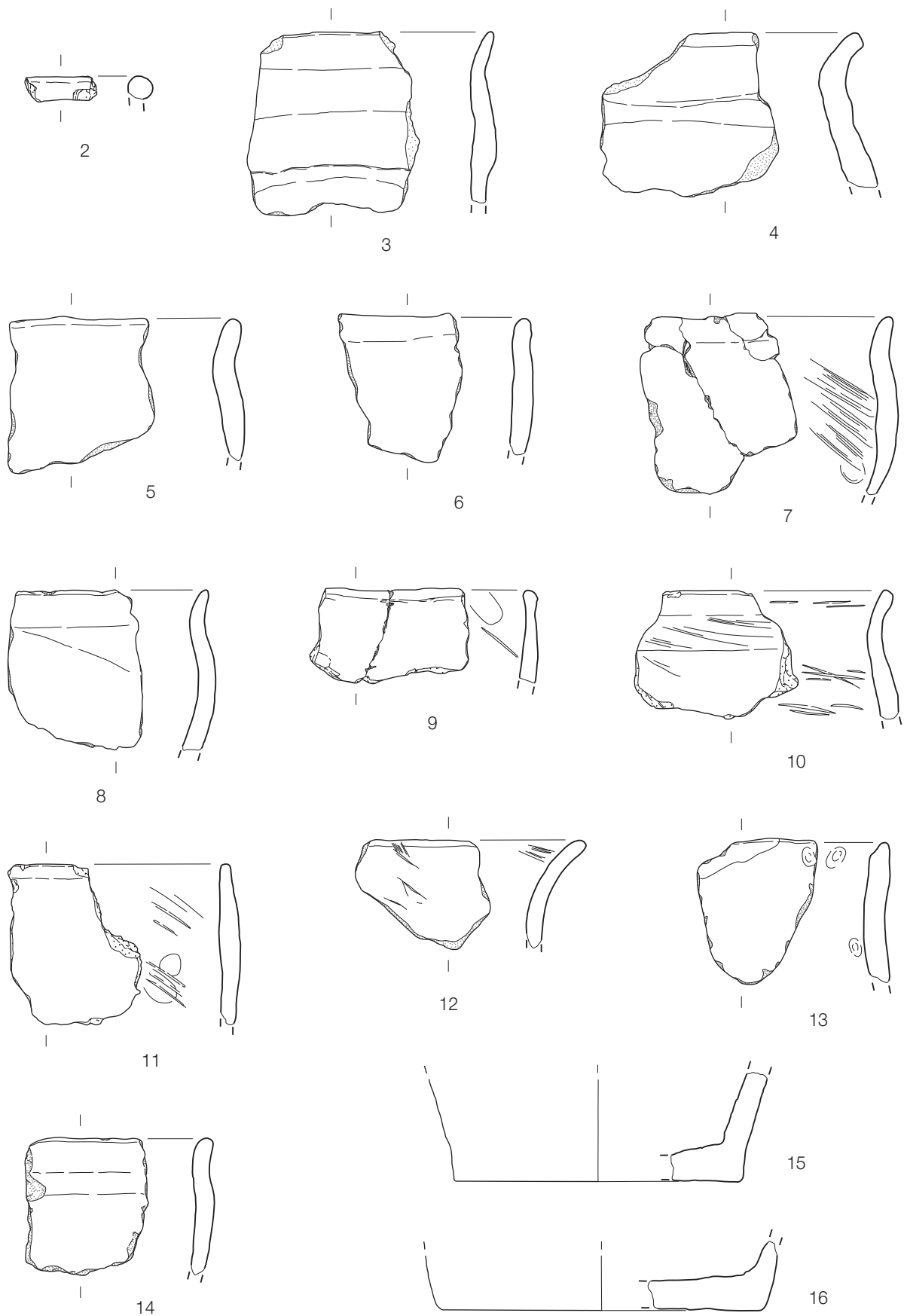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외면이 적갈색조를 기내면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저부와 동체부 접합부에는 축약흔이 확인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5.3cm, 厚 1.0cm

18.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0-18, 도판: 7-18)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외면이 적갈색조를 기내면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기형은 저부에서 살짝 벌어져서 올라간다. 축약흔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기면 박리가 심하여 알 수 없다.

現高 3.9cm, 厚 1.2cm



도면 19. 2호 주거지 출토유물(1)



19.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0-19, 도판: 7-19)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외면이 적갈색조를 기내면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축약흔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5cm, 厚 1.2cm

20.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0-20, 도판: 7-20)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점토채움 형식으로 제작하였고 굽상저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축약흔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3cm, 厚 1.0cm

21.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0-21, 도판: 8-21)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지두흔에 의한 축약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4.0cm, 厚 1.2cm

22.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0-22, 도판: 8-22)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편으로 파수의 형태는 반원형으로 성형하였고 잔존상태로 볼 때 종위파수로 추정된다. 파수는 따로 제작하여 성형시 동체부와 접합하였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 일부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함유되어 있으며 내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現長 3.5cm, 殘存幅 3.2cm, 把手長 3.2cm, 把手幅 1.1cm, 把手厚 0.7cm

23. 토제방추차(도면: 20-23, 도판: 8-23)

토제방추차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과 암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주관알모양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3.1cm, 厚 2.4cm, 透孔直徑 0.7cm

24. 토제방추차(도면: 20-24, 도판: 8-24)

토제방추차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을 보이고 있다. 단면형태는 주관알모양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3.7cm, 厚 2.6cm, 透孔直徑 0.7cm

25. 토제방추차(도면: 20-25, 도판: 8-25)

토제방추차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황갈색과 흑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3.0cm, 厚 1.6cm, 透孔直徑 0.6cm

26. 토제방추차(도면: 20-26, 도판: 8-26)

토제방추차로 1/3 가량 결실된 상태이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3.7cm, 厚 1.9cm, 透孔直徑 1.8cm

27. 토제방추차(도면: 20-27, 도판: 8-27)

토제방추차로 반파된 상태이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체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주판알모양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3.2cm, 厚 2.5cm, 殘存透孔直徑 0.7cm

28. 원판형토제품(도면: 20-28, 도판: 8-28)

원판형토제품으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토기편을 파쇄하여 제작하였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直徑 7.3cm, 厚 1.0cm

29. 원판형토제품(도면: 20-29, 도판: 8-29)

원판형토제품으로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상으로 제작하였으며 토기편을 파쇄하여 제작하였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과 황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直徑 4.9cm, 厚 1.1cm

30. 유리구슬(도면: 20-30, 도판: 8-30)

수정제 유리구슬로 반파되었다. 색조는 투명한 백색을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구슬 중앙에 투공부가 남아 있는데 반관통으로 제작하였다.

直徑 1.7cm, 厚 0.9cm, 殘存透孔直徑 0.2cm

31. 석촉(도면: 20-31, 도판: 8-31)

점판암제 마제석촉편으로 기저부 일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잔존상태로 볼 때 평기식의 삼각형편평촉으로 추정된다. 단면형태는 볼록렌즈형이며 인부는 날카롭게 마연하였다.

長 4.1cm, 幅 1.6cm, 厚 0.3cm

32. 석촉(도면: 20-32, 도판: 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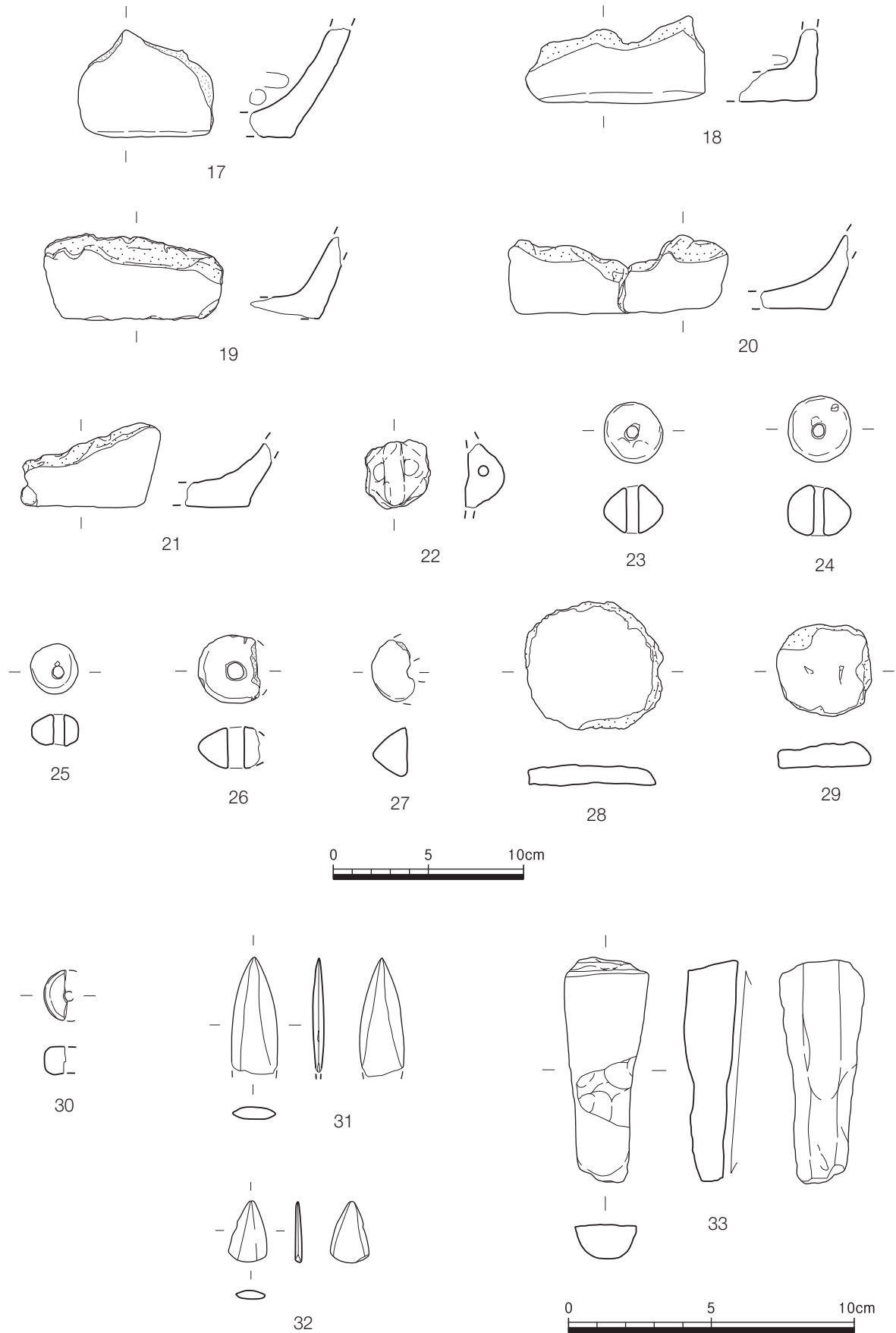
조면암제 마제석촉편으로 촉신부 하단이 결실된 상태이다. 단면형태는 볼록렌즈형이며 인부는 날카롭게 마연하였다. 기저부가 일부 마연된 점으로 볼 때 재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長 2.1cm, 幅 1.3cm, 厚 0.2cm

33. 지석(도면: 20-33, 도판: 8-33)

사암제 지석으로 형태는 전면과 단면 모두 마름모꼴로 일부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처리되었으며 상부와 측면부에 사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長 7.7cm, 幅 2.9cm, 厚 1.7cm



도면 20, 2호 주거지 출토유물(2)

34. 지석(도면: 21-34, 도판: 8-34)

사암제 지석으로 형태는 전면과 단면 모두 제형이며 후면은 장방형으로 일부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처리되었으며 사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長 5.1cm, 幅 4.2cm, 厚 3.2cm

35. 지석(도면: 21-35, 도판: 8-35)

사암제 지석으로 형태는 전면, 후면과 단면 모두 장방형이며 일부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처리되었으며 사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長 3.7cm, 幅 3.0cm, 厚 3.6cm

36. 고석(도면: 21-36, 도판: 9-36)

현무암제 고석으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처리되었으며 상단과 하단 타격면에 사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長 8.0cm, 幅 3.8cm, 厚 3.6cm

37. 고석(도면: 21-37, 도판: 9-37)

현무암제 고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결실되었다. 상단과 하단 타격면에 사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長 8.9cm, 幅 4.1cm, 厚 4.3cm

38. 연석(도면: 21-38, 도판: 9-38)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결실되었다. 상단과 하단 타격면에 사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長 34.2cm, 幅 26.4cm, 厚 7.0cm

39. 연석(도면: 22-39, 도판: 9-39)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원형상으로 추정되며 전면과 후면을 제외한 일부분이 결실되었다. 전면과 후면은 사용에 의한 평탄하게 처리된 마연면이 형성되어 있다.

長 16.2cm, 幅 11.5cm, 厚 6.7cm

40. 연석(도면: 22-40, 도판: 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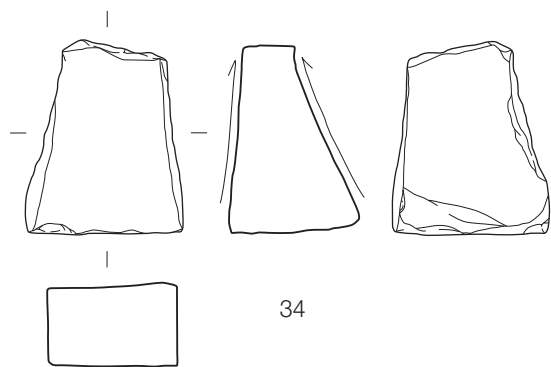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면을 제외한 대부분이 결실된 상태이다. 후면에 사용에 의해 평탄하게 처리된 마연면이 형성되어 있다.

長 12.4cm, 幅 8.2cm, 厚 4.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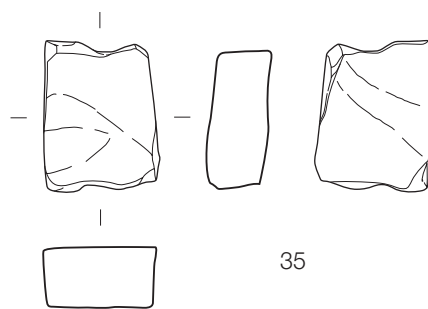
41. 연석(도면: 22-41, 도판: 10-41)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면을 제외한 대부분이 결실된 상태이다. 후면에 사용에 의해 평탄하게 처리된 마연면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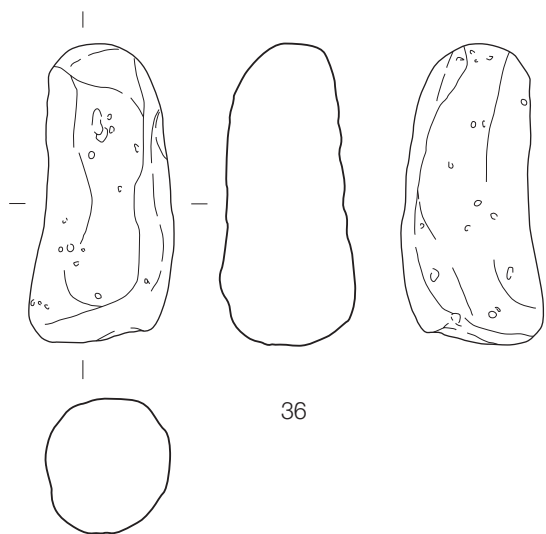
長 11.3cm, 幅 9.3cm, 厚 5.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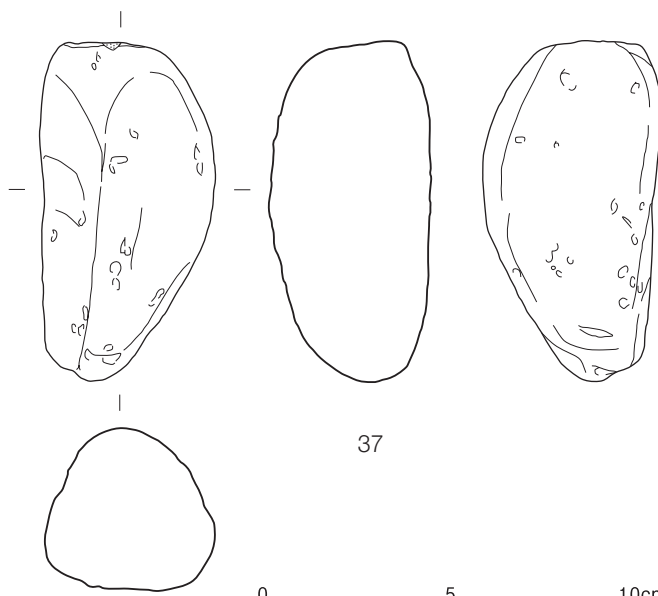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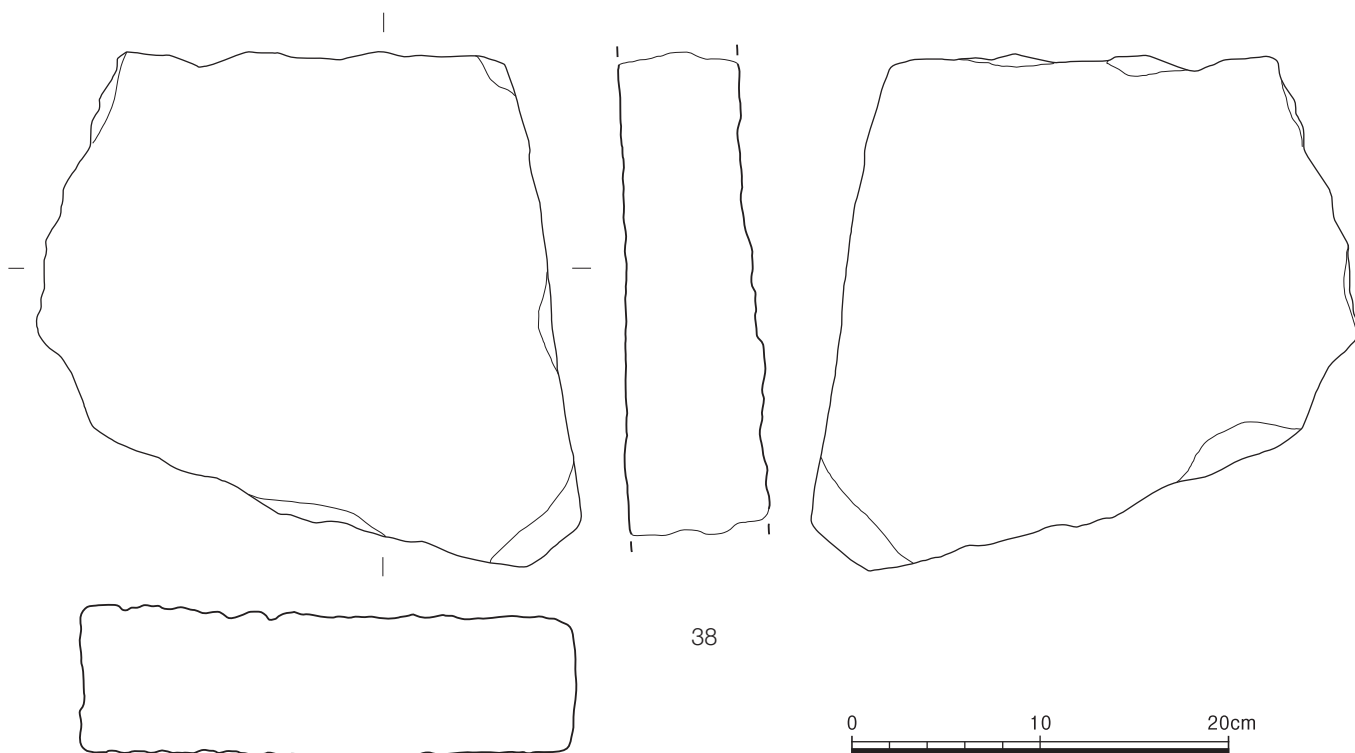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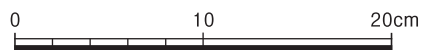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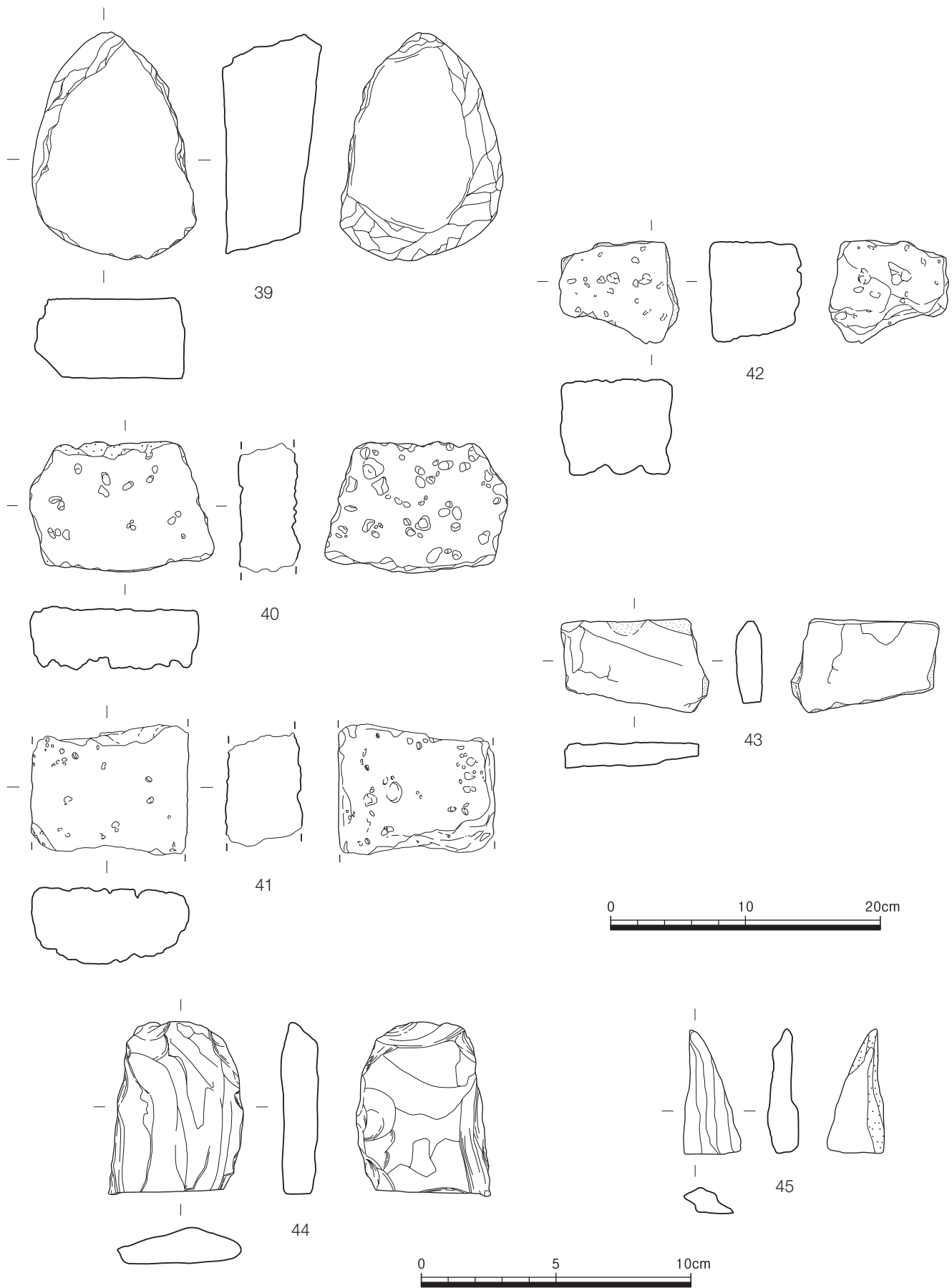
37



38



도면 21. 2호 주거지 출토유물(3)



도면 22. 2호 주거지 출토유물(4)

42. 연석(도면: 22-42, 도판: 10-42)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상으로 추정되며 후면을 제외한 대부분이 결실된 상태이다. 후면에 사용에 의해 평탄하게 처리된 마연면이 형성되어 있다.

長 8.2cm, 幅 7.3cm, 厚 6.8cm

43. 미완성석재(도면: 22-43, 도판: 10-43)

사암제 석재로 평면과 단면형태는 모두 제형에 가깝다. 뚜렷한 마연흔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 결실되어 있다. 잔존형태로 볼 때 지석 제작용 석재로 추정된다.

長 9.6cm, 幅 5.9cm, 厚 1.8cm

44. 미완성석재(도면: 22-44, 도판: 10-44)

유문암제 석재로 평면과 단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에 가깝다. 대부분 결실되어 있으며 뚜렷한 마연흔은 확인되지 않으나 형태와 재질로 보아 석기 제작용 석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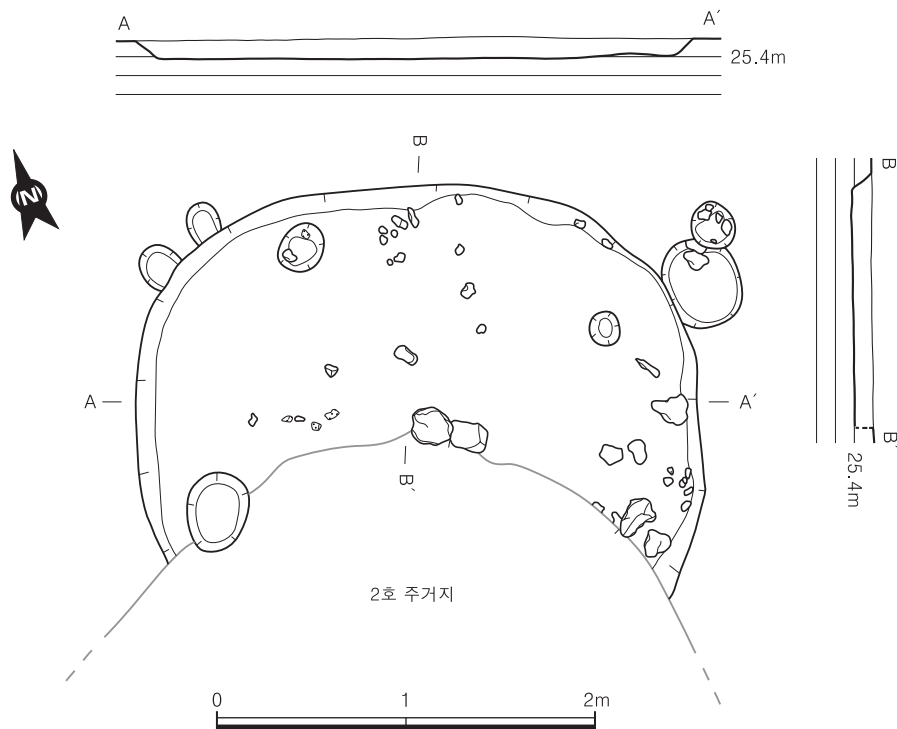
長 6.2cm, 幅 4.8cm, 厚 1.1cm

45. 미완성석재(도면: 22-45, 도판: 10-45)

유문암제 석재로 평면과 단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에 가깝다. 대부분 결실되어 있으며 뚜렷한 마연흔은 확인되지 않으나 형태와 재질로 보아 석기 제작용 석재로 추정된다.

長 4.6cm, 幅 2.0cm, 厚 0.9cm

3) 3호 주거지



도면 23. 3호 주거지 평단면도

가) 유구(도면: 23, 도판: 11)

주거지는 I 구역 5지점 북편 중앙부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남쪽으로는 2호 주거지가 후축되어 있으며 5호 수혈과 중복되어 있는데 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후축된 2호 주거지에 의해 상당부분 결실된 상태여서 정확한 형태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잔존상태로 볼 때 원형주거지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잔존상태로 볼 때 2호 주거지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를 보면 장축 300cm, 잔존 단축 130cm, 깊이 12cm 이다. 주거지의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점토층인 단일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량의 소토와 목탄, 잔자갈이 함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2호 주거지에 비해 색조가 다소 밝으며 사질 성분이 일부 함유되어 있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층을 이용하였으며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상면은 다소 불규칙적인 풍화암반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바닥 중앙부와 동편으로 직경 15~19cm의 주혈 2기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된다.

4) 4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24, 도판: 12~14)

4호 주거지는 II 구역 6지점 19호 수혈유구의 약 7m지점 서편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에 해당하며 내부 바닥 중앙부에 타원형수혈이 배치되어 있다. 유구의 북쪽으로는 현대 배수로에 의해 1/3가량이 결실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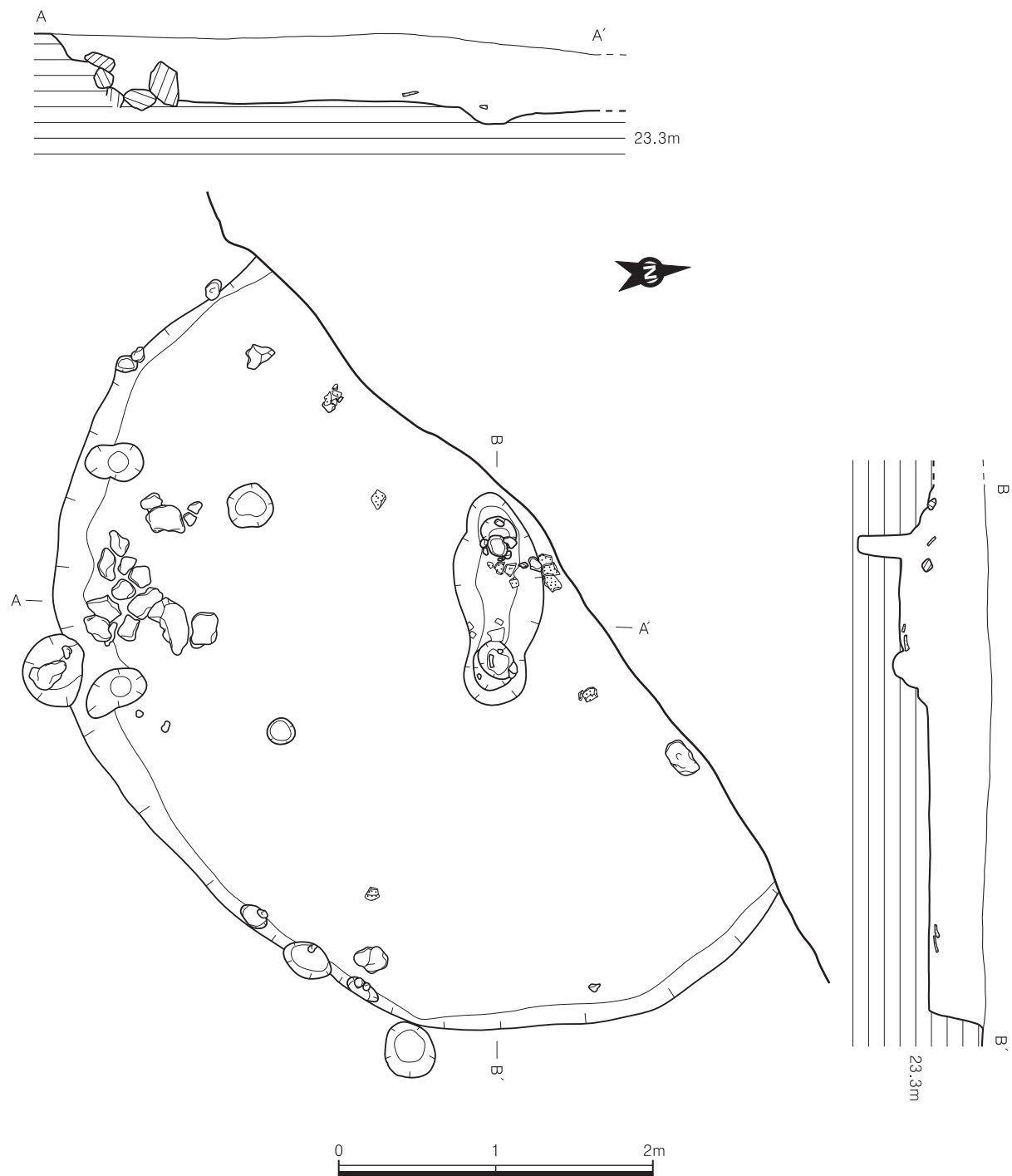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N84°W이며 잔존규모는 장축 376cm, 단축 370cm, 깊이 42cm 내외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점토층인 단일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량의 소토와 목탄, 잔자갈이 함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2호 주거지의 내부퇴적토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벽체는 풍화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직벽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또한 바닥 역시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주거지 주변에 배치된 주혈을 살펴보면 남쪽 벽체의 안쪽에 잇대어 직경 30~40cm 내외의 주혈 4기가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벽주혈은 대체로 직경 20cm내외, 깊이 20~55cm 정도이며 대략 150cm 내외의 등간격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주거지 벽체의 외곽으로도 보조기둥을 설치했던 주혈군이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거지 내부 중앙부에서 남쪽에 치우쳐 2개의 주혈이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의 중앙에서는 직경 10cm 미만의 자갈한 자연석과 할석이 집석된 상태이며 토기편과 석기가 혼재된 상태로 출토된다. 또한 남벽의 바닥면에서는 직경 15~20cm 내외의 현무암제 할석 여러매가 1단으로 평적된 상태로 확인된다. 현재 잔존상태 및 타원형구덩이의 장축방향과 비교해 볼 때 주거지의 출입과 관련된 시설로 판단된다.

주거지 내부의 중앙부에는 동서장축의 타원형수혈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 양단에는 주혈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타원형수혈의 단면은 'U' 자형이며 상부에서 바닥으로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내부퇴적토는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함유된 흑갈색점토층으로 단일층이다. 타원형수혈의 규모는 장축 146cm, 단축 54cm, 깊이 11cm 이다. 양단에 배치된 주혈을 살펴보면 동쪽주혈 26(직경)×14(깊이)cm, 서쪽주혈 24(직경)×39(깊이)cm 이다. 또한 주주간의 거리는 대략 51cm 정도에 해당한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퇴적토에서는 대체로 적갈색경질토기 잔편이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상면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적갈색경질토기편이 다수이며 이외에도 고석, 연석, 지석, 석축, 미완성석기,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24. 4호 주거지 평단면도

나) 출토유물

46. 직립구연토기(도면: 25-46, 도판: 14-㉔-46)

직립구연토기로 구연단에서 다소 내만하는 기형이며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전반적으로 흑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상으로 둥글게 성형하였다. 내면에는 지두흔에 의한 성형 후 사방향으로 지두반흔 수법이 확인된다.

現高 5.9cm, 厚 0.6cm

47. 직립구연토기(도면: 25-47, 도판: 14-㉔-47)

직립구연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과 사립이 혼재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내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갈색조와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지두반흔에 의한 성형수법이 확인된다.

現高 14.3cm, 厚 0.7cm

48. 직립구연토기(도면: 25-48, 도판: 14-㉔-48)

직립구연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은 다소 내만하는 기형이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외면 색조는 흑갈색이고 내면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4.7cm, 厚 0.6cm

49. 직립구연토기(도면: 25-49, 도판: 14-㉔-49)

직립구연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기외면 색조는 암갈색과 흑색이 혼재되어 있고 내면에는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기내면에는 지두반흔이 확인된다.

現高 6.0cm, 厚 0.6cm

50. 직립구연토기(도면: 25-50, 도판: 15-50)

직립구연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이 내만하는 기형이다.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며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기외면 색조는 암갈색이고 내면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부와 동체부는 접합성형하였다. 구연단은 방형에 가깝게 불규칙적으로 성형하였다. 기내면에는 지두반흔에 의한 성형수법이 확인되는데 먼저 종방향으로 성형 후 다시 횡방향으로 정면처리하였다. 따라서 토기 기형조정 과정에서 지두반흔에 의한 제작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現高 6.2cm, 厚 0.7cm

51. 직립구연토기(도면: 25-51, 도판: 15-51)

직립구연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은 다소 내만하는 기형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명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에 가깝게 불규칙적으로 처리하였다. 기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지두반흔 성형수법이 확인된다.

現高 6.5cm, 厚 0.9cm

52. 직립구연토기(도면: 25-52, 도판: 15-52)

직립구연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순부에서 약간 내만하는 기형이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외면이 대부분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으나 내면에 일부 흑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기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지두반흔 성형수법이 일부 확인된다.

現高 11.7cm, 厚 0.6~0.9cm

53. 원형점토대토기(도면: 25-53, 도판: 15-53)

원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으로 단면형태는 원형에 해당한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으로 볼 때 재지산 대토임을 알 수 있다. 내외면 색조는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現長 6.2cm, 厚 1.5cm

54. 흑색마연토기(도면: 25-54, 도판: 15-54)

흑색마연토기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태토에는 사립이 혼입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지산 태토로 추정된다. 외면색조는 황갈색조이고 내면은 암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기면 박리가 매우 심하여 정면수법 관찰이 어렵다.

現高 6.3cm, 厚 0.4~0.6cm

55.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5-55, 도판: 15-55)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 일부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동최대경은 동체 중위에 위치한다. 동체 상위에는 파수가 형성되어 있다. 파수의 형태는 반원형의 횡위파수이며 투공직경은 대략 1.1cm 정도이다. 파수는 기벽에 점토를 덧대어 동시 성형하였다. 구연단은 외반된 형태의 불규칙적으로 제작하였다.

現高 11.0cm, 口徑 18.1cm, 把手長 5.3cm, 把手幅 3.7cm, 把手厚 1.7cm, 厚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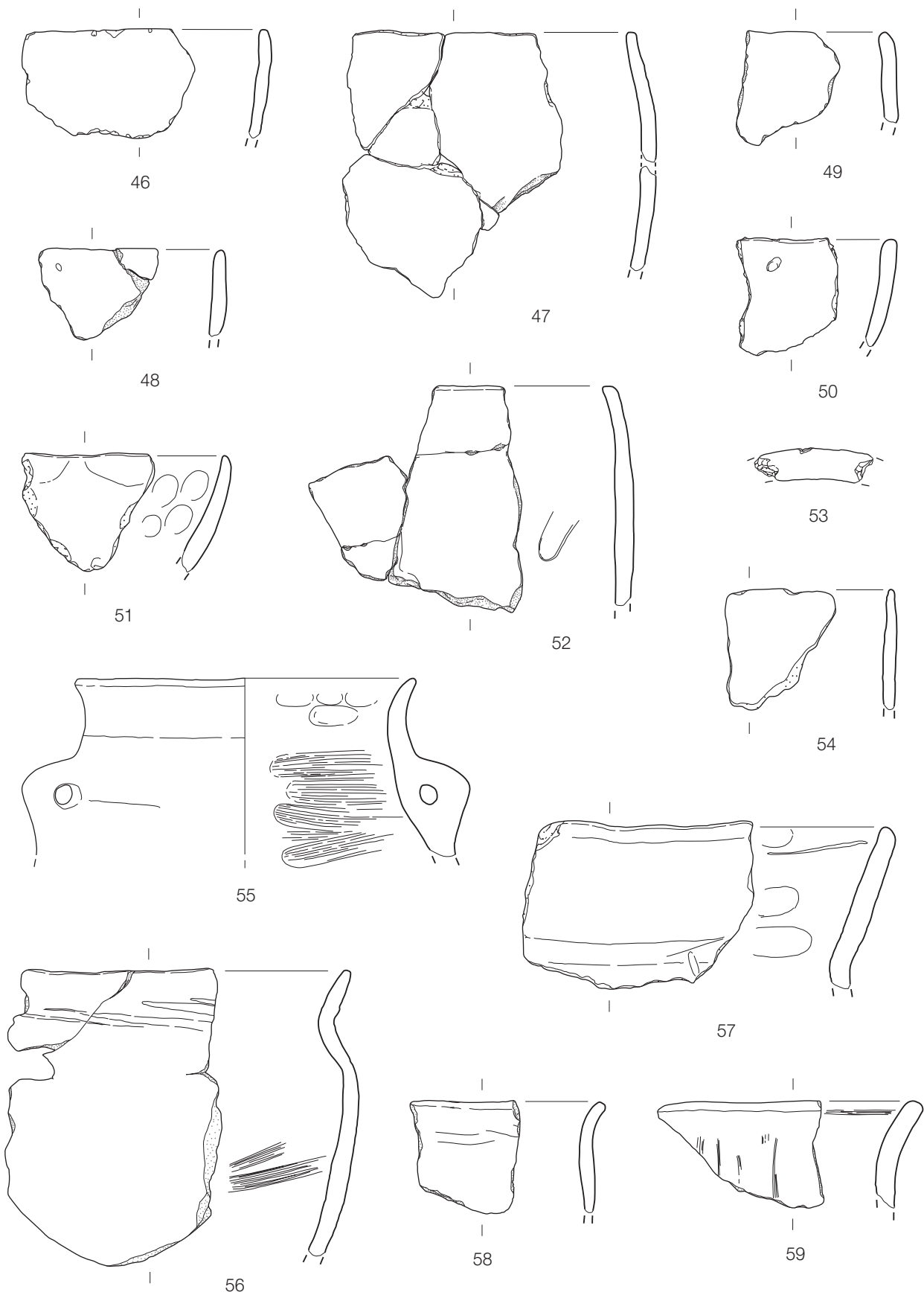
56.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5-56, 도판: 15-56)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 일부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으나 외면의 동체 하위에는 적갈색이 혼재되어 있고 동체 최상위와 구연단에 흑반이 형성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기외면 구연단 하부에는 폭 1.4cm 내외의 판상구에 의한 반복적인 압흔으로 외반처리하였다. 반면 기내면 구연단에는 지두반흔에 의한 성형수법이 확인된다. 또한 동체 상위 이하에는 무질서하게 지두반흔에 의한 기형조정 후 빗질처리하여 매끄럽게 마무리하였다. 동최대경은 동체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내외면에는 지두흔과 함께 종방향으로 빗질흔이 확인된다.

現高 16.1cm, 胴最大徑 cm, 厚 0.9~1.0cm

57.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5-57, 도판: 15-57)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잔존상태로 볼 때 대형토기편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부가 다른 토기에 비해 길고 동체 상위와의 연결부위는 폭 1.5cm 내외인 봉상의 도구



도면 25. 4호 주거지 출토유물(1)

로 눌러 제작하였다. 성형방법을 살펴보면 점토테쌓기 수법으로 제작되었다. 동최대경은 직립으로 구연단과 연결되어 있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8.7cm, 厚 1.2cm

58.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5-58, 도판: 15-58)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기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갈색조이고 내면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되어 있다. 기외면 구연단 하부는 횡방향으로 지두반흔에 의한 축약흔이 확인되면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지두반흔 성형수법을 사용하였다.

現高 5.9cm, 厚 0.7cm

59.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5-59, 도판: 15-59)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빗질흔이 확인되며 내면은 횡방향으로 빗질흔이 확인된다.

現高 5.8cm, 厚 1.1cm

60.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60, 도판: 15-60)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4.8cm, 厚 0.5cm

61.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61, 도판: 15-61)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나 잔존상태로 볼 때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기외면에는 지두흔에 의한 축약이 확인되며 내면은 박리가 심해 정면수법을 알 수 없다.

現高 8.0cm, 厚 1.0~1.2cm

62.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62, 도판: 15-62)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황갈색과 흑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나 잔존상태로 볼 때 방형상으로 성형하였다. 기외면의 구연단 하부에는 횡방향으로 폭 1.5cm 내외의 봉상구에 의한 축약흔이 확인된다. 반면 기내면에는 지두반흔 성형수법이 확인된다.

現高 7.1cm, 厚 0.8~1.1cm

63.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63, 도판: 15-63)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외면의 색

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과 황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의 불규칙적으로 처리하였다.

現高 8.6cm, 厚 0.6~0.8cm

64.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64, 도판: 15-64)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으나 외면에 일부 적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기면 박리가 심하여 정면수법을 알 수 없다.

現高 8.0cm, 厚 0.7cm

65.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65, 도판: 15-65)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황갈색조와 흑색조를 띠고 있으나 외면에 일부 적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 구연부 하단에는 종방향으로 지두반흔에 의한 외반구연 성형 후 물손질로 마무리하면서 성형수법이 일부 지워졌다. 내면 동체 중앙부에는 흑반이 형성되어 있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13.5cm, 厚 0.7cm

66.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66, 도판: 15-66)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내면에는 지두반흔 성형 후 물손질로 마무리하면서 성형수법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現高 7.2cm, 厚 0.7cm

67.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67, 도판: 16-67)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부는 직립구연에 가깝다.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지두반흔이 확인된다.

現高 7.2cm, 厚 0.7~1.1cm

68.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68, 도판: 1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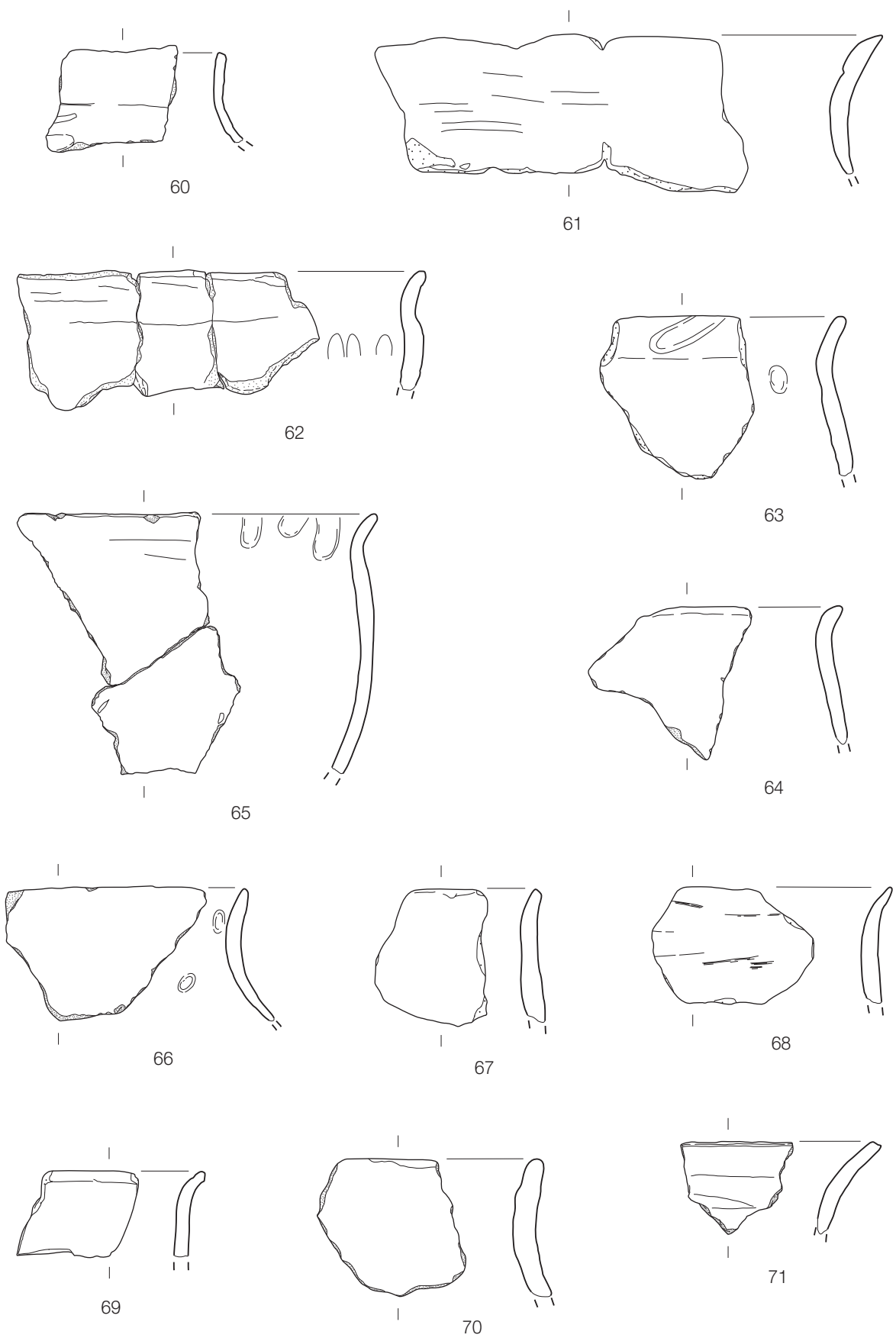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내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외면이 암갈색조이고 내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내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6.0cm, 厚 0.6~1.0cm

69.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69, 도판: 16-69)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는데 외지산 태토로 추정된다. 내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기면 박리가 심하여 정면수법 관찰이 어렵다.

現高 4.5cm, 厚 0.6cm



도면 26. 4호 주거지 출토유물(2)

70.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70, 도판: 16-70)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기외면 색조는 적갈색이고 내면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빗질흔이 확인된다.

現高 7.1cm, 厚 1.2cm

71.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6-71, 도판: 16-71)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외면 색조는 흑갈색조이고 내면은 흑갈색과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내외면에는 횡방향으로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5.4cm, 厚 0.8cm

72.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72, 도판: 16-72)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는데 외지산 태토로 추정된다. 기외면 색조는 흑갈색조이고 내면은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판상구를 활용하여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기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지두반흔 성형수법이 일부 확인되나 기면 박리가 심하여 뚜렷하지 않다.

現高 7.1cm, 厚 0.6~0.8cm

73.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73, 도판: 16-73)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외면 색조는 황갈색과 암갈색이 혼재되어 있고 내면은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5.5cm, 厚 0.6~0.8cm

74.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74, 도판: 16-74)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외면에 일부 박리되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흑갈색조를 띠고 있으나 내면에 일부 황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에 가깝게 불규칙적으로 처리하였다. 기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지두반흔 성형수법이 확인되면 외면에는 사방향으로 폭 0.6cm 정도의 봉상구에 의한 구연부 축약흔이 확인된다.

現高 6.6cm, 厚 0.8cm

75.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75, 도판: 16-75)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구연단에서 약간 외반된 후 다시 구순부에서 내만하는 기형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기외면 색조는 흑갈색조이고 내면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기외면의 외반된 부분에는 폭 1cm 가량의 봉상구에 의한 축약흔이 확인된다. 반면 내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4.3cm, 厚 0.7~1.3cm

76.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76, 도판: 16-76)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잔존상태로 볼 때 대형토기편으로 추정된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 일부가 박리되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암갈색과 황갈색조가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9.7cm, 厚 0.8~1.0cm

77.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77, 도판: 16-77)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굴곡이 형성된 불규칙적으로 처리하였다. 기내면에는 지두반흔 성형수법이 확인된다.

現高 9.6cm, 厚 1.1cm

78.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78, 도판: 16-78)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지두반흔 성형수법이 일부 확인된다.

現高 5.2cm, 厚 1.0cm

79.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79, 도판: 16-79)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외면은 전반적으로 흑갈색조이나 일부 적갈색이 혼재되어 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외반부분에는 0.8cm 가량의 봉상구에 의한 축약흔이 확인된다. 반면 기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지두반흔 성형수법이 관찰된다.

現高 7.3cm, 厚 0.8cm

80.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80, 도판: 16-80)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하고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비교적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횡방향으로 찰과흔이 확인된다.

現高 6.9cm, 厚 0.8cm

81.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81, 도판: 16-81)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외면 색조는 흑갈색이고 내면에는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반부분은 폭 1cm내외의 봉상구에 의한 축약흔이 확인된다. 또한 기내외면에는 횡방향으로 지두흔이 관찰된다.

現高 8.0cm, 厚 1.0cm

82.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82, 도판: 16-82)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한 편이다. 잔존상태로 볼 때 대형토기편으로 추정

된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으나 외면에 일부 흑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기외면 구연부 하단에는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 후 종방향으로 빗질 마무리흔이 확인된다.

現高 8.5cm, 厚 0.8~1.1cm

83.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83, 도판: 16-83)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6.2cm, 厚 0.9~1.3cm

84.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84, 도판: 17-84)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흑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성형하였다. 기내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되며 외면 구연부 하단에는 폭 1cm 내외의 간격으로 횡방향 축약흔이 확인된다.

現高 4.8cm, 厚 0.9cm

85.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85, 도판: 17-85)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에 해당하는데 잔존상태로 볼 때 흑색마연토기로 추정된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대부분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대체로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지산 태토로 여겨진다. 기외면 색조는 황갈색과 암갈색조가 혼재되어 있으며 내면은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 하였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8.3cm, 厚 0.6cm

86.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7-86, 도판: 17-86)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일부 박리 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외면이 전반적으로 흑색조이며 내면은 황색과 흑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에 가깝게 불규칙적으로 성형하였다. 외반부는 폭 1cm 내외의 봉상구에 의한 축약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반면 기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4.8cm, 厚 0.6~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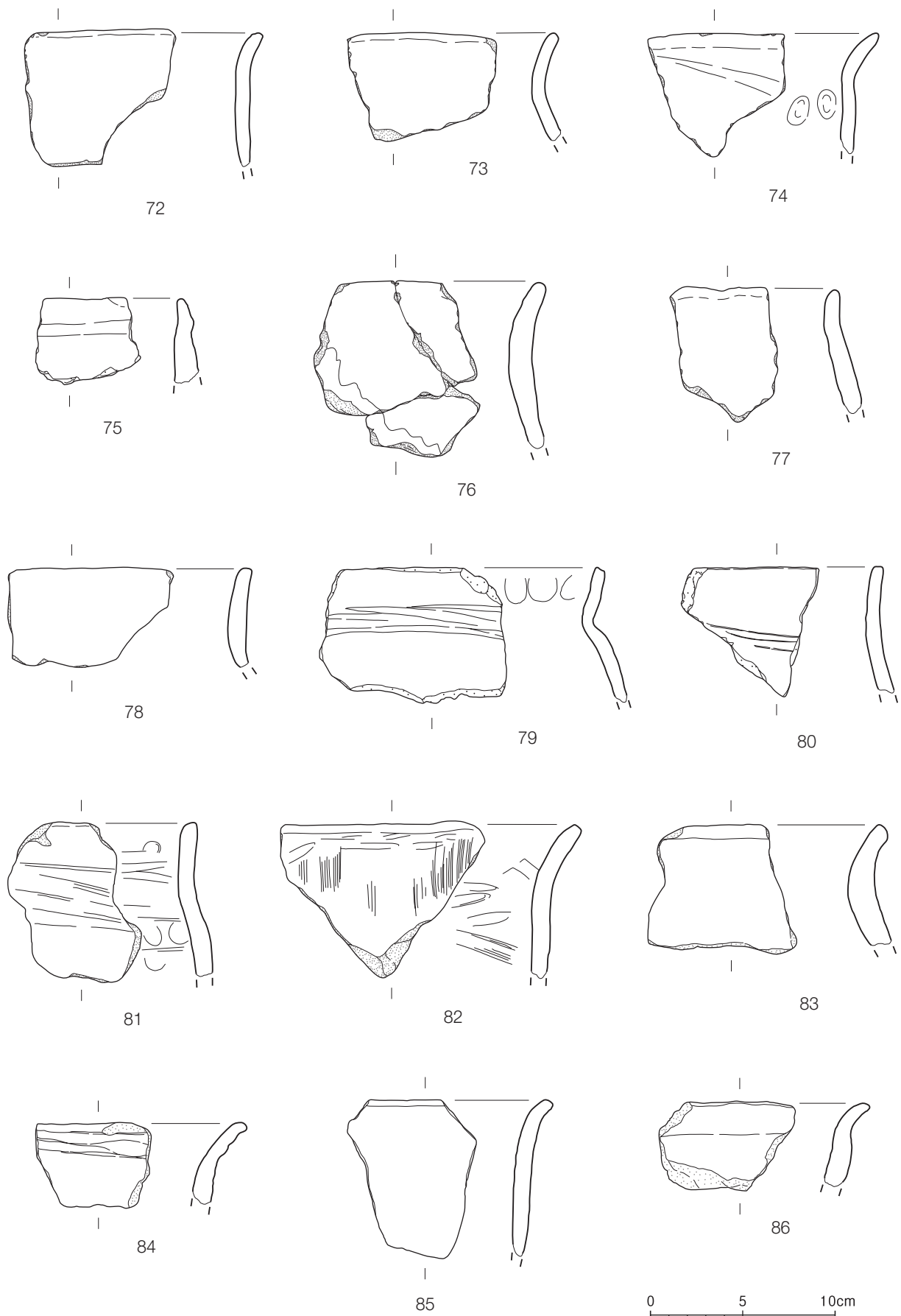
87.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87, 도판: 17-87)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점토채움 방식으로 성형하였고 접합부에는 축약흔이 관찰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0cm, 底徑 13.6cm, 厚 1.3cm

88.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88, 도판: 17-88)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있으며 색조는 기내면이



도면 27. 4호 주거지 출토유물(3)

황갈색조를 기외면은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일부 굽상저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정면수법은 기내면에 횡방향으로 빗질흔과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5.5cm, 推定底徑 13.8cm, 厚 1.2cm

89.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89, 도판: 17-89)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에는 축약흔이 관찰된다. 정면수법을 살펴보면 기저부 내면에는 점토채움 성형 후 강한 빗질정면으로 마무리하였다.

現高 4.4cm, 底徑 13.2cm, 厚 1.1cm

90.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90, 도판: 17-90)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굽상저부의 형태이며 점토채움 방식으로 성형하였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6.3cm, 厚 1.0cm

91.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91, 도판: 17-91)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외면이 황갈색조를 기내면은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축약흔이 확인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0cm, 厚 1.8cm

92.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92, 도판: 17-92)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외지산태토로 추정된다.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에는 축약흔이 관찰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2cm, 厚 0.9cm

93.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93, 도판: 17-93)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에는 축약흔이 관찰된다. 정면수법을 살펴보면 기내면에서 횡방향으로 빗질흔과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5cm, 厚 1.1cm

94.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94, 도판: 17-94)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굽상저부의 형태이며 점토채움 방식으로 성형하였다. 접합부의 축약흔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8cm, 厚 1.2cm

95.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95, 도판: 17-95)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외면이 암갈색조를 기내면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의 축약흔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4.3cm, 厚 0.9cm

96.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96, 도판: 17-96)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외면이 적갈색조를 내면은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의 축약흔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4cm, 厚 1.1cm

97.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97, 도판: 17-97)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굵은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에는 축약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4cm, 厚 1.0cm

98.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98, 도판: 17-98)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의 축약흔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3.5cm, 厚 0.8cm

99.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99, 도판: 18-99)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편으로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다. 파수는 따로 제작 후 동체부와 접합하였다. 소성상태는 불량하고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명갈색조를 띠고 있으나 외면에 일부 암갈색조가 혼재되어 있다. 파수는 1cm 폭으로 양단 투공되어 있다.

現長 5.5cm, 殘存幅 4.5cm, 把手長 4.5cm, 把手幅 3.7cm, 把手厚 1.2cm

100.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100, 도판: 18-100)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편으로 반원형태의 종위파수이다. 파수는 따로 제작 후 동체부와 접합하였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파수는 1cm 폭으로 양단 투공되어 있다.

現長 4.3cm, 殘存幅 7.0cm, 把手長 3.4cm, 把手幅 1.2cm, 把手厚 1.3cm

101.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101, 도판: 18-101)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편으로 반원상의 파수이다. 파수는 따로 제작 후 동체부와 접합하였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고 기면이 심하게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

갈색조를 띠고 있다. 파수는 1cm 폭으로 양단 투공되어 있다.

現長 5.0cm, 殘存幅 3.4cm, 把手長 4.0cm, 把手幅 1.7cm, 把手厚 1.3cm

102.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102, 도판: 18-102)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편으로 파수의 형태는 반원형이며 잔존상태로 볼 때 종위파수로 추정된다. 파수는 따로 제작하여 성형시 동체부와 접합하였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과 황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파수는 1cm 폭으로 양단 투공되어 있다.

現長 5.7cm, 殘存幅 3.9cm, 把手長 3.5cm, 把手幅 1.7cm, 把手厚 1.3cm

103.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103, 도판: 18-103)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편으로 파수의 형태는 반원형이며 종위파수이다. 파수를 따로 제작하여 성형시 동체부와 접합하였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구연부는 직립구연이며 구연단은 굴곡이 형성된 불규칙적으로 성형하였다. 내외면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파수는 1cm 폭으로 양단 투공되어 있다.

現長 4.2cm, 殘存幅 5.0cm, 把手長 2.1cm, 把手幅 1.5cm, 把手厚 1.0cm

104. 적갈색경질토기(도면: 28-104, 도판: 18-104)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며 기면이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으로 미루어 외지산 태토로 추정된다. 내외면 색조는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파수 형태는 잔존상태로 볼 때 우각형으로 추정되며 말단부는 일부 결실되어 있다. 파수는 별도 제작하여 동체부와 접합하였다.

殘存長 6.5cm, 把手幅 2.3cm, 把手厚 1.7cm

105. 토제방추차(도면: 29-105, 도판: 18-105)

토제방추차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적갈색과 황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원판형상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5.8cm, 厚 1.4cm, 透孔直徑 1.8cm

106. 토제방추차(도면: 29-106, 도판: 18-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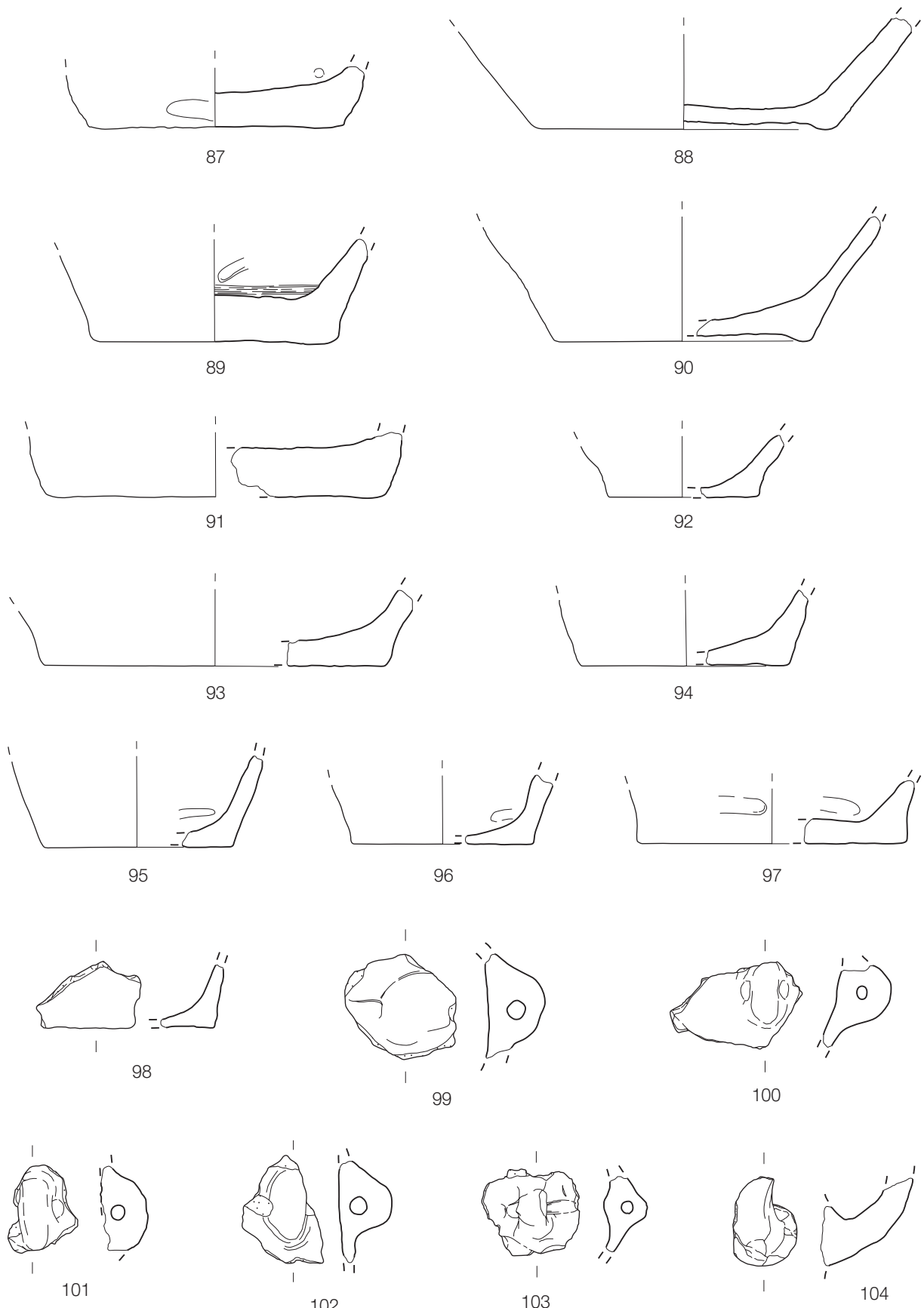
토제방추차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심하게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황갈색을 보이고 있다. 단면형태는 주판알모양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3.6cm, 厚 1.7cm, 透孔直徑 0.7cm

107. 토제방추차(도면: 29-107, 도판: 18-107)

토제방추차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을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주판알모양이며 외면 투공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直徑 2.9cm, 厚 2.3cm, 透孔直徑 0.7cm



도면 28. 4호 주거지 출토유물(4)

108. 토제방추차(도면: 29-108, 도판: 18-108)

토제방추차로 반파된 상태이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주판알모양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4.0cm, 厚 2.4cm, 殘存透孔直徑 0.8cm

109. 토제방추차(도면: 29-109, 도판: 18-109)

토제방추차로 반파된 상태이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심하게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주판알모양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4.2cm, 厚 2.1cm, 透孔直徑 1.0cm

110. 토제방추차(도면: 29-110, 도판: 18-110)

토제방추차로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주판알모양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3.3cm, 厚 2.3cm, 透孔直徑 0.6cm

111. 타제석기(도면: 29-111, 도판: 18-111)

점판암제 타제석기로 평면과 단면형태는 모두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측면으로는 타격면이 확인되는데 다용도 석기로 추정된다.

長 13.2cm, 幅 10.3cm, 厚 1.3cm

112. 고석(도면: 29-112, 도판: 18-112)

조면암제 고석으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결실되었다. 상단과 하단 타격면에 사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長 10.5cm, 幅 8.3cm, 厚 5.8cm

113. 고석(도면: 29-113, 도판: 19-①-113)

현무암제 고석으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결실되었다. 상단과 하단 타격면에 사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長 12.0cm, 幅 7.6cm, 厚 6.0cm

114. 박편(도면: 29-114, 도판: 19-①-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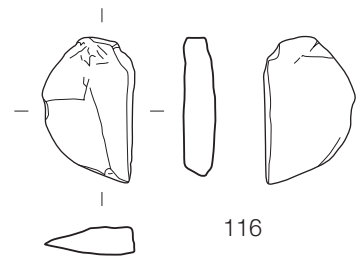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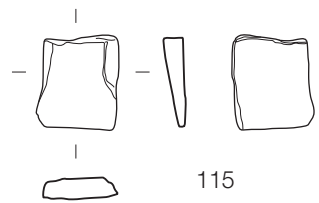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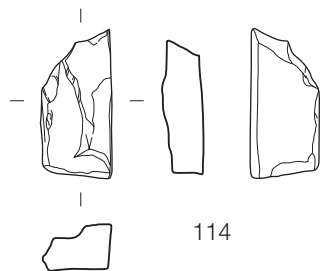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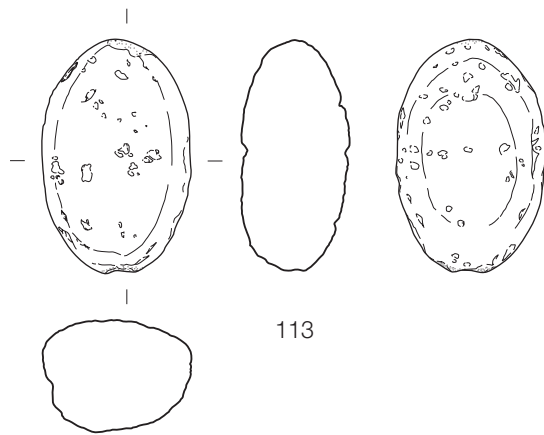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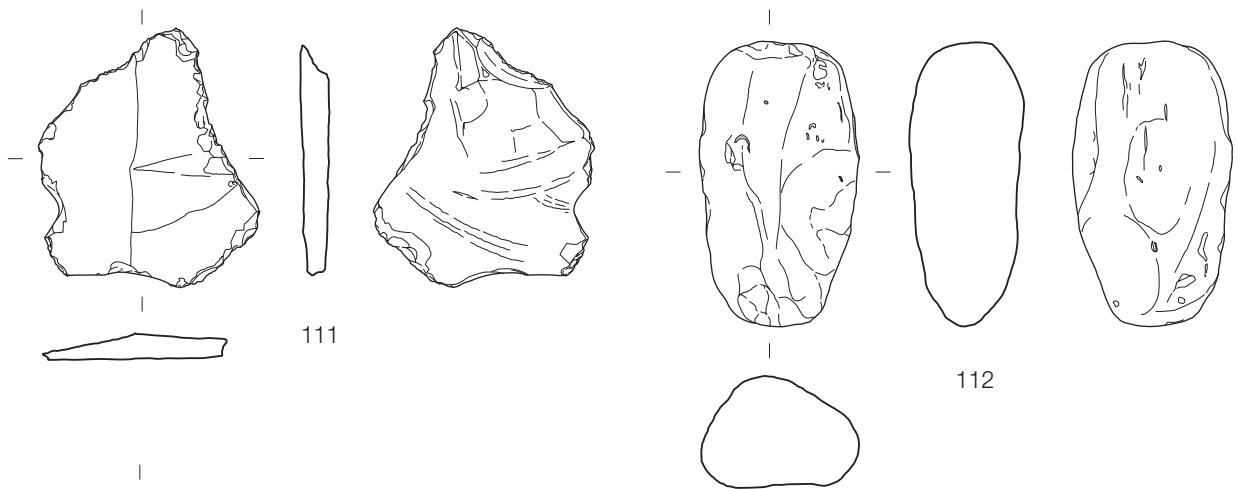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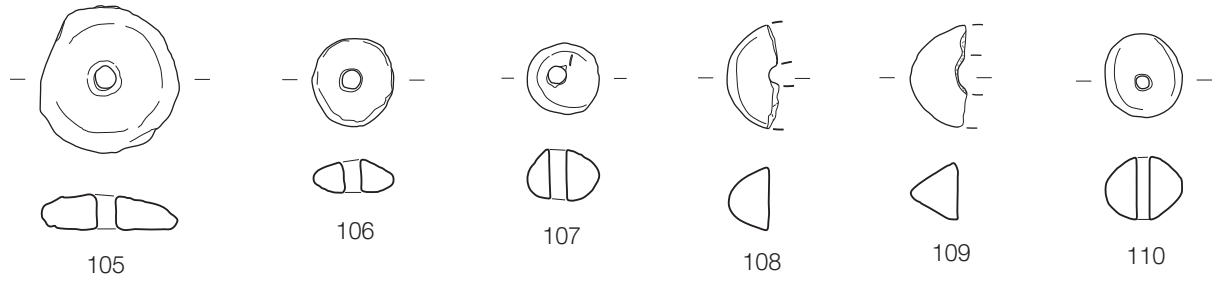
안산암제 박편으로 평면과 단면형태는 모두 제형에 가깝다. 일부 타격에 의해 결실되었고 대부분은 매끄럽게 마연되었다.

長 3.3cm, 幅 1.8cm, 厚 1.2cm

115. 박편(도면: 29-115, 도판: 19-①-115)

안산암제 박편으로 평면과 단면형태는 모두 방형에 가깝다. 일부 타격에 의해 결실되었고 대부분은 매끄럽게 마연되었다.

長 2.3cm, 幅 1.9cm, 厚 0.4cm



도면 29. 4호 주거지 출토유물(5)

116. 박편(도면: 29-116, 도판: 19-①-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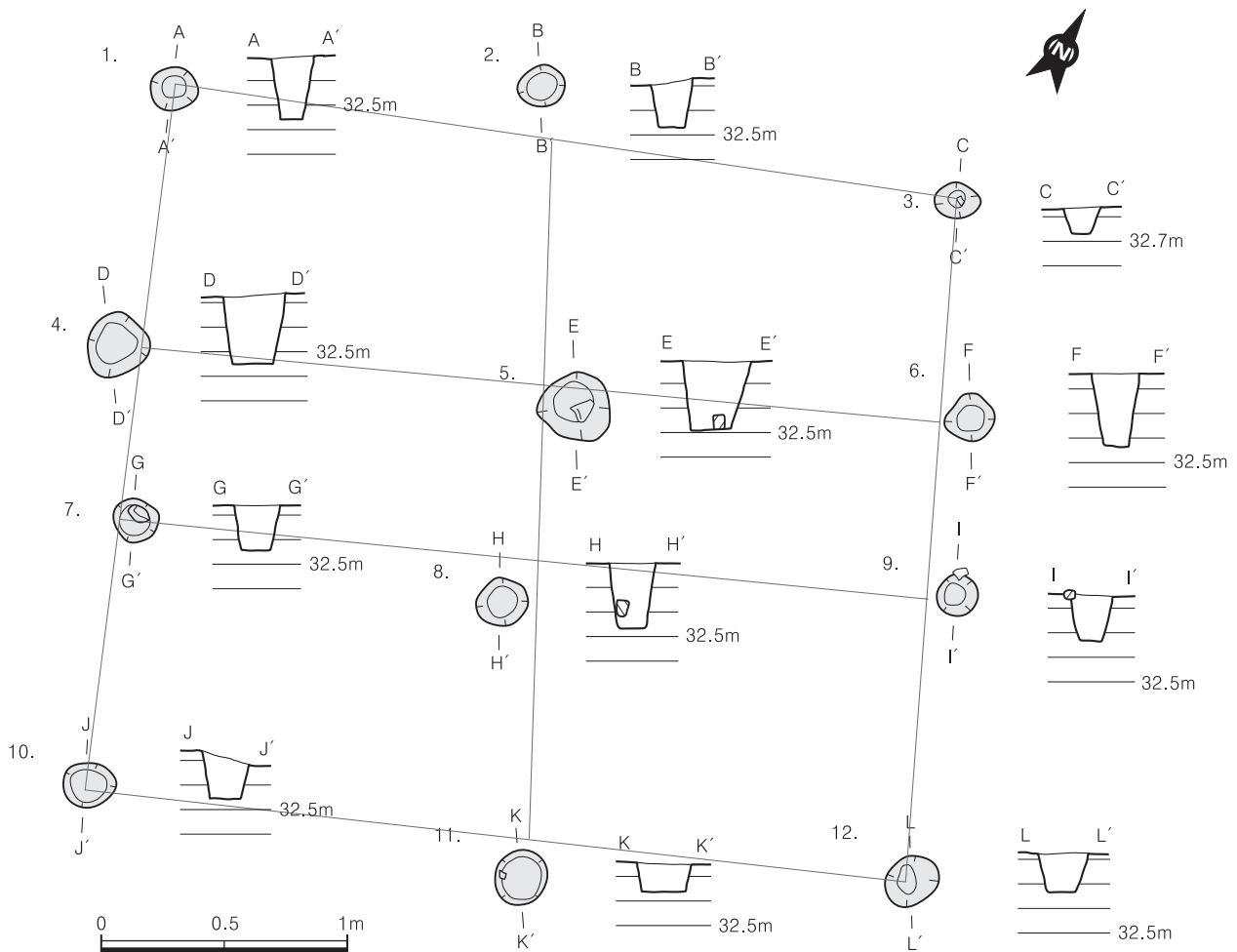
안산암제 박편으로 평면과 단면형태는 모두 원형에 가깝다. 일부 타격에 의해 결실되었고 대부분은 매끄럽게 마연되었다.

長 3.5cm, 幅 2.3cm, 厚 0.7cm

나. 굴립주건물지

가) 유구(도면: 30, 도판: 19-②)

굴립주건물지는 II 구역 10지점 중앙부에 위치한다. 굴립주는 3×2칸으로 규모는 장축 330cm, 단축 190cm 이다. 장축방향은 N26°W이다. 각각의 주혈은 일직선상에서 다소 벗어나 축조된 점으로 볼 때 취락 전체의 공동시설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내부퇴적토는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함유된 흑갈색사질점층으로 단일층이다. 주주간 간격은 대체로 1~2m 정도이다. 굴립주 개별 주혈 직경은 대략 20~30cm에 해당하며 깊이는 20~28cm 정도이다. 따라서 주혈의 직경으로 미루어 보면 목주혈의 기둥두께는 대략 20cm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30. 굴립주건물지 평단면도

다. 수혈유구

1) 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1, 도판: 20-①)

I 구역 1지점 중앙부에 위치한다. 후축된 조선시대 수혈과 중복 축조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120cm, 단축 56~73cm, 깊이 9cm 이다. 장축방향은 N84°E이다. 유구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사질성분이 다량 함유된 회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굴착하였으며 바닥 역시 생토층을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나) 출토유물

117. 적갈색경질토기(도면: 31-117, 도판: 20-②-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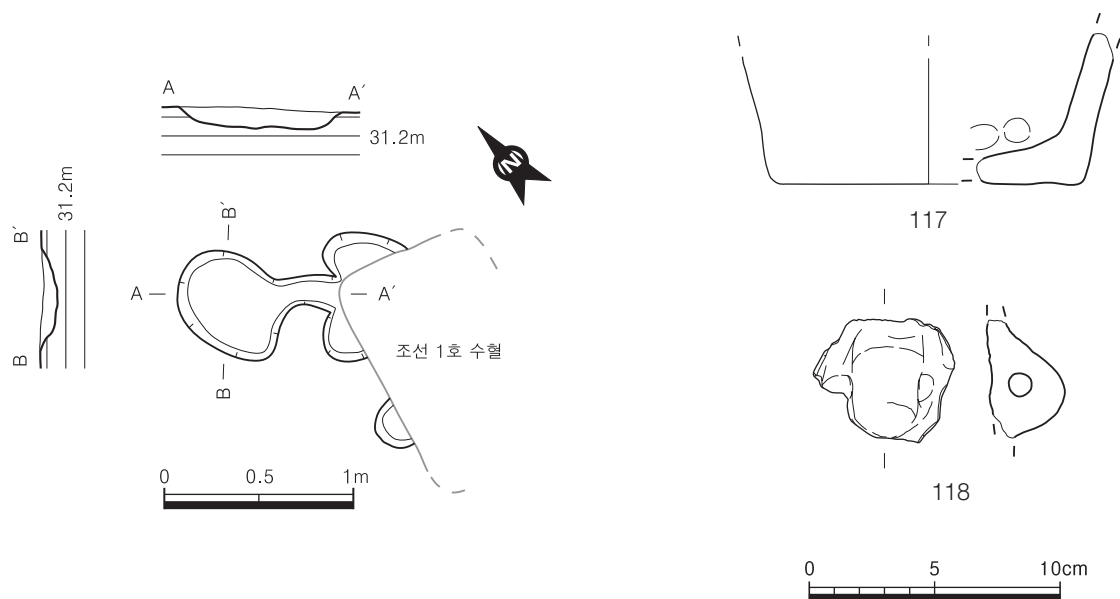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기외면은 박리된 상태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굽상저부 형태이며 접합부의 축약흔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5.5cm, 厚 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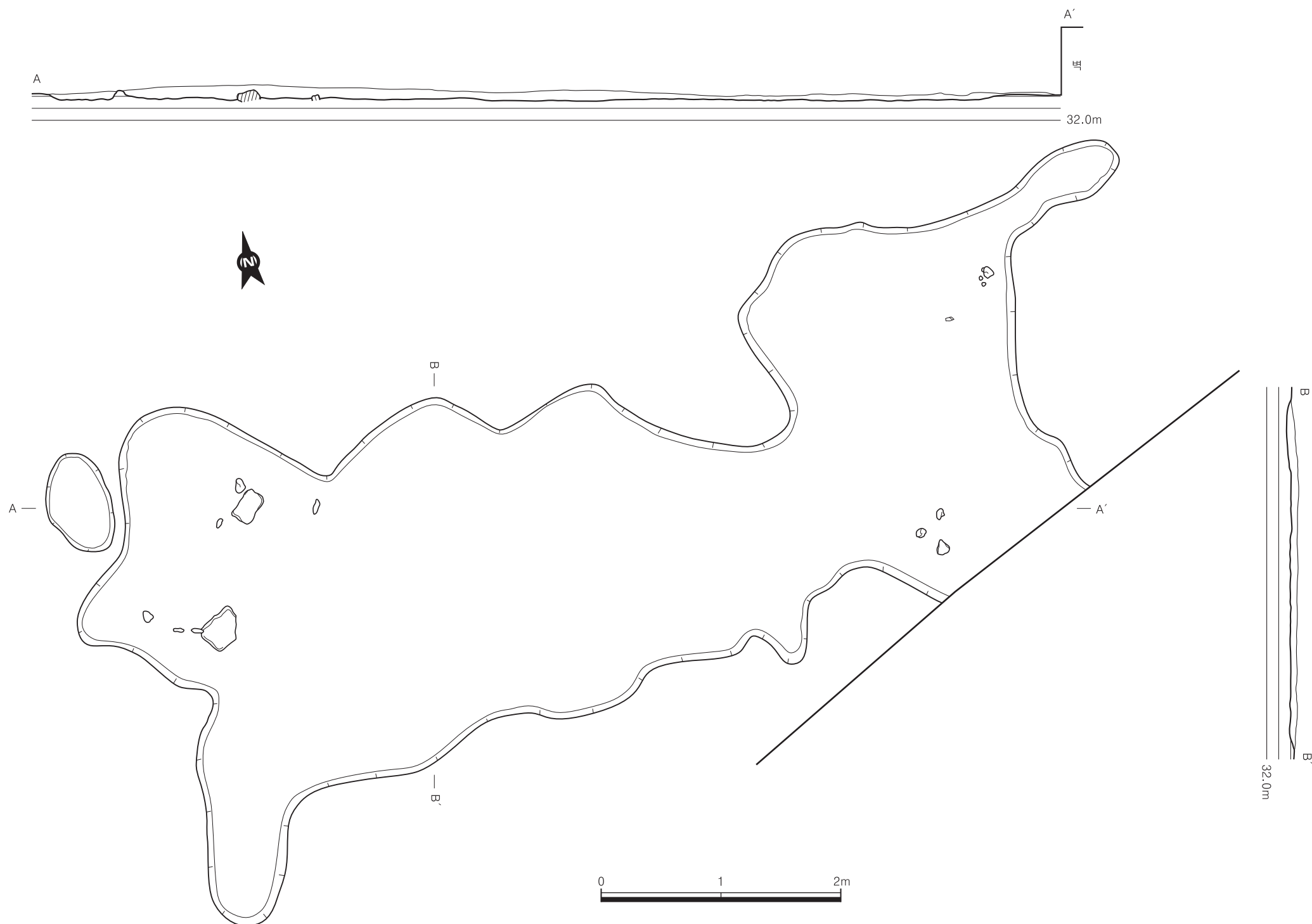
118. 적갈색경질토기(도면: 31-118, 도판: 20-②-118)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편으로 파수의 형태는 반원형으로 성형하였고 잔존상태로 볼 때 종위파수로 추정된다. 파수는 따로 제작하여 성형시 동체부와 접합하였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 일부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외면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갈색과 암갈색을 띠고 있다. 파수는 1cm 폭으로 양단 투공되어 있다.

現高 4.8cm, 把手長 4.7cm, 把手幅 2.6cm, 把手厚 1.2cm, 厚 1.3cm



도면 31. 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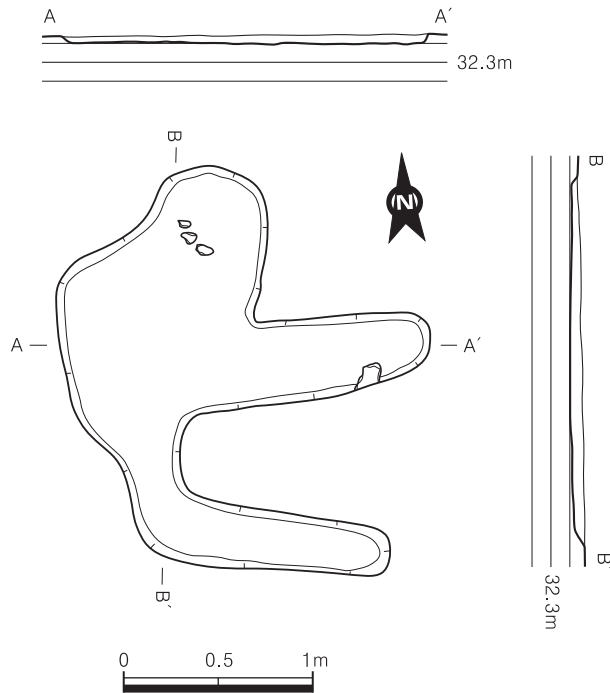


도면 32.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2) 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3, 도판: 20-③)

I 구역 3지점 3호 수혈 서편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장축 194cm, 단축 44cm, 깊이는 4cm 이다. 유구의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사질성분이 포함된 흑갈색사질점토와 자갈한 자갈들이 퇴적되어 있다. 장축방향은 남북장축이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굴착하였으며 바닥처리도 동일하게 생토면을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도면 33. 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3) 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2, 도판: 20-④)

I 구역 3지점 2호 수혈 동편 중앙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장축 764cm, 단축 302cm, 깊이는 4cm 이다. 장축방향은 N79°W이다. 유구의 내부퇴적토를 살펴보면 2호 수혈과 동일한 흑갈색사질점토층인 단일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층을 굴착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바닥은 다소 굴곡을 이루는 반면 거의 편평하며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4) 4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4, 도판: 20-⑤~⑦)

I 구역 3지점 조선시대 구상유구와 중복 축조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추정되며 동편경계에 걸쳐 이어진다. 장축 276cm, 잔존단축 169cm, 깊이 4cm 이다. 장축방향은 N10°W이다. 내부 퇴적토는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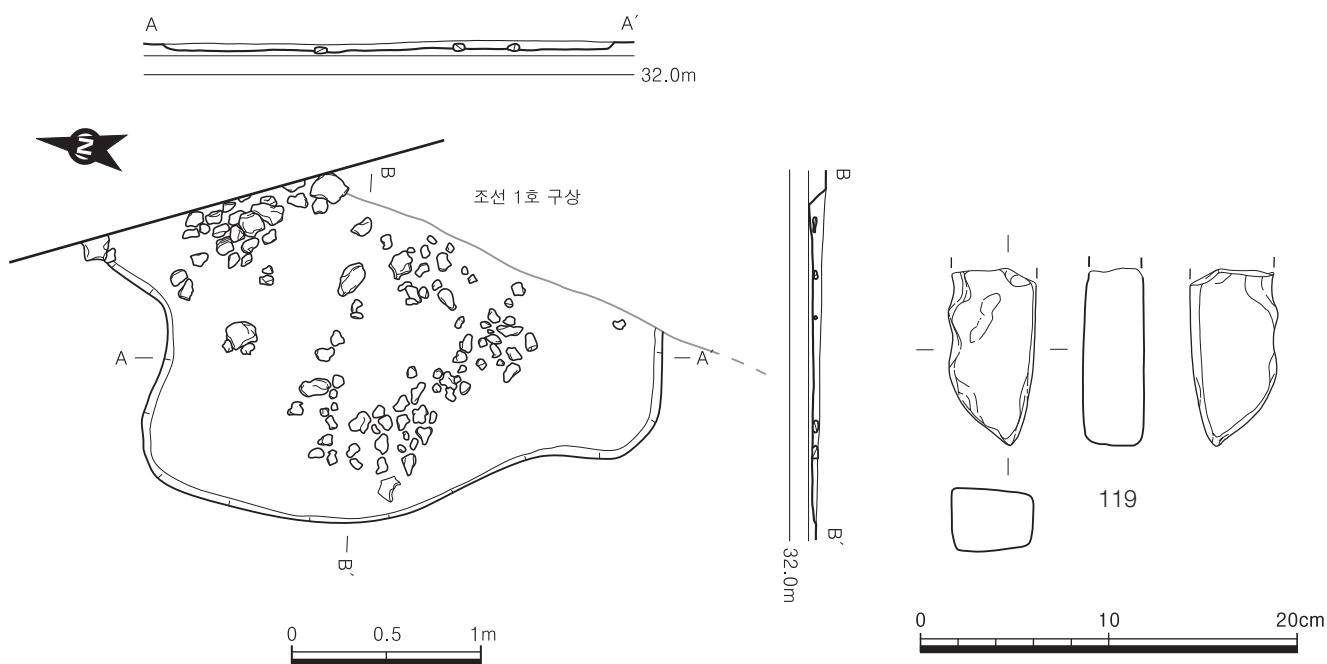
수혈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벽체와 내부 상면은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과 유구석부 1점이 확인된다.

나) 출토유물

119. 유구석부(도면: 34-119, 도판: 20-⑧-119)

응회암제 유구석부로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중앙부에 결구흙이 형성되어 있으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마연시켰으며 인부가 심하게 마모된 점으로 미루어 재사용 후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長 9.4cm, 幅 4.9cm, 厚 3.3cm



도면 34. 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5) 5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5, 도판: 21-①~③)

I 구역 5지점 북편 중앙부에 위치한다. 수혈은 3호주거지의 북벽쪽에 잇대어 후축된 상태이며 남벽쪽은 후축된 2호 주거지에 의해 일부 결실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240cm, 단축 100cm, 깊이 6cm 이다. 장축방향은 N84°E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소토가 소량 혼입된 흑색사질 점토층이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된다.

나) 출토유물

120. 적갈색경질토기(도면: 35-120, 도판: 20-④-120)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붉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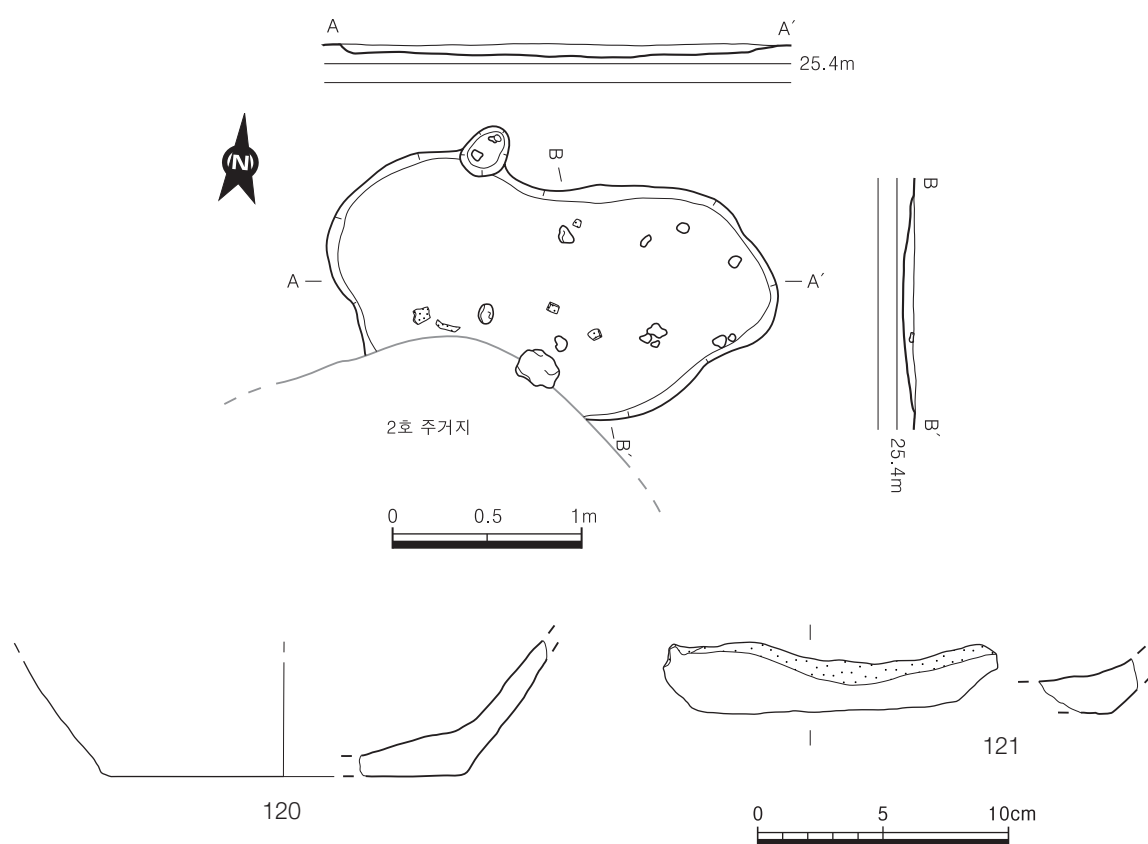
내외면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지두흔에 의한 축약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기저면에는 폭 0.7cm 정도의 판상구에 의한 압흔이 관찰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4.8cm, 厚 1.0cm

121. 적갈색경질토기(도면: 35-121, 도판: 20-④-121)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기내외면이 모두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에는 축약흔이 관찰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2.3cm, 厚 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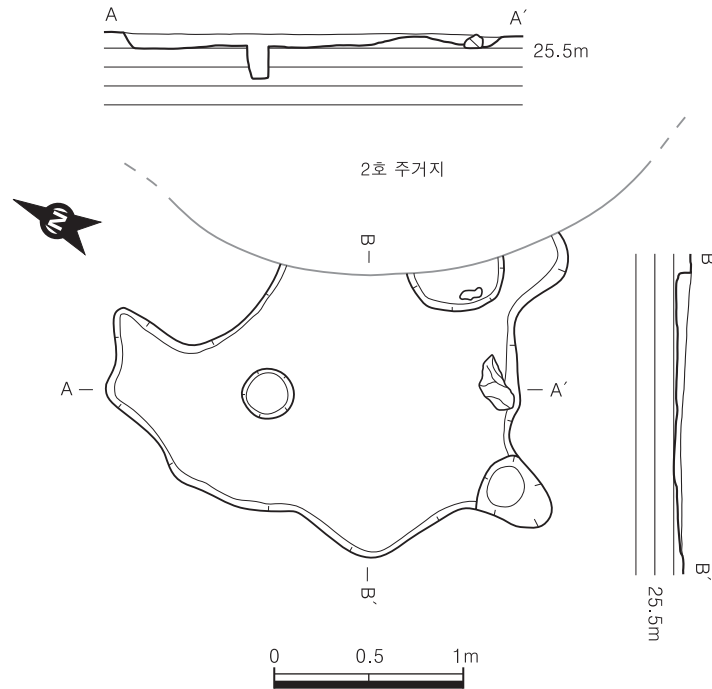


도면 35. 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6) 6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6, 도판: 21-⑤~⑥)

I 구역 5지점 북편 중앙부에 위치한다. 수혈의 동벽쪽으로는 후축된 2호 주거지로 인해 결실된 상태이다. 잔존규모는 장축 240cm, 잔존단축 150cm, 깊이 3cm 이다. 장축방향은 N26°W이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층을 이용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굴착하였으며 바닥 역시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수혈의 동벽과 남벽에 직경 40cm 내외의 주혈 2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바닥 중앙부에도 직경 24cm 가량의 주혈이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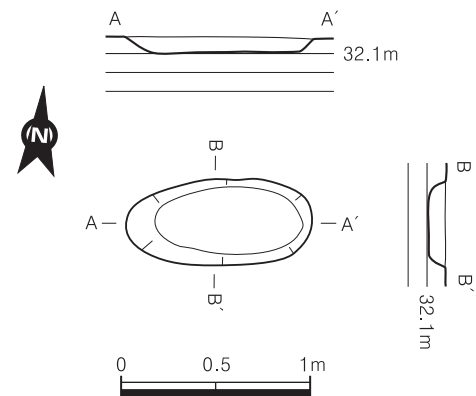


도면 36. 6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7) 7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7, 도판: 21-⑦~⑧)

I 구역 3지점 3호 구상유구 남쪽 약 3m 지점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96cm, 단축 40cm, 깊이 10cm 이다. 장축방향은 N84°E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혼입된 흑갈색사질점토층에 해당한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굴착하였으며 바닥 역시 생토층을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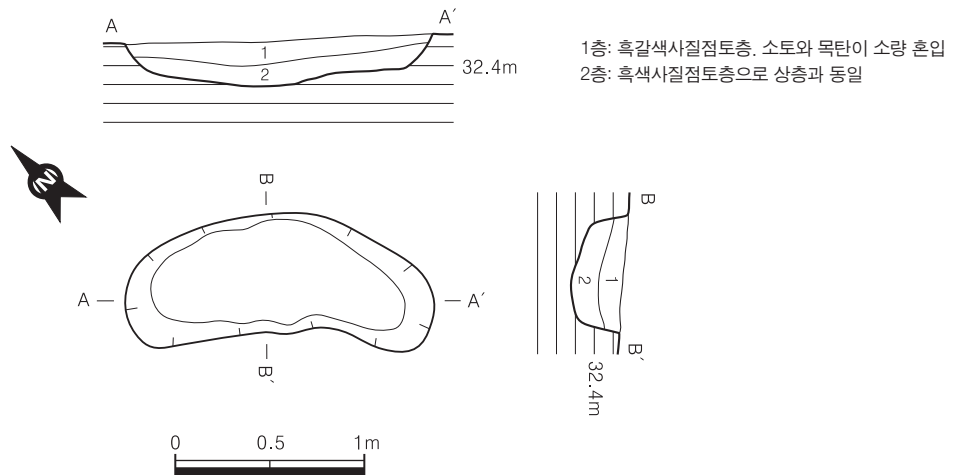
도면 37. 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 8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8, 도판: 22-①~③)

I 구역 8지점 북편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158cm, 단축 68cm, 깊이 23cm 이다. 장축방향은 N47°W이다. 수혈의 내부퇴적토는 대략 2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먼저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2층은 흑색사질점토층으로 상층에 비해 다소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직벽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 역시 생토층을 막바로 사용하였다. 수혈 내부 중앙에는 직경 40cm 가량의 주혈이 후축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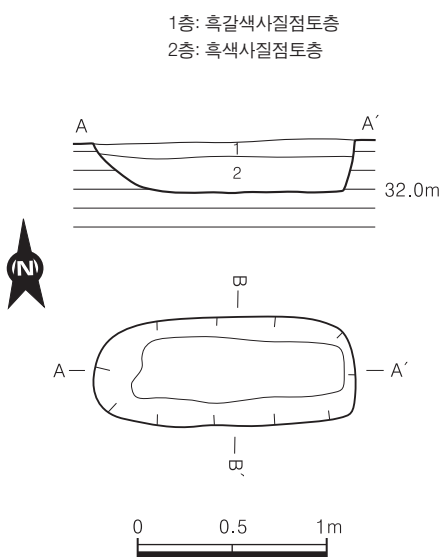


도면 38. 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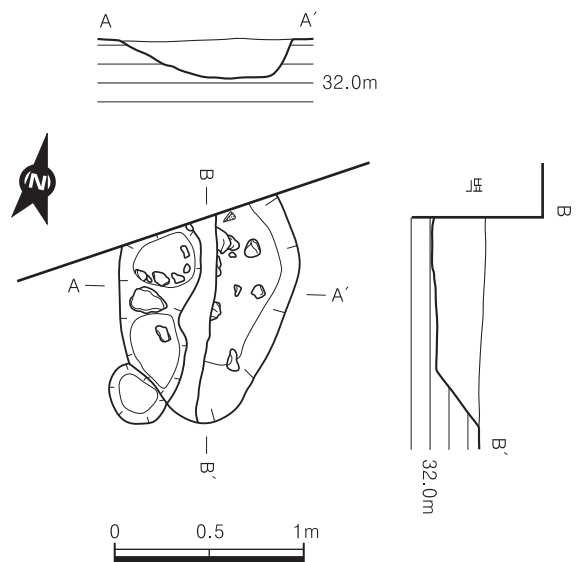
9) 9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9, 도판: 22-④~⑤)

I 구역 8지점 남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138cm, 단축 57cm, 깊이 25cm 이다. 장축방향은 N88°W이다. 내부퇴적토는 대략 2개층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1층을 보면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반면 하층인 2층 역시 상층과 동일한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1층에 비해 다소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이용하여 직벽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 역시 생토층을 막바로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도면 39. 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도면 40. 10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10) 10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0, 도판: 22-⑥~⑦)

II구역 5지점 남쪽 경계에 걸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113cm, 잔존단축 86cm, 깊이 22cm 이다. 장축방향은 N12°W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이용하여 완만하게 내려가다 단을 이루어 직벽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편이 일부 확인된다.

11) 1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1, 도판: 22-⑧~23-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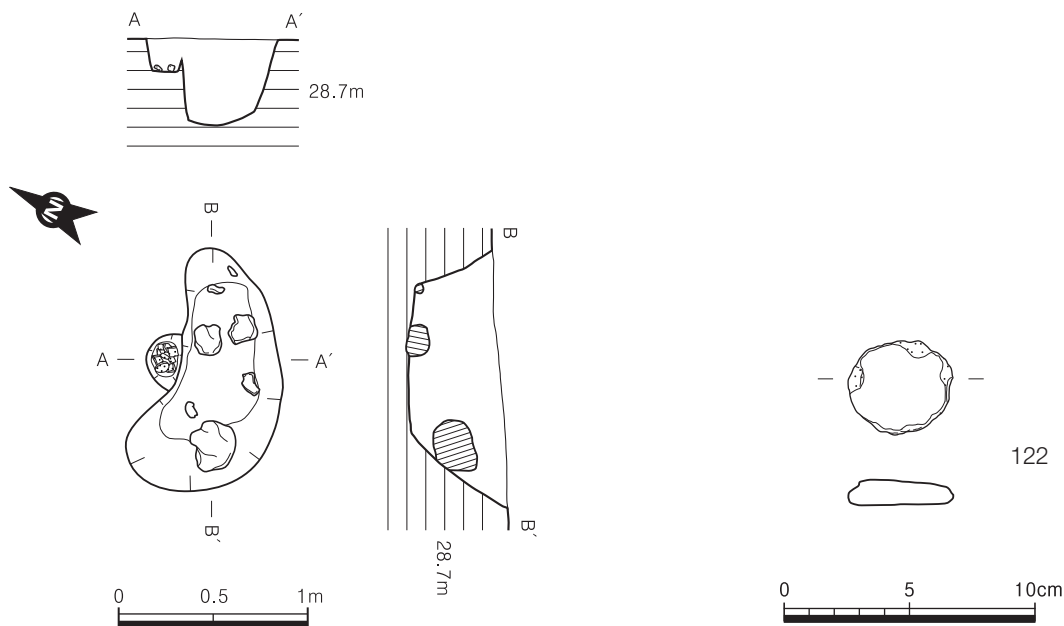
II구역 6지점 서편 경계 부분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상부에서는 크고작은 자연석과 할석이 무질서하게 적석되어 있다. 규모는 장축 130cm, 단축 60cm, 깊이 40cm 이다. 장축방향은 N62°E이다. 수혈의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에 해당한다. 벽체는 황색 점토인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완만하게 내려가다 단을 이루어 직벽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반면 상면은 생토면을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편과 원판형토제품이 확인된다.

나) 출토유물

122. 원판형토제품(도면: 41-122, 도판: 23-②-122)

원판형토제품으로 토기 파쇄품으로 제작되었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과 암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直徑 4.2cm, 厚 0.9cm



도면 41. 1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12) 12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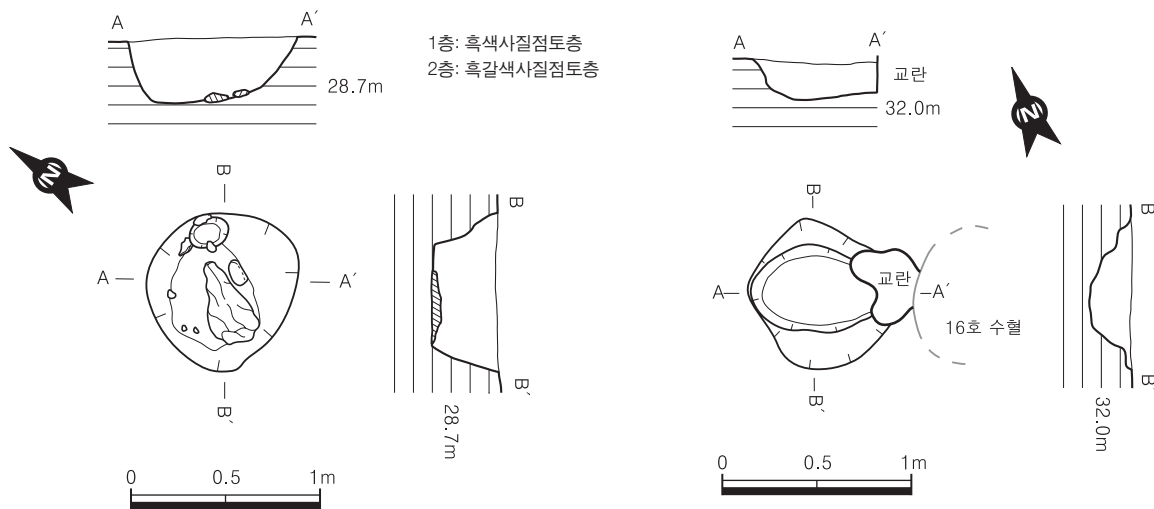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2, 도판: 23-③)

II구역 6지점 11호 수혈 동편 약 1m 지점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84cm, 단축 82cm, 깊이 36cm 이다. 장축방향은 N55°E이다. 내부퇴적토는 대략 2개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1층은 소토와 목탄이 소량 혼입된 흑색사질점토층에 해당한다. 반면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상층에 비해 다소 밝은 색조를 띠고 있으며 소토와 목탄이 함유되지 않은 층이다. 벽체의 축조상태를 보면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그대로 활용하여 굴착하였다. 특히 서쪽벽은 직벽에 가깝게 축조한 반면 그 외의 벽체는 다소 완만하게 축조하였다. 수혈의 바닥면은 풍화암반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된다.

13) 1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3, 도판: 23-④)

II구역 8지점 4호 구상유구 서편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유구의 동벽은 경작에 의해 일부 결실되었다. 규모는 장축 78cm, 단축 68cm, 깊이 21cm 이다. 장축방향은 N69°W이다. 내부 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수혈벽체는 다소 완만하게 내려가다 지표하 약 10cm에서 단을 이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 역시 생토면을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42. 1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도면 43. 1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14) 14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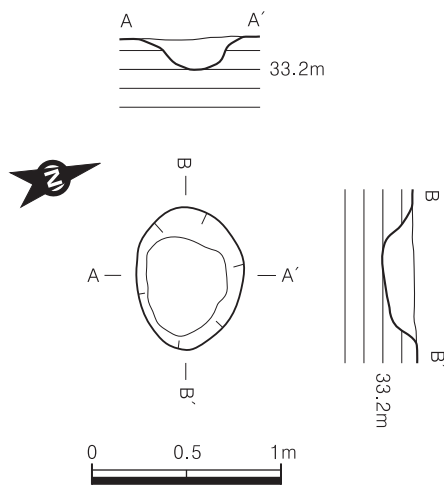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4, 도판: 23-⑤~⑥)

II구역 8지점 13호 수혈 북편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74cm, 단축 66cm, 깊이 13cm 이다. 장축방향은 N74°W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여 완만하게 굴착하였으며 바닥 역시 생토면을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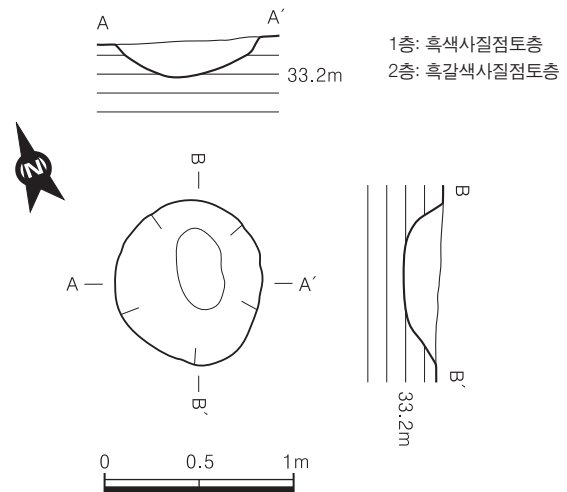
15) 15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5, 도판: 23-⑦~⑧)

II구역 8지점 14호 수혈 동편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16호, 17호 수혈과 중복 축조되어 있는데 가장 후 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88cm, 단축 80cm, 깊이 18cm 이다. 장축 방향은 N21°E이다. 내부퇴적토는 대략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소토가 소량 함유된 흑색사질점토층이며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상층에 비해 다소 밝은 색조를 띠고 있다. 벽체와 바닥은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이용하여 완만한 'U' 자형으로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44. 1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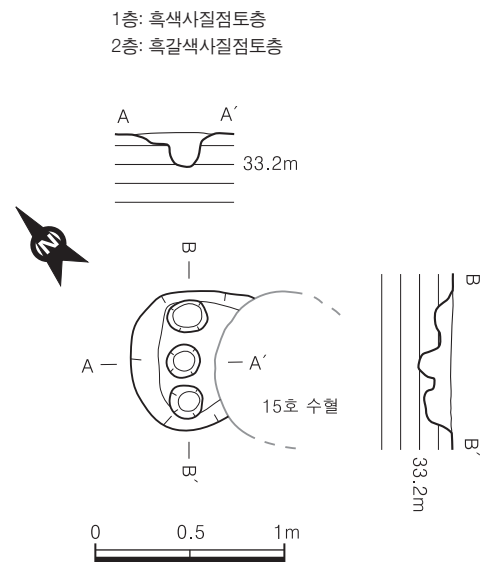


도면 45. 1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16) 16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6, 도판: 24-①~②)

II구역 8지점 14호 수혈 동편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현재 15호, 17호 수혈과 중복 축조되어 있다. 잔존상태로 볼 때 15호 수혈이 후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에 17호 수혈과의 선후관계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잔존장축 72cm, 단축 43cm, 깊이 16cm 이다. 장축방향은 N42°E이다. 내부퇴적토는 대략 2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먼저 1층은 소토가 소량 함유된 흑색사질점토층에 해당한다. 반면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상층에 비해 다소 밝은 색조를 띠고 있다. 수혈 벽체와 바닥은 황색점토층인 생토층을 굴착하여 축조하였다. 수혈 바닥에서는 직경 15~17cm 내외의 주혈 3기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46. 16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17) 17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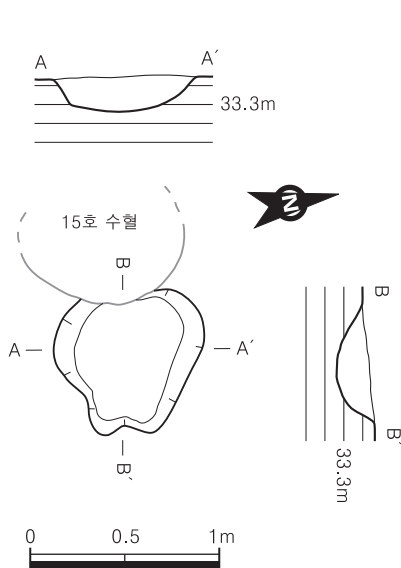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7, 도판: 24-③~⑤)

II구역 8지점 14호 수혈 동편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7기 정도의 수혈이 군집배치되어 있다. 17호 수혈유구의 서벽은 후축된 15호 수혈에 의해 일부 결실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79cm, 잔존단축 76cm, 깊이 23cm 이다. 장축방향은 N10°E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층이며 소토가 일부 함유된 흑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은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막바로 굴착하여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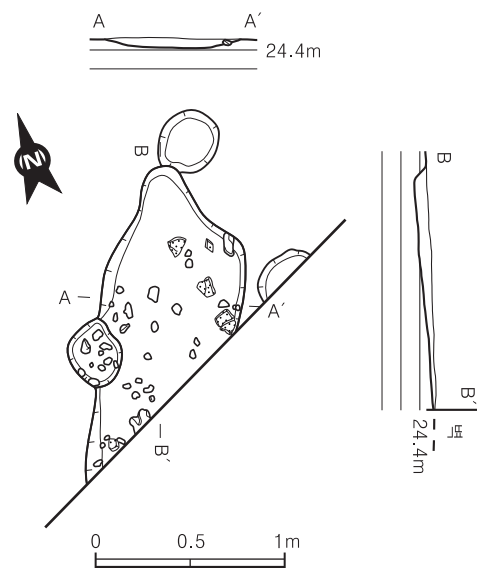
18) 18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8, 도판: 24-⑥~⑦)

II구역 6지점 4호 주거지 동편으로 대략 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잔존장축 120cm, 단축 77cm, 깊이는 12cm 이다. 장축방향은 N18°E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단일층이며 소토와 목탄이 일부 함유되어 있다. 벽체는 황색점토층을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면서 굴착하였다. 바닥은 다소 불규칙적인 풍화암반층을 사용하였다. 수혈의 서벽에 직경 27cm 가량의 주혈이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도면 47. 1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도면 48. 1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19) 19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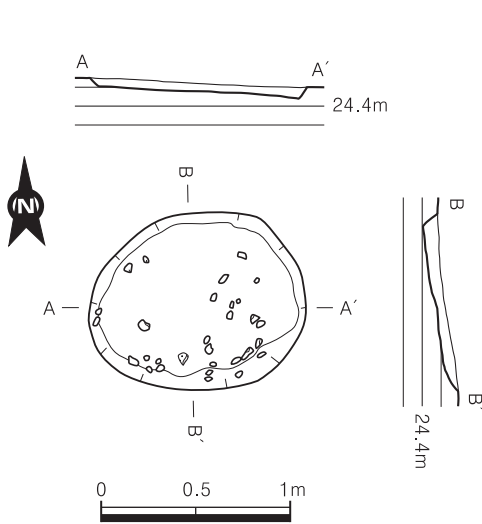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9, 도판: 24-⑧)

II구역 6지점 4호 주거지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18cm, 단축 94cm, 깊이는 10cm 이다. 장축방향은 동서장축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인 단일토층이며 소토와 목탄이 일부 함유되어 있다. 벽체와 바닥면은 풍화암반층인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상면은 다소 불규칙적이다. 출토유물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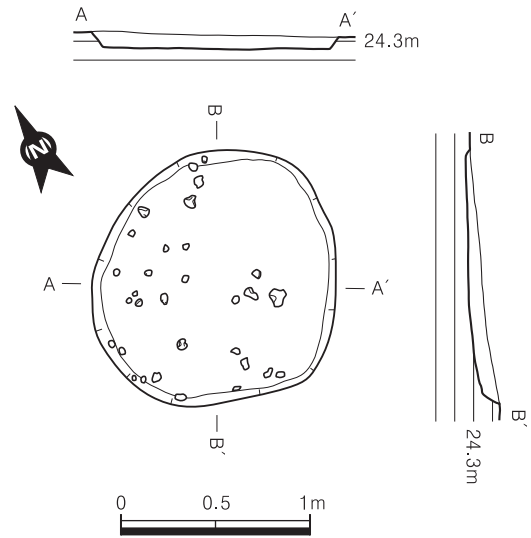
20) 20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0, 도판: 25-①)

II구역 6지점 4호 주거지의 북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34cm, 단축 130cm, 깊이는 9cm 이다. 장축방향은 N62°W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층인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토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벽체와 바닥면은 풍화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49. 1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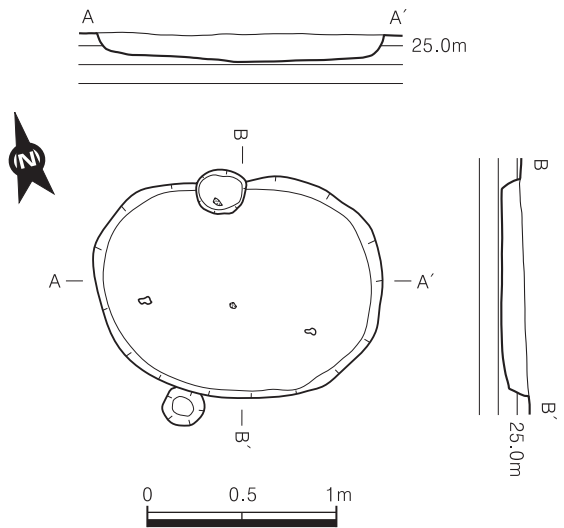


도면 50. 20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21) 2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1, 도판: 25-②~③)

II구역 6지점 20호 수혈의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150cm, 단축 111cm, 깊이 14cm 이다. 장축방향은 N76°W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면은 황색점토층인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여 굴착하였다. 수혈의 남북벽쪽에는 직경 20~25cm 내외의 주혈 2기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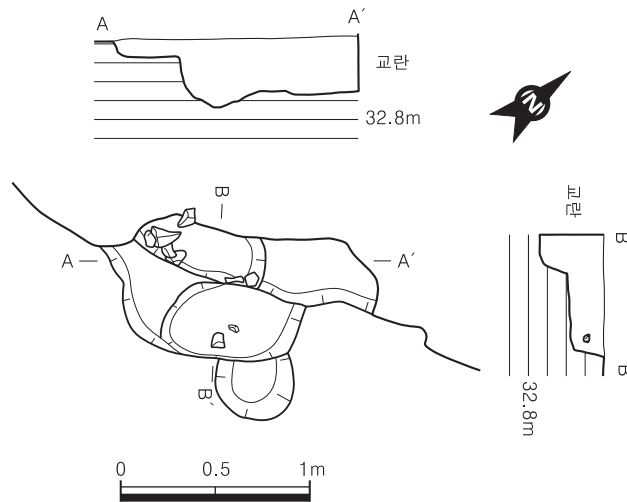
도면 51. 2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22) 2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2, 도판: 25-④)

II구역 10지점 북서편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현대 배수로로 인해 1/2가량 결실되어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으나 부정형으로 판단된다. 규모는 장축 149cm, 단축 68cm, 깊이 2~12cm 이다. 장축방향은 N38°E이

다. 내부퇴적토는 대략 2개 층위로 구분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사질성분이 함유된 층이다. 2층은 흑색사질점토층으로 상층에 비해 색조가 다소 어두우며 점성이 강한 편이다. 벽체와 바닥면은 황색 점토층인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구의 벽체와 바닥으로는 직경 40~50cm인 주혈 3기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도면 52. 2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라. 집석유구

가) 유구(도면: 53, 도판: 25-⑤~26)

I 구역 5지점 1호 소토유구 북쪽의 경계면에 걸쳐 확인된다. 집석유구의 동쪽부분은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옹벽공사로 인해 상당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따라서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가 없으나 잔존상태로 볼 때 장타원형으로 추정된다. 집석유구의 축조상태를 보면 생토면을 장타원형상으로 수혈을 굴착하여 그 내부에 크고작은 자연석과 천석 등이 토기편과 혼재된 상태로 확인된다. 현재 잔존규모를 보면 장축 694cm, 단축 650cm, 깊이는 10~35cm 이다. 장축방향은 N28°E이다. 내부퇴적토를 살펴보면 흑갈색사질점토층인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토와 잔자갈이 일부 함유된 층이다.

확인된 수혈의 내부에는 크고 작은 자연석이 무질서하게 집석되어 있고 남서벽에 치우쳐 일부 개체분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잔존상태로 볼 때 대형 수혈을 굴착한 후 사용되다가 폐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석과 함께 토기편과 폐기해야 할 석기 등을 매몰시킨 폐기장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바닥면에서는 10여개의 주혈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동서벽에 인접하여 배치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형 수혈유구의 벽체로 기둥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집석유구 내부의 유물 출토상황을 살펴보면 퇴적토에서는 대체로 적갈색경질토기 잔편이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상면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고석, 연석, 석축,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53. 집석유구 평단면도

나) 출토유물

123. 직립구연토기(도면: 54-123, 도판: 27-123)

직립구연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이 약간 내만하는 기형이다. 소성상태는 불량하고 기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하고 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적갈색과 흑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상으로 둥글게 성형하였다. 기내면은 지두반흔에 의한 기형 조정 후 물손질 처리하여 마감하였다.

現高 17.3cm, 推定口徑 23.5cm, 厚 0.6~0.8cm

124. 적갈색경질토기(도면: 54-124, 도판: 27-124)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외면이 암갈색조이고 내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6.9cm, 厚 0.8~1.0cm

125. 적갈색경질토기(도면: 54-125, 도판: 27-125)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의 축약흔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17.1cm, 底徑 12.5cm, 厚 0.7~1.3cm

126. 적갈색경질토기(도면: 54-126, 도판: 27-126)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이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외지산 태토로 추정된다. 기외면 색조는 암갈색이고 내면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점토채움 방식으로 성형하였으며 접합부는 지두흔에 의한 축약흔이 관찰된다. 정면수법은 기면박리가 심하여 관찰하기 어렵다.

現高 3.1cm, 底徑 8.1cm, 厚 0.7cm

127. 적갈색경질토기(도면: 54-127, 도판: 27-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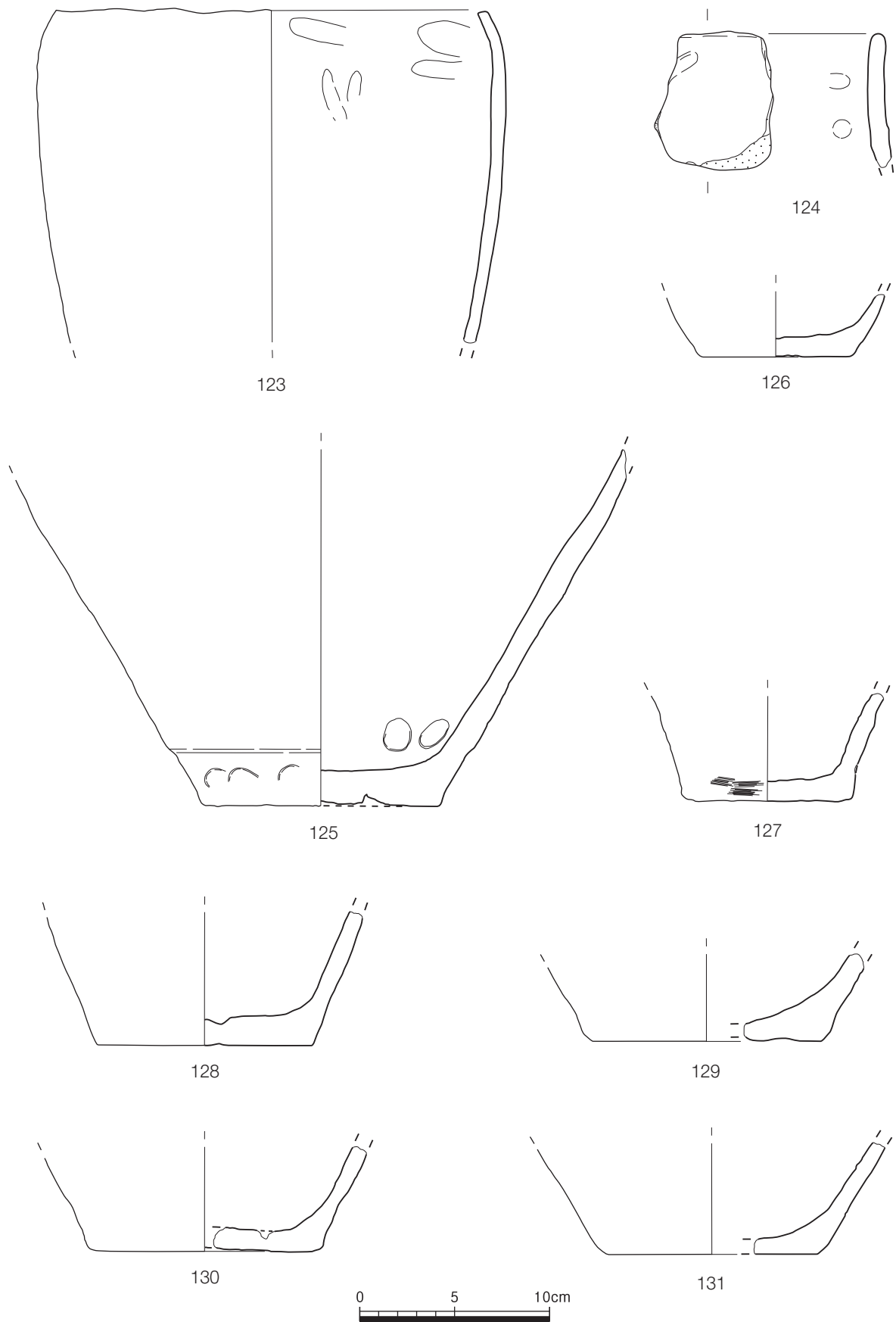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에는 일부 지두흔에 의한 축약흔이 확인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5.6cm, 底徑 9.0cm, 厚 0.8cm

128. 적갈색경질토기(도면: 54-128, 도판: 27-128)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색조는 기외면이 적갈색조를 기내면은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점토채움 방식으로 성형하였고 접합부에는 축약흔이 관찰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6.9cm, 底徑 11.0cm, 厚 0.9cm



도면 54. 집석유구 출토유물(1)

129. 적갈색경질토기(도면: 54-129, 도판: 27-129)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굽상저부의 형태를 보이는 편평저부이며 점토채움 방식으로 성형하였다. 또한 접합부에는 축약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4.2cm, 厚 1.0cm

130. 적갈색경질토기(도면: 54-130, 도판: 27-130)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는 지두흔에 의한 축약흔이 관찰된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6.1cm, 厚 0.8cm

131. 적갈색경질토기(도면: 54-131, 도판: 27-131)

적갈색경질토기 저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매우 불량하며 기면이 심하게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색조는 기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접합부의 축약흔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정면수법은 기내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6.0cm, 厚 0.7~1.0cm

132. 석촉(도면: 55-132, 도판: 27-132)

조면암제의 편평삼각형석촉으로 촉두와 촉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경부는 약간 만입된 형태이며 단면 형태는 볼록렌즈형이다.

長 6.0cm, 幅 7.4cm, 厚 0.7~1.0cm

133. 고석(도면: 55-133, 도판: 28-133)

조면암제 고석으로 평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상하단 타격면에 고타에 의한 사용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長 15.9cm, 幅 8.4cm, 厚 7.0cm

134. 연석(도면: 55-134, 도판: 28-134)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후면을 제외한 대부분 결실되었으며 후면에 사용에 의한 평탄하게 처리된 마연면이 형성되어 있다.

長 10.5cm, 幅 9.3cm, 厚 8.0cm

135. 연석(도면: 55-135, 도판: 28-135)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상으로 추정되며 전면과 후면을 제외한 대부분 결실되었으며 전면과 후면에 사용에 의해 평탄하게 처리된 마연면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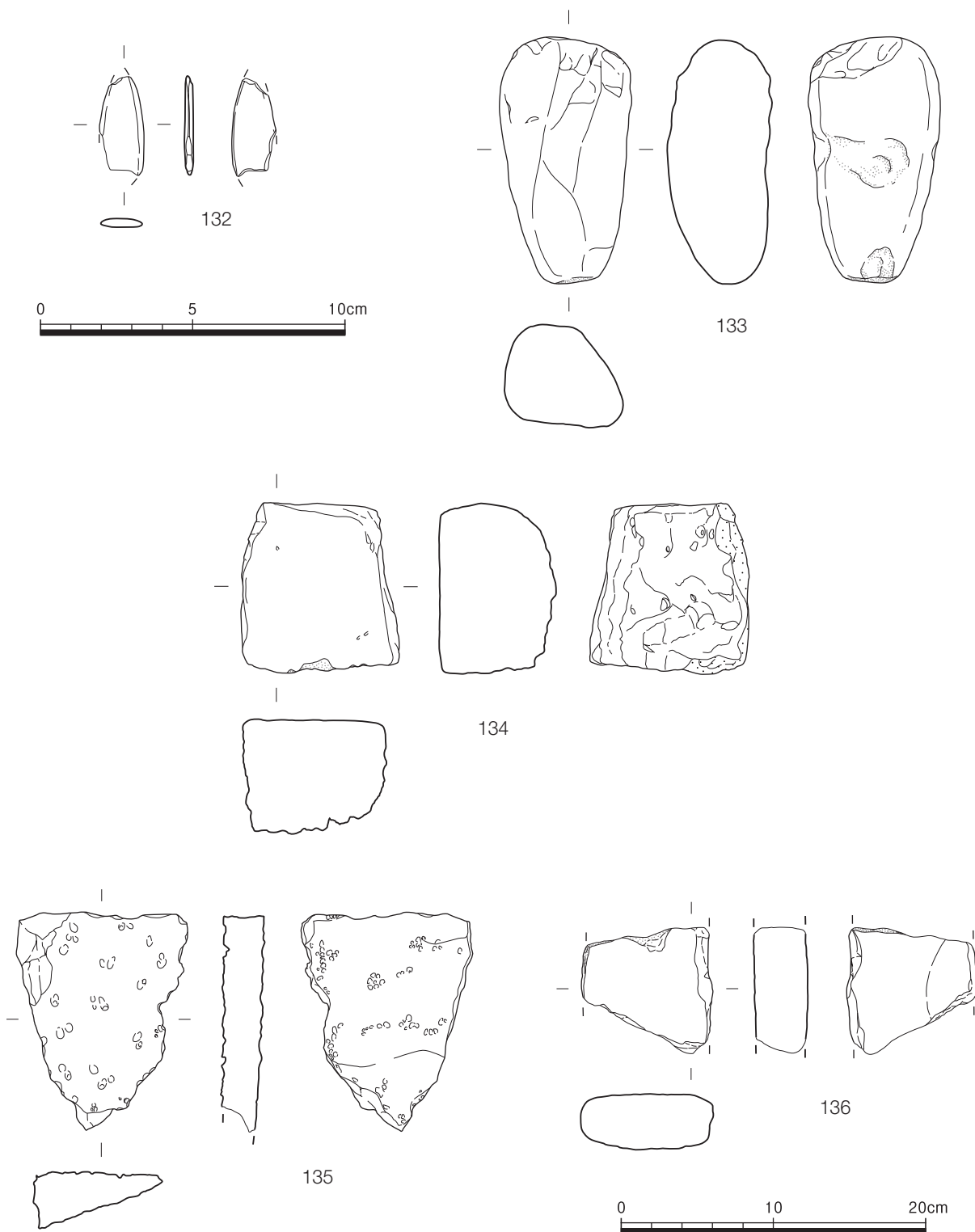
長 14.0cm, 幅 10.9cm, 厚 3.2cm

136. 연석(도면: 55-136, 도판: 28-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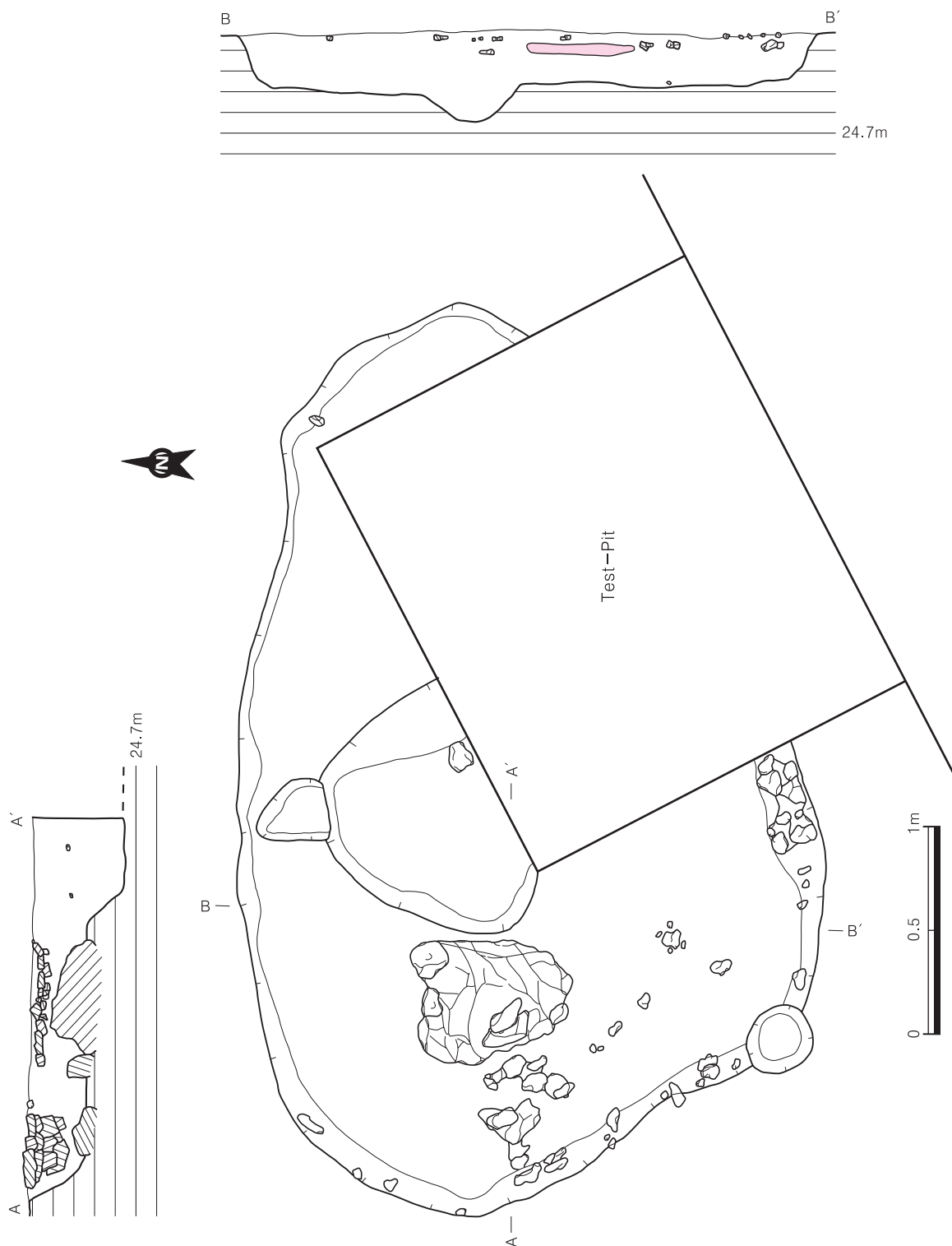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상으로 추정되며 전면과 후면, 측면을 제외한 일부는 결실되었으

며 사용에 의해 평탄하게 처리된 마연면이 형성되어 있다.

長 8.6cm, 幅 8.5cm, 厚 3.3cm



도면 55. 집석유구 출토유물(2)



도면 56. 1호 소토유구 평단면도

마. 소토유구

1) 1호 소토유구

가) 유구(도면: 56, 도판: 29-①~⑤)

I 구역 5지점 집석유구 남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는 장축 432cm, 단축 164cm, 깊이는 23cm 이다. 장축방향은 N87°E이다. 내부퇴적토는 전반적으로 흑갈색 사질점토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상부에서는 5cm 내외의 소결된 소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소토유구의 바닥면 중앙부에는 1개의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벽체와 바닥조성은 풍화암반을 그대로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이 소량으로 확인된다.

2) 2호 소토유구

가) 유구(도면: 57, 도판: 29-⑥~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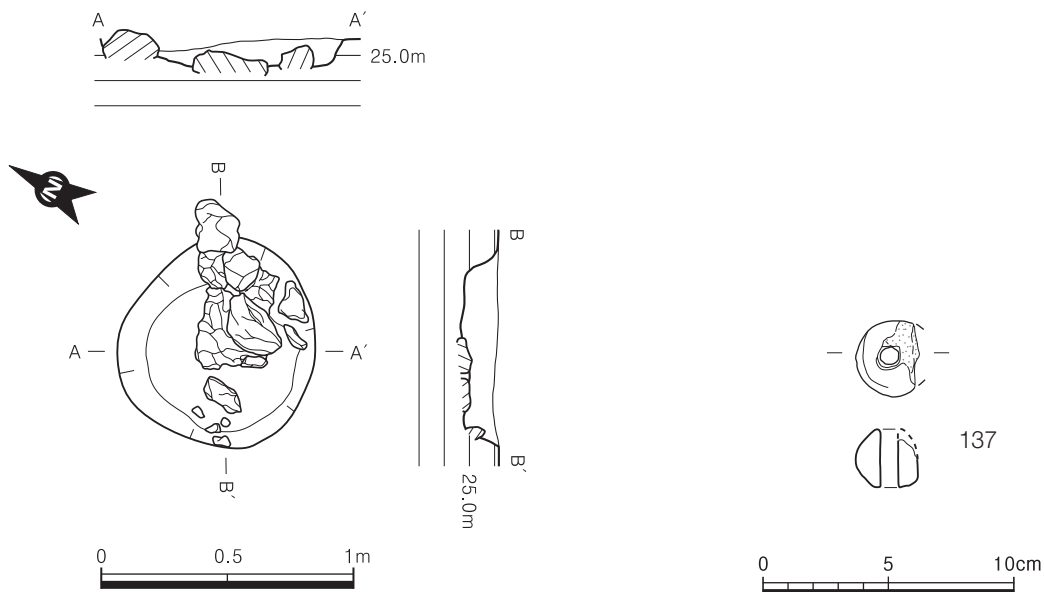
I 구역 5지점 1호 소토유구 북편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78cm, 단축 66cm, 깊이는 23cm 이다. 장축방향은 N60°E이다. 유구의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인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상부에서는 5~8cm 내외의 소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수혈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방추차 1점이 확인된다.

나) 출토유물

137. 토제방추차(도면: 57-137, 도판: 29-⑨-137)

토제방추차로 1/3 가량 결실된 상태이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체적으로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주판알모양으로 성형하였다.

直徑 3.6cm, 厚 2.6cm, 透孔直徑 0.8cm



도면 57. 2호 소토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바. 구상유구

1) 1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58, 도판: 30-①)

I 구역 4지점 서편 경계에 걸쳐 위치하며 조선시대 구상유구의 동편 약 5m 지점에서 확인된다. 북고남저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유구가 남쪽 도로인 조사범위 밖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정확한 형태와 규모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잔존규모는 장축 1028cm, 단축 24~47cm, 깊이 10cm 내외이다. 장축방향은 N42°W이다. 유구의 내부 퇴적토는 단일층으로 10cm 내외의 할석이 소량 포함되어 있고 사질성이 강한 회갈색사질점토층에 해당한다. 벽체와 바닥면은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굴착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현재 잔존 상태로 볼 때 배수시설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이 일부 확인된다.

2) 2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59, 도판: 30-②)

I 구역 7지점 서편 경계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 자형에 가까우며 잔존규모는 장축 678cm, 단축 72~30cm, 깊이 5~10cm 이다. 내부퇴적토를 보면 단일토층으로 소토가 일부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굴착하여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편이 일부 확인된다.

3) 3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60, 도판: 30-③~31-②)

I 구역 7지점 2호 구상유구 남쪽의 약 5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동고서저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축조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조사범위 밖으로 확대되고 있어 정확한 형태와 규모는 알 수 없다. 잔존규모는 길이 40m, 폭 30~50cm, 깊이 15cm 내외에 해당하며 장축방향은 N50°E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소토가 일부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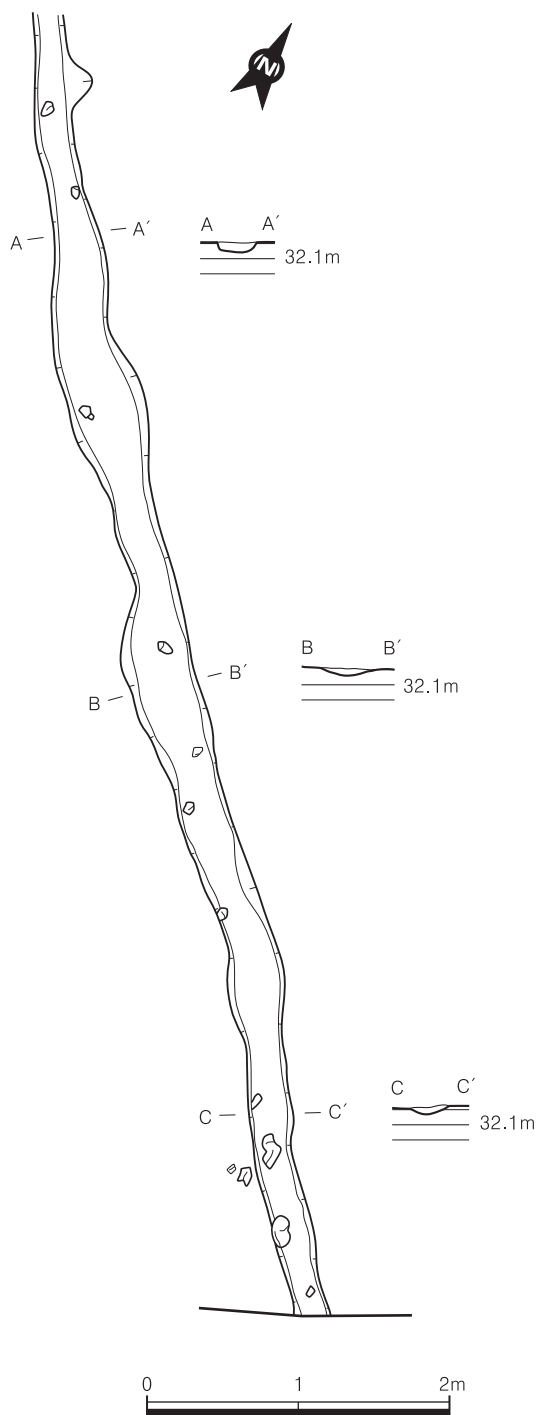
구상유구의 서쪽에는 대략 길이 9m 가량에 걸쳐 그 내부에 크고작은 자연석과 천석이 적석되어 있다. 적석된 부분의 내부 퇴적토 역시 유구 전체의 퇴적토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3호 구상유구의 주변으로 여타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내부에 크고 작은 자연석과 천석이 일부 적석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배수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적석내에서 요석 1점이 확인되며 그 외에는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된다.

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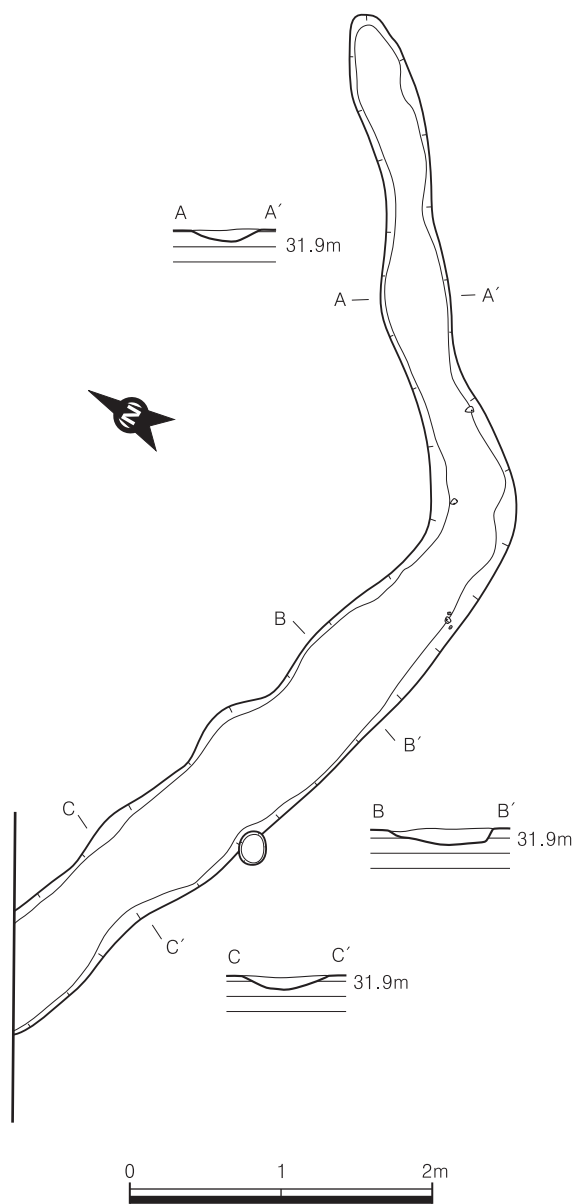
138. 요석(도면: 60-138, 도판: 31-③-138)

현무암제 요석으로 평면과 단면형태는 모두 장타원형에 가깝고 일부 결실되어 있다. 전면에는 홈이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얇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전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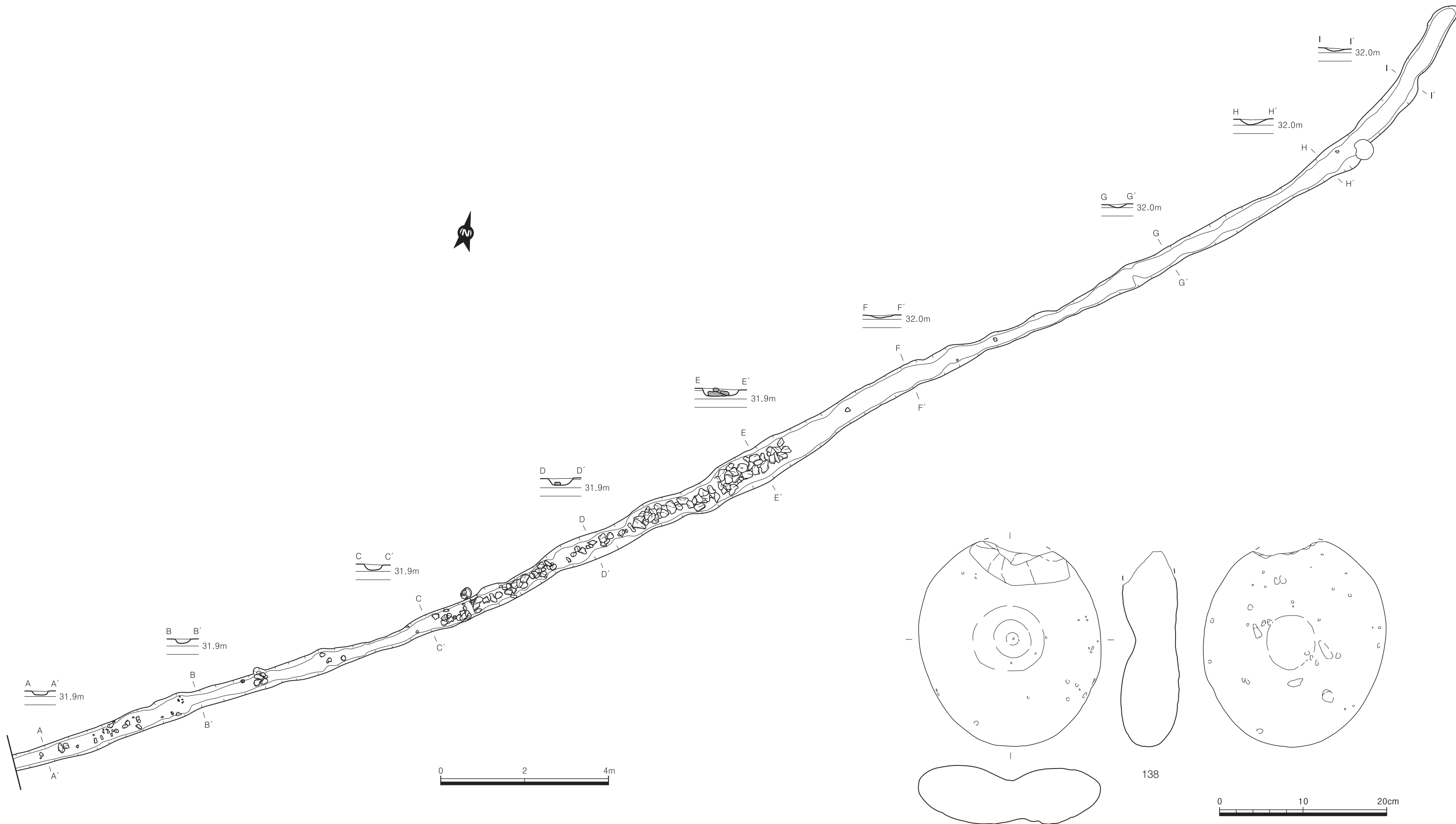
長 24.8cm, 幅 21.0cm, 厚 6.2cm



도면 58. 1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도면 59. 2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도면 60. 3호 구상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4) 4호 구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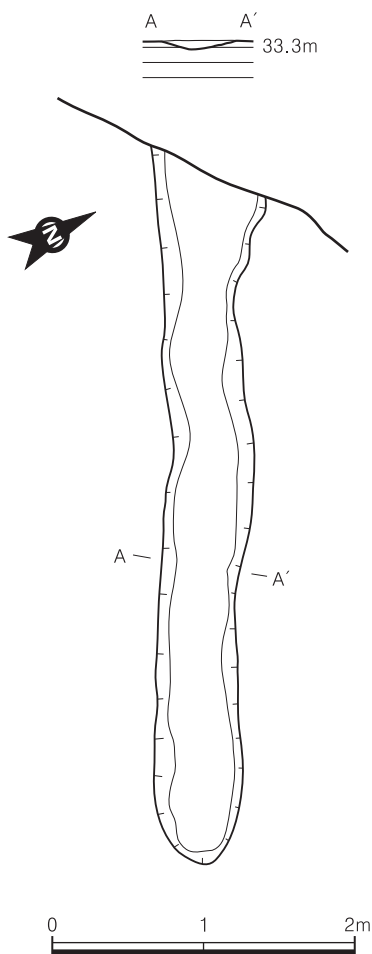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61, 도판: 31-④)

II구역 8지점 동편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남고북저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현대 배수로에 의해 결실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잔존규모는 장축 460cm, 단축 50~61cm, 깊이는 10cm 내외이다. 장축방향은 N61°W이다. 유구의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인 소토가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면은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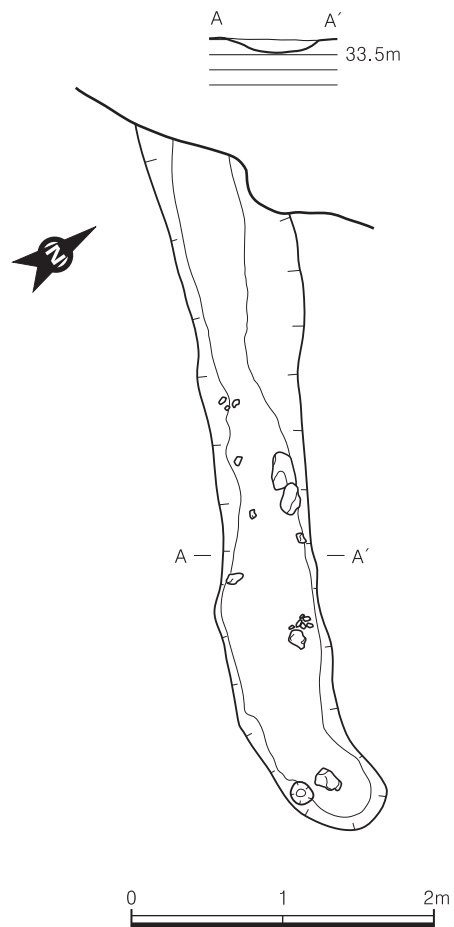
5) 5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62, 도판: 31-⑤)

II구역 8지점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고북저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현대 배수로에 의해 결실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잔존규모를 보면 장축 460cm, 단축 59~80cm, 깊이는 10cm 내외이다. 장축방향은 N65°W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소토가 일부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61. 4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도면 62. 5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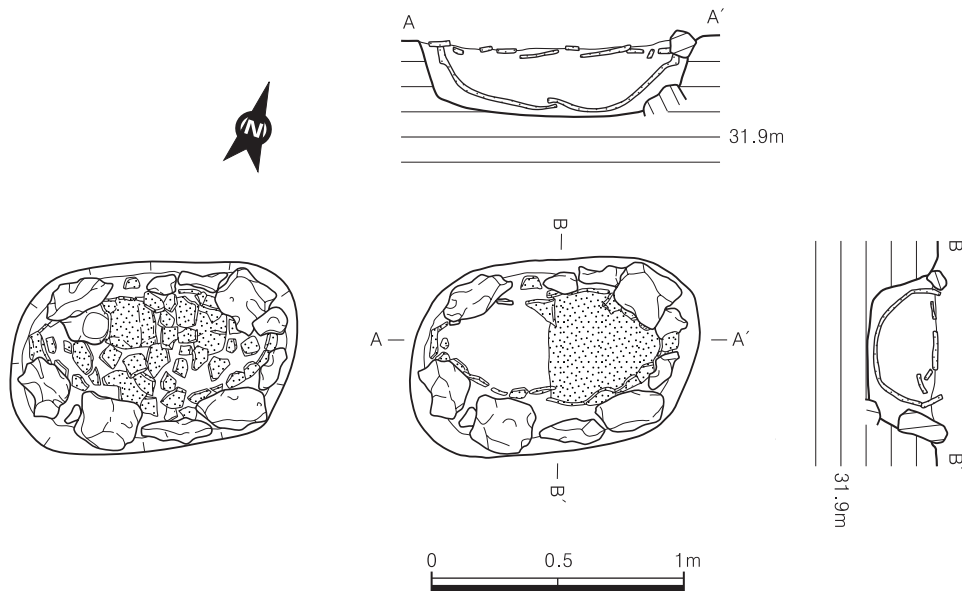
사. 옹관묘

가) 유구(도면: 63, 도판: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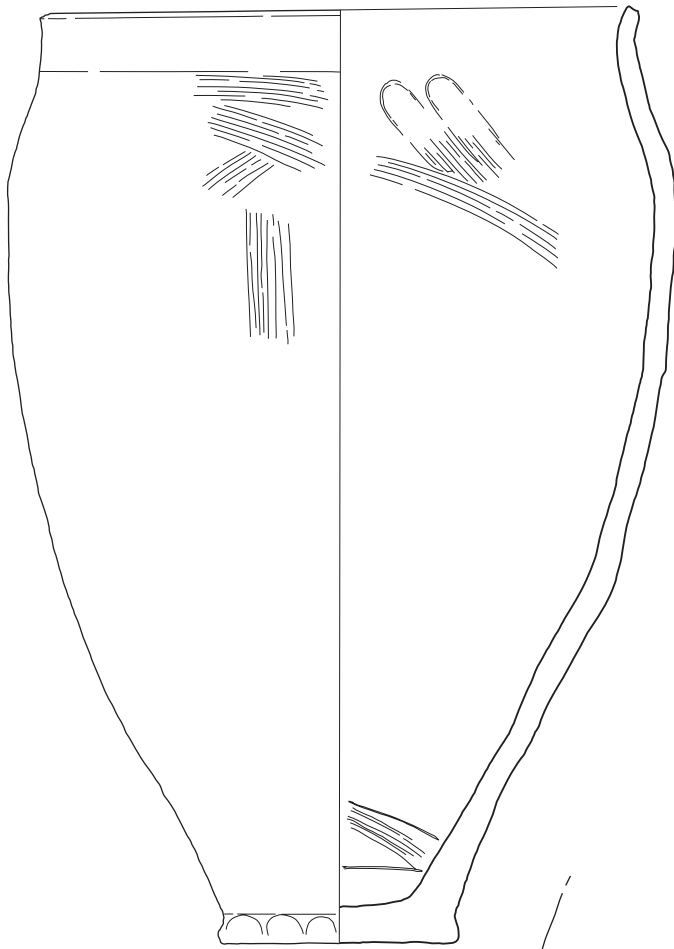
I 구역 8지점 8호 수혈유구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옹관묘는 장방형의 수혈을 굴착한 후 그 내부에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 2개를 합구식으로 축조하여 횡치된 상태이다. 횡치된 합구식 옹관의 장축방향은 $N70^{\circ}E$ 이며 수혈의 규모는 장축 115cm, 단축 76cm, 깊이는 26cm 이다. 축조된 합구식 옹관으로 이용된 토기는 전형적인 삼양동식토기로 대형토기에 해당하며 합구된 옹관의 규모를 보면 길이 98cm, 폭 44cm에 해당한다. 현재 확인된 옹관의 상태를 보면 상부가 대부분 결실된 상태여서 정확한 형태를 알 수가 없지만 잔존상태를 통해 볼 때 서쪽옹관을 동쪽옹관의 내부로 합구시켜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쪽 옹관 구연부의 외반된 부분이 모두 결실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쪽 옹관의 내부에 삽입시키기 위해 외반부분을 탈락시켜 쉽게 합구시킬 수 있도록 축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혈을 굴착한 후 그 내부에 양쪽의 옹관을 삽입하여 합구시킨 후에 주변으로는 크고작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옹관을 고정시키기 위해 위석식으로 보강해 놓았다. 따라서 횡치된 옹관이 고정되도록 충진토 대신 자연석을 이용하여 충진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현재까지 삼양동 일대에서 조사된 10여기의 옹관묘와 비교해 볼 때 수혈내의 하부에 횡치한 후 적석보강을 하는 축조방법과 옹관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기의 매장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횡치된 옹관의 내부퇴적토를 보면 흑갈색사질점토층인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 퇴적토는 소토와 목탄이 함유되어 있으며 다소 점성이 약하고 미세한 토양이 퇴적되어 있다. 수혈의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인 황색점토층을 굴착하여 사용하였다. 양쪽의 합구된 옹관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는다.



도면 63. 옹관묘 평단면도



139



140



도면 64. 옹관묘 출토유물

나) 출토유물

139. 적갈색경질토기(도면: 64-139, 도판: 33-①-139)

합구식 옹관의 서쪽에 배치된 토기이다. 적갈색경질토기로 구연부가 일부 결실된 상태이며 옹관으로 사용된 토기이다. 소성상태는 불량하고 기면이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 전반적으로 적갈색과 황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방형상으로 평탄하게 성형하였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점토채움 방식으로 성형하였다. 접합부에는 지두흔에 의한 축약흔이 관찰된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48.8cm, 口徑 31.2cm, 胴最大徑 35.9cm, 底徑 12.1cm, 厚 1.7cm, 體積 27.1 l

140. 적갈색경질토기(도면: 61-140, 도판: 33-①-140)

합구식 옹관의 동쪽에 배치된 토기이다. 적갈색경질토기로 구연부가 결실된 상태이며 옹관으로 사용된 토기이다. 소성상태는 불량하고 기면이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 전반적으로 적갈색과 황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점토채움 방식으로 성형하였다. 접합부에는 지두흔에 의한 축약흔이 관찰된다.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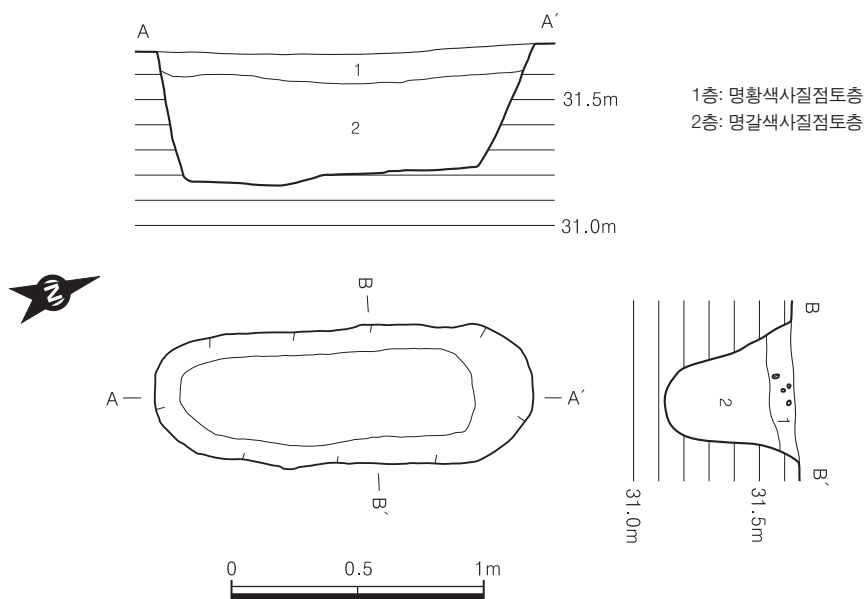
現高 48.2cm, 胴最大徑 46.4cm, 底徑 14.7cm, 厚 1.7cm

아. 토광묘

1) 1호 토광묘

가) 유구(도면: 65, 도판: 33-②~④)

1호 토광묘는 조사대상지 II구역 10지점 북서편 끝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31.2m에 해당한다. 남동쪽 약 3.5m 지점에 2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묘광의 윤곽선은 현 지표를 약 20~30cm 가량 제거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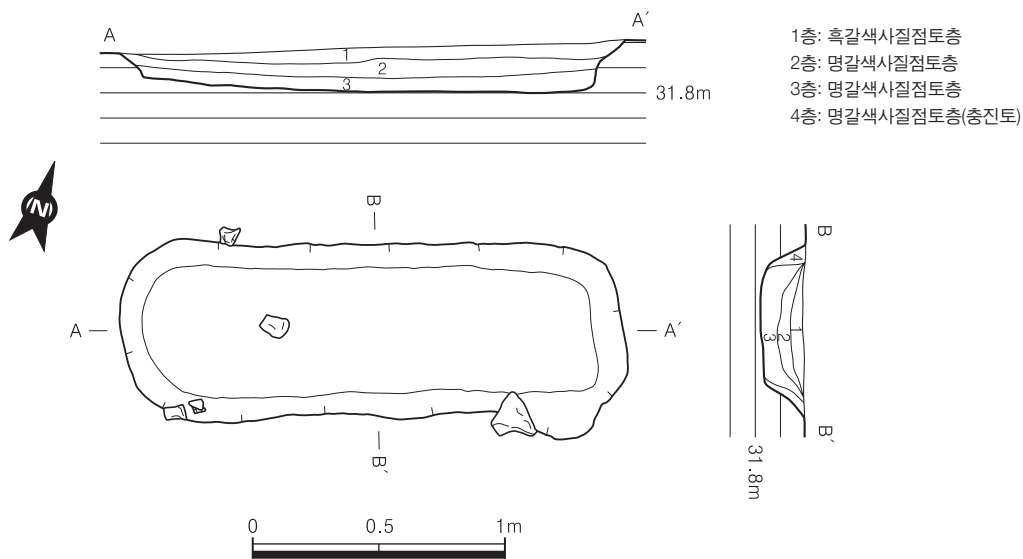


생토층인 황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N18^{\circ}E$ 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49cm, 너비 53cm, 최대깊이 56cm이다. 내부퇴적토는 대략 2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1층은 명황색사질점토층으로 황색점토가 일부 함유되어 있다. 2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상층에 비해 색조가 다소 어둡고 상층과 같이 황색점토가 혼입되어 있다. 묘광의 벽체는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117cm, 너비 52cm, 최대깊이 34cm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2) 2호 토광묘

가) 유구(도면: 66, 도판: 33-⑤~⑦)

2호 토광묘는 조사대상지 II구역 10지점 서편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32m에 해당한다. 북서쪽 약 3.5m 지점에 1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묘광의 윤곽선은 현 지표를 약 20~30cm 가량 제거한 후 생토층인 황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으며 상면은 경작으로 인해 삭평되어 바로 목관의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2^{\circ}E$ 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69cm, 깊이 17cm이다. 내부퇴적토는 대략 4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사질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2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3층보다 색조가 다소 밝으며 점성이 강하다. 3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황색점토가 일부 함유되어 있으며 점성이 강하다. 4층은 충진토에 해당하며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2층보다 색조가 밝고 점성이 강한 편이다. 묘광의 벽체는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8cm, 너비 50cm, 깊이 14cm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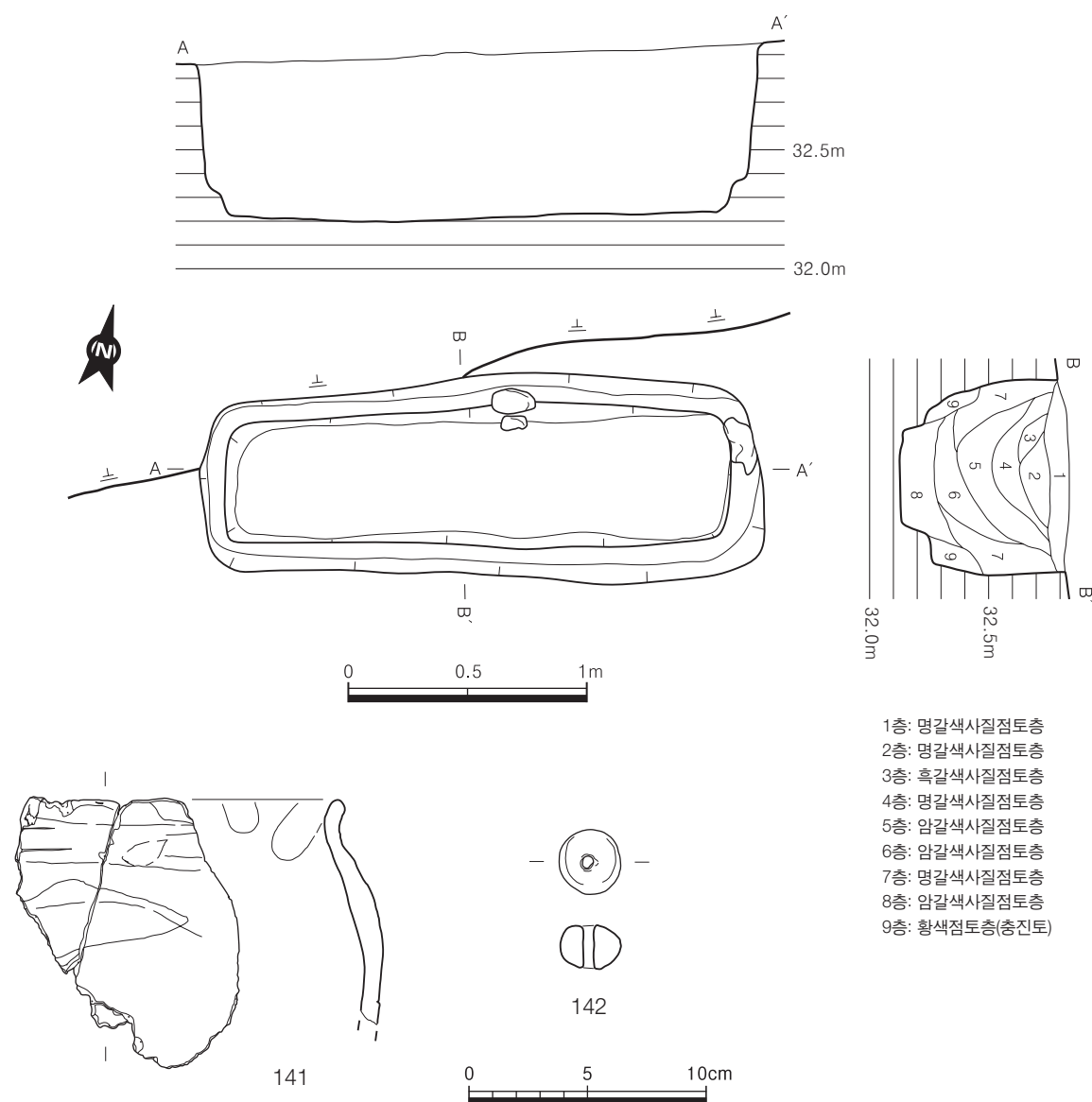
도면 66. 2호 토광묘 평단면도

3) 3호 토광묘

가) 유구(도면: 67, 도판: 34-①~④)

3호 토광묘는 조사대상지 II구역 10지점 중앙부 북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33m에 해당한다. 남동쪽 약 2.5m 지점에 4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묘광의 윤곽선은 현 지표를 약 20~30cm 가량 제거한 후 생토층인 황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서편 일부가 현대 배수로로 인해 결실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7°E 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37cm, 너비 81cm, 최대깊이 73cm 이다. 내부퇴적토는 대략 9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1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사질성분이 함유된 층이다. 2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보다 색조가 다소 밝고 점성이 강하며 소량의 소토가 함유된 층이다. 3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가 함유된 층이다. 4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황색점토가 혼입된 층이다. 5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점성이 강하며 소량의 소토와 황색점토가 함유된 층이다. 6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5층 보다 색조가 다소 어둡고 점성이 강하며 소량의 소토와 황색점토가 함유된 층이다. 7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과 거의 동일한 색조를 띠며 소량의 소토와 황색점토가 함유된 층이다. 8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점성이 강하며 소량의 소토와 다량의 황색점토가 함유된 층이다. 9층은 황색점토층으로 소량의 사질성분이 함유된 층진토에 해당한다. 묘광의 벽체는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211cm, 너비 56cm, 깊이 18cm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과 방추차가 확인된다.



도면 67. 3호 토광묘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나) 출토유물

141. 적갈색경질토기(도면: 67-141, 도판: 34-⑤-141)

적갈색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기면 일부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외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암갈색과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구연단은 반원상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최대경은 동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외반부에는 폭 1.5cm 내외의 봉상구에 의한 축약흔이 관찰된다. 반면 기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10.9cm, 口徑 8.2cm, 厚 1.1cm

142. 토제방추자(도면: 67-142, 도판: 34-⑤-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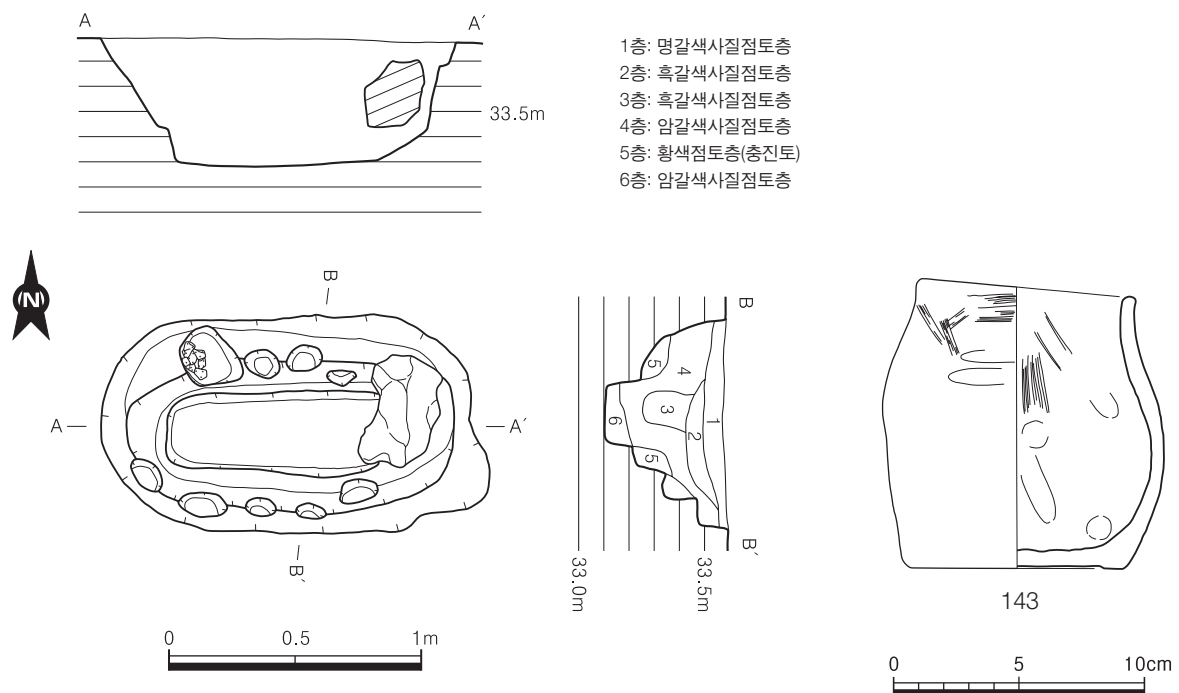
토제방추자로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일부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주판알 모양으로 성형하였다. 정면수법은 지두흔이 확인된다.

直徑 2.9cm, 厚 1.8cm, 透孔直徑 0.6cm

4) 4호 토광묘

가) 유구(도면: 68, 도판: 34-⑥~35-①)

4호 토광묘는 조사대상지 II구역 10지점 남동편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33m에 해당한다. 북서쪽 약 3.5m 지점에 3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묘광의 윤곽선은 현 지표를 약 20~30cm 가량 제거한 후 생토층인 황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장축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46cm, 너비 84cm, 깊이 37cm이다. 내부퇴적토는 대략 6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먼저 1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이며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에 해당한다. 3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상층보다 다소 밝은 색조를 띠고 있으며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함유되어 있다. 4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점성이 강하며 황색점



도면 68. 4호 토광묘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토가 함유되어 있다. 5층은 황색점토층으로 충진토에 해당하며 색조가 다소 어둡다. 6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4층보다 점성이 강하며 밝은 색조를 띠고 있다. 묘광의 벽체를 살펴보면 북쪽과 남쪽벽체의 안쪽에 잇대어 직경 12~20cm 정도의 주혈 8개가 자리하고 있다. 각각의 벽주혈은 대체로 직경 15cm내외, 깊이 15~19cm 정도이며 대략 10cm 내외의 등간격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 또한 북쪽벽체의 주혈은 부장갱으로 추정되는데 그 내부에서 적갈색경질토기 1개체분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벽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나 북쪽벽은 단을 이루어 굴착하였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77cm, 너비 30cm, 깊이 15cm로 여겨진다.

나) 출토유물

143. 적갈색경질토기(도면: 68-143, 도판: 35-②-143)

적갈색경질토기로 심발형토기이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외면 색조는 전반적으로 적갈색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외면에 각각 흑갈색과 암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구연단은 반원형으로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외반부에는 판상구에 의한 축약흔이 관찰된다. 동최대경은 동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저부는 편평저부이며 점토채움 방식으로 성형하였다. 반면 접합부의 축약흔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기내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現高 11.4cm, 口徑 9.7cm, 胴最大徑 4.5cm, 底徑 8.7cm, 厚 0.9cm, 體積 0.7 l

자. 주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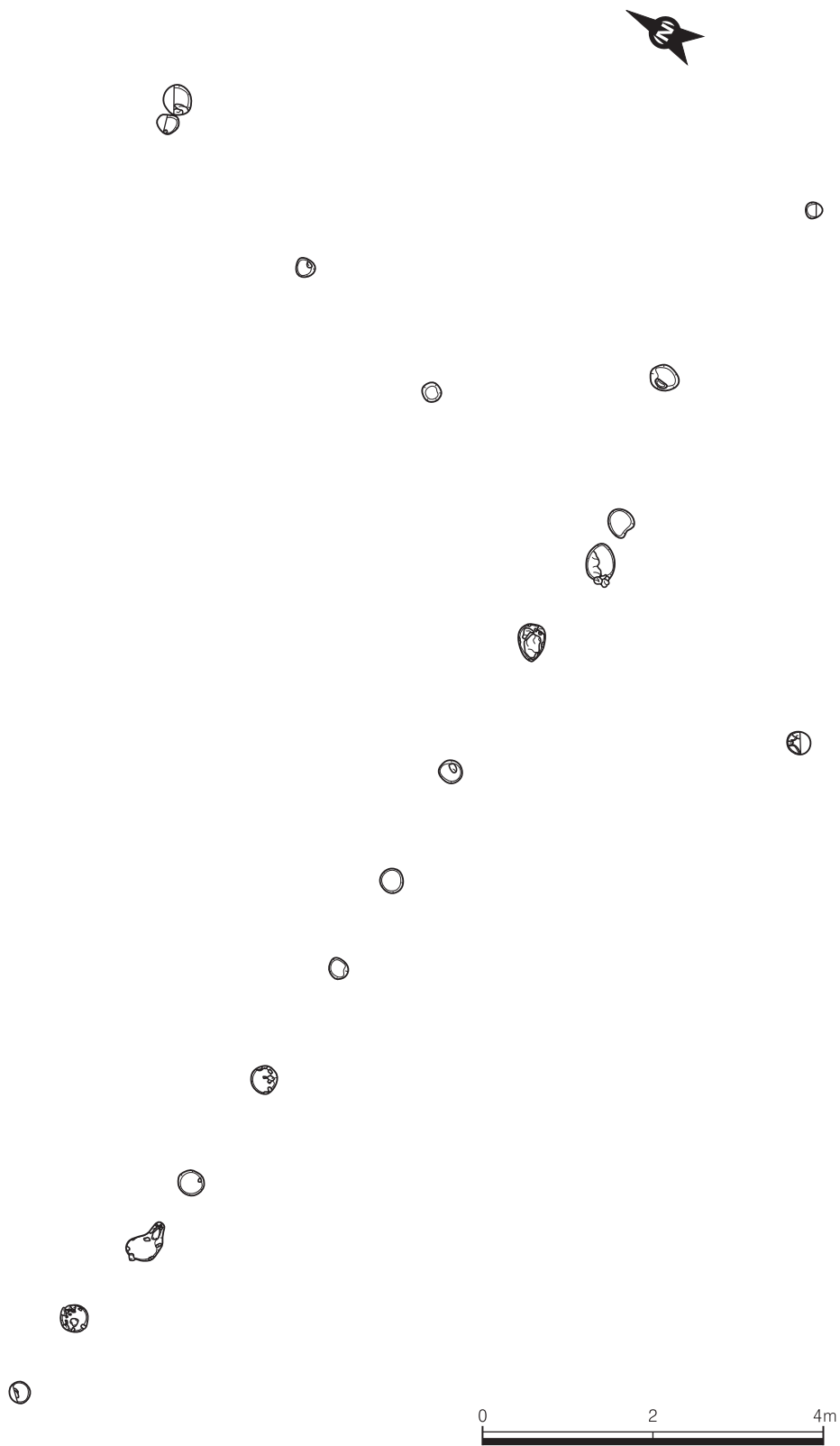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69, 도판: 35-③~④)

I 구역 6지점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주혈은 동서축과 남북축을 기준으로 ‘+’ 형으로 일련의 주혈군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노출상태로 보면 동서장축상의 주혈배치가 조사범위 밖으로 연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심 주혈군임을 알 수가 있다. 동서장축 주혈군의 규모를 살펴보면 현존길이는 12.2m이며 주혈간 간격은 대략 80~120cm 정도의 일정한 등간격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반면에 남북단축상의 주혈군 역시 조사범위 밖으로 연결되고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주혈군의 규모를 보면 현존길이 10.3m이며 주혈간 간격은 대략 185~254cm 정도의 등간격을 이루고 있다. 현재 확인된 주혈군에 배치된 주혈의 규모를 보면 대략 직경 21~35cm 내외, 깊이 19~38cm 내외로 일정한 정형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동시기 동일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주혈군임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잔존상태로 볼 때 동 주혈군은 삼양동 취락내의 공동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동야의 구조물로 추정되어 진다. 또한 주혈군의 주변으로는 여타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취락의 중심에서 분리된 공공시설물임을 더욱 반증해준다고 할 것이다. 즉 삼양동 III지구에서 확인된 주혈군과 용도상의 일정한 공통점을 보여줄 것으로 여겨진다⁶⁰⁾. 각각의 주혈 내부퇴적토를 보면 소토가 일부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에 해당한다.

60) 濟州大學校博物館, 2000, 『濟州 三陽洞遺蹟-II・III地區』.

삼양동취락내에서 일정한 공간내에 저장성 혹은 사육성을 갖춘 야의 지상 시설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맹수로부터 보호해야할 저장용 곡물류 혹은 가축 사육을 위한 야의 간이 구조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도면 69. 주혈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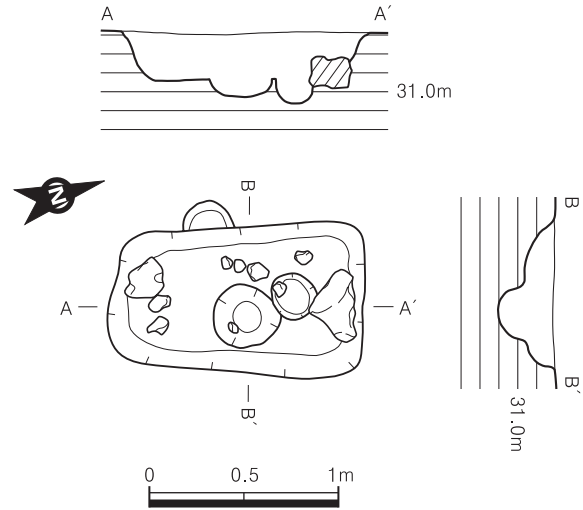
2. 조선시대

가. 수혈유구

1) 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70, 도판: 36-①)

조사대상지 I 구역 1지점 중앙부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선사시대 수혈을 파괴하고 후축된 상태이다. 장축방향은 N17°E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135cm, 단축 71cm, 깊이 17cm 이다. 유구의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사질이 다량 함유된 회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구의 동편 바닥으로는 직경 25~30cm의 주혈 2기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자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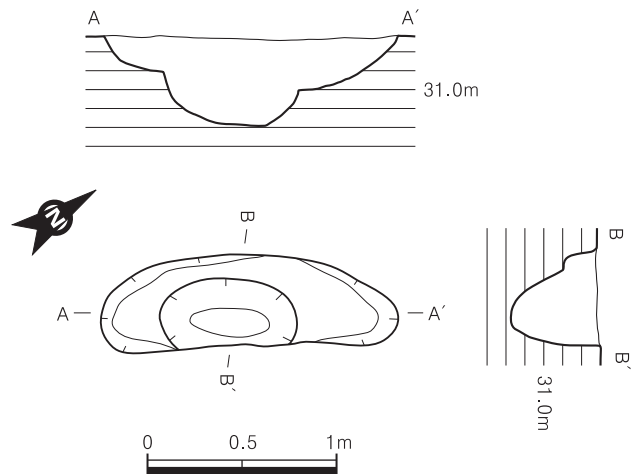


도면 70. 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2) 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71, 도판: 36-②)

전술한 1호 수혈의 동쪽으로 약 8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장축 157cm, 단축 49cm, 깊이 40cm 이다. 장축방향은 N34°E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사질이 다량 혼입된 회갈색사질점토층이다. 남쪽 벽체는 황색점토층인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여 수직상으로 굴착하였으며 다른 부분은 지표하 약 20cm 가량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단을 형성한 후 수직으로 축조하였다. 바닥면은 중앙부로 경사를 이루며 좁아지는 형태로 축조하였으며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71. 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3) 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72, 도판: 36-③~④)

I 구역 2지점 중앙부 북편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규모는 장축 140cm, 단축 130cm, 깊이 22cm 이다. 장축방향은 N83°E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사질이 다량 함유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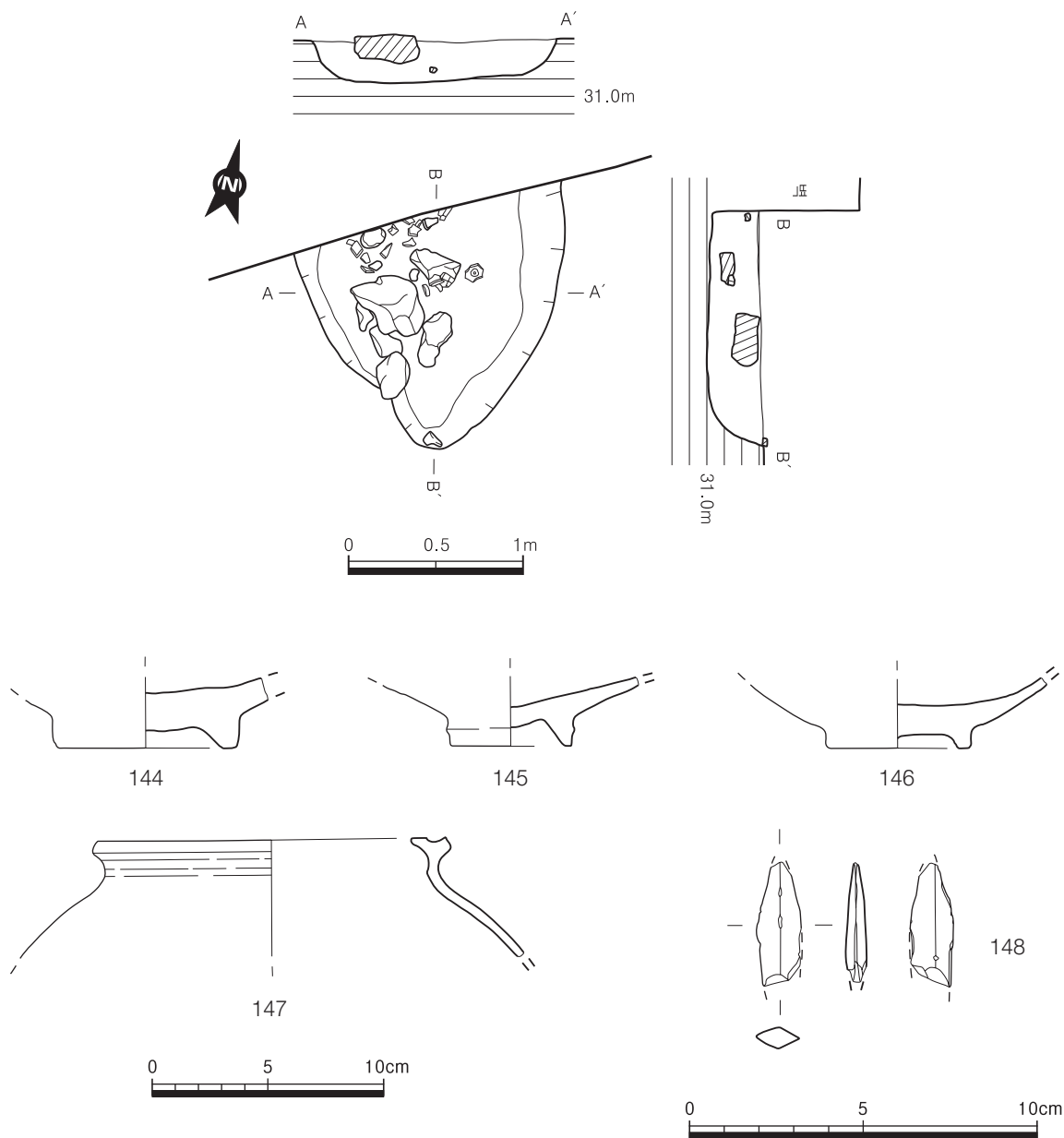
회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면은 황색점토층인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석축, 자기편, 도기편이 확인된다.

나) 출토유물

144. 백자 대접(도면: 72-144, 도판: 36-㉔-144)

백자 대접 저부편으로 안바닥에 저경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 잔빙렬이 있다. 굽은 각음새가 매우 단정하고 굽 접지면의 폭은 넓고 고르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접지면은 비짐을 받쳐 번조한 후 번조반침을 떼어 낸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5cm, 底徑 7.2cm, 厚 1.0cm



도면 72.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145. 백자 접시(도면: 72-145, 도판: 36-㉔-145)

백자 접시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사용하여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 잔빙렬이 있다. 굽은 죽절굽에 가까우며 굽의 각음새는 다소 거친편이다. 그릇의 안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 접지면에도 비짐을 받쳐 번조한 후 번조받침을 떼어 낸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0cm, 底徑 5.3cm, 厚 0.7cm

146. 백자 접시(도면: 72-146, 도판: 36-㉔-146)

백자 접시 저부편으로 저경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 잔빙렬이 있다. 굽은 각음새가 단정하고 굽 접지면은 고르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접지면은 비짐을 받쳐 번조한 후 번조받침을 떼어 낸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1cm, 底徑 6.3cm, 厚 1.0cm

147. 회청색경질도기(도면: 72-147, 도판: 36-㉔-147)

동체부에서 사방향으로 올라간 'T' 자모양의 전이 달려 있는 대형 항아리의 구연부 편이다. 표면에 회갈색의 유약을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노태된 곳도 있다. 태토는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입자가 작은 모래 알갱이와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다.

現高 5.1cm, 口徑 15.5cm, 厚 10.4cm

148. 석축(도면: 72-148, 도판: 36-㉔-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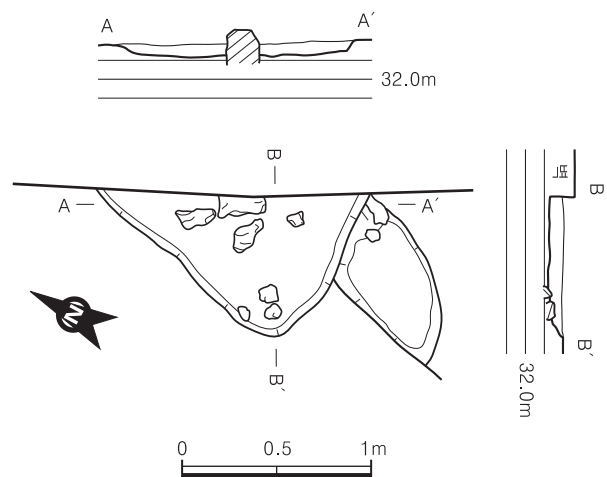
조면암제 삼각형석축으로 축신부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단면형태는 능형이며 인부는 날카롭게 마연하였다. 축신 하단부에 경부가 형성된 점으로 미루어 습배가 있는 일단경식축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

長 3.2cm, 幅 1.3cm, 厚 0.5cm

4) 4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73, 도판: 36-㉕)

I 구역 3지점에 위치하며 1호 구상유구를 파괴하고 중복 축조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볼 때 부정형으로 여겨진다. 규모는 장축 139cm, 단축 72cm, 깊이는 3cm 이다. 장축방향은 N27°W이다. 내부퇴적토는 회갈색 사질점토층인 단일층으로 상부에서는 다량의 소토와 함께 15~20cm 크기의 할석이 함유되어 있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73. 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나. 구상유구

1) 1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74, 도판: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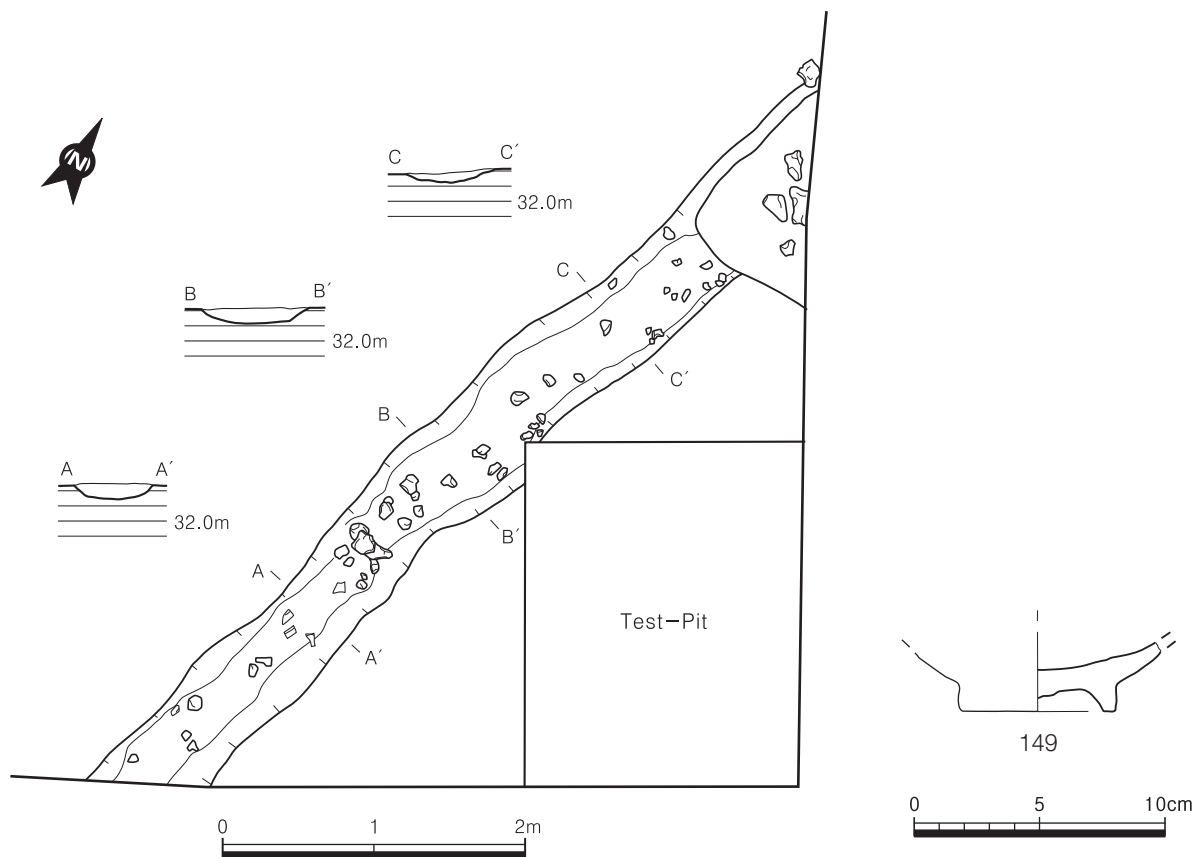
I 구역 3지점 동쪽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 수혈(탐라성립기)와 3호수혈(조선시대)과 중복 축조되어 있다. 조사결과 축조순서를 살펴보면 4호 수혈유구→3호 수혈유구→1호 구상유구의 순서대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잔존규모는 길이 516cm, 폭 69~72cm, 깊이는 10cm 내외이다. 장축방향은 N17°E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이며 자갈한 자갈과 사질이 다량 함유된 회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은 황색점토층인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여 완만하게 굴착하였다. 축조상태로 볼 때 배수와 관련된 시설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자기편과 도기편이 확인된다.

나) 출토유물

149. 백자 접시(도면: 74-149, 도판: 37-⑤-149)

백자 접시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외면은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기포가 있다. 굽의 각음새는 다소 거친편이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접지면에 태토비집을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접지면은 비집을 받쳐 번조 한 후 번조받침을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4cm, 底徑 6.2cm, 厚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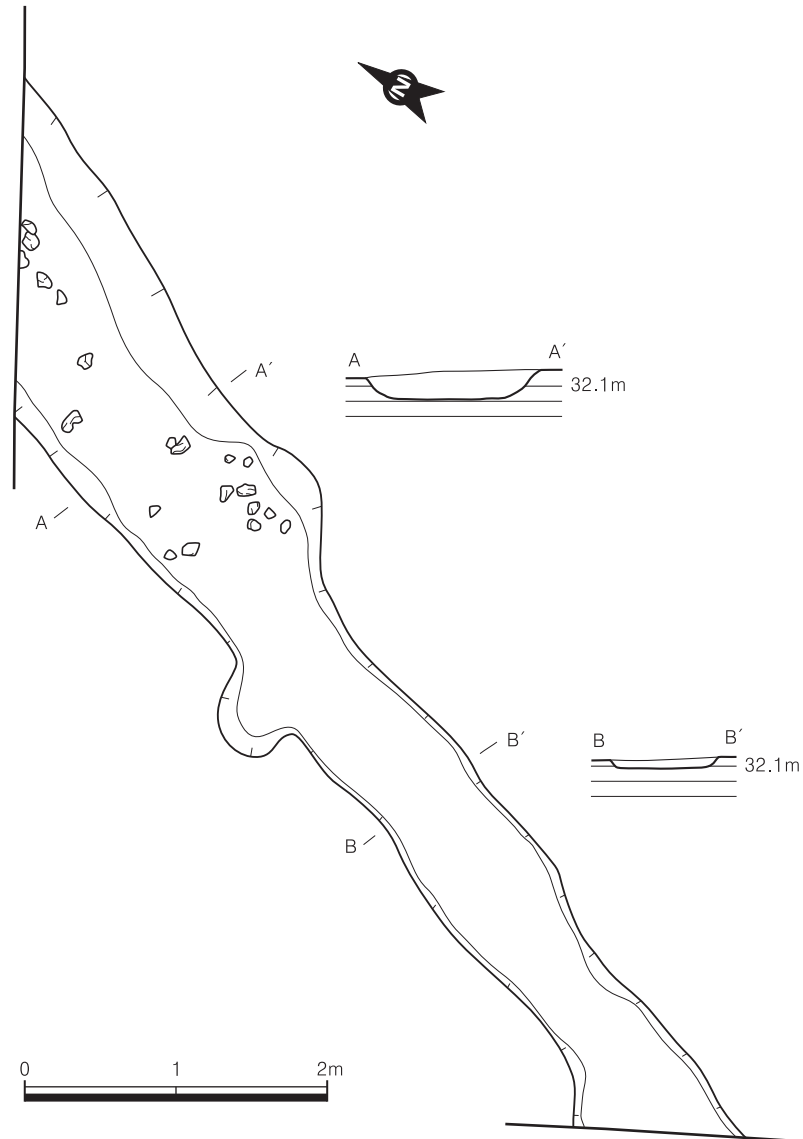


도면 74. 1호 구상유구 평단면도와 출토유물

2) 2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75, 도판: 38)

I 구역 4지점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고남저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조성되어 있다. 현재 잔존규모를 보면 길이 660cm, 폭 80~124cm, 깊이는 19cm 내외이다. 장축방향은 $N24^{\circ}E$ 이다. 내부퇴적토는 1호 구상유구와 동일한 회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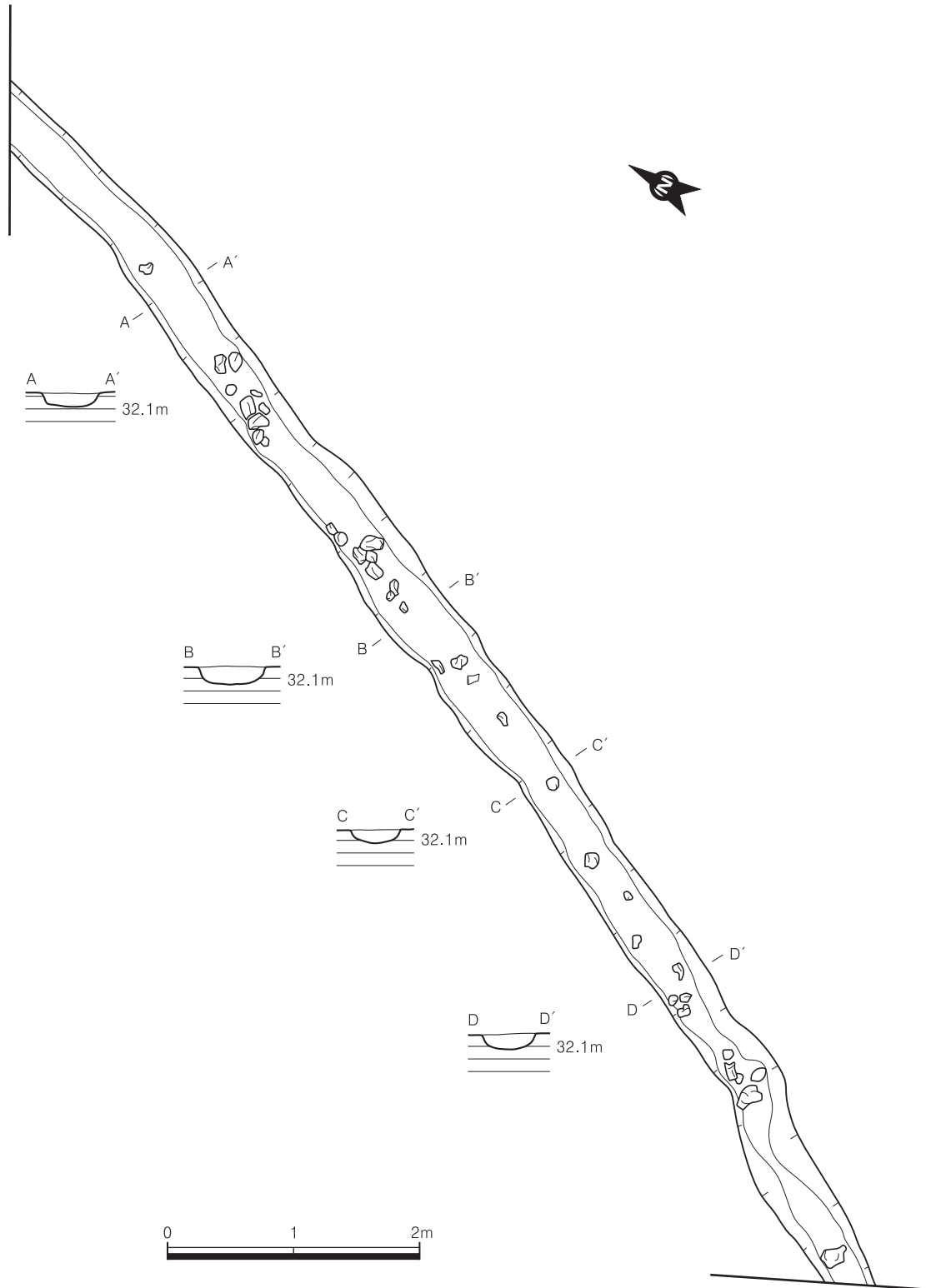
도면 75. 2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3) 3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76, 도판: 38)

I 구역 4지점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구상유구 동편에 인접하여 확인된다. 북고남저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조성되어 있다. 잔존규모는 길이 11m, 폭 46~50cm, 깊이는 14cm 내외이다. 장축방향은 $N22^{\circ}$

E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층으로 2호 구상유구와 동일한 회갈색사질점토층이다. 벽체와 바닥은 황색점토층인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완만한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출토유물은 자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도면 76. 3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3. 지표수습

150. 유구석부(도면: 77-150, 도판: 39-150)

응회암제 유구석부편으로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다. 중앙부에 결구흙이 형성되어 있으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인부가 심하게 마모된 점으로 미루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長 6.8cm, 幅 3.8cm, 厚 2.0cm

151. 연석(도면: 77-151, 도판: 39-151)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상부와 하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며 전면과 후면, 측면 모두 사용에 의한 평탄하게 처리된 마연면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전면이 가장 뚜렷하게 마연되었다.

長 16.0cm, 幅 11.3cm, 厚 4.7cm

152. 연석(도면: 77-152, 도판: 39-152)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반파되어 있다. 전면과 후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결실되었으며 전면과 후면은 사용에 의해 평탄하게 처리된 마연면이 형성되어 있다.

長 24.5cm, 幅 8.7cm, 厚 7.4cm

153. 연석(도면: 77-153, 도판: 39-153)

현무암제 연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반파된 상태이다. 전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결실되었으며 전면에는 사용에 의해 평탄하게 처리된 마연면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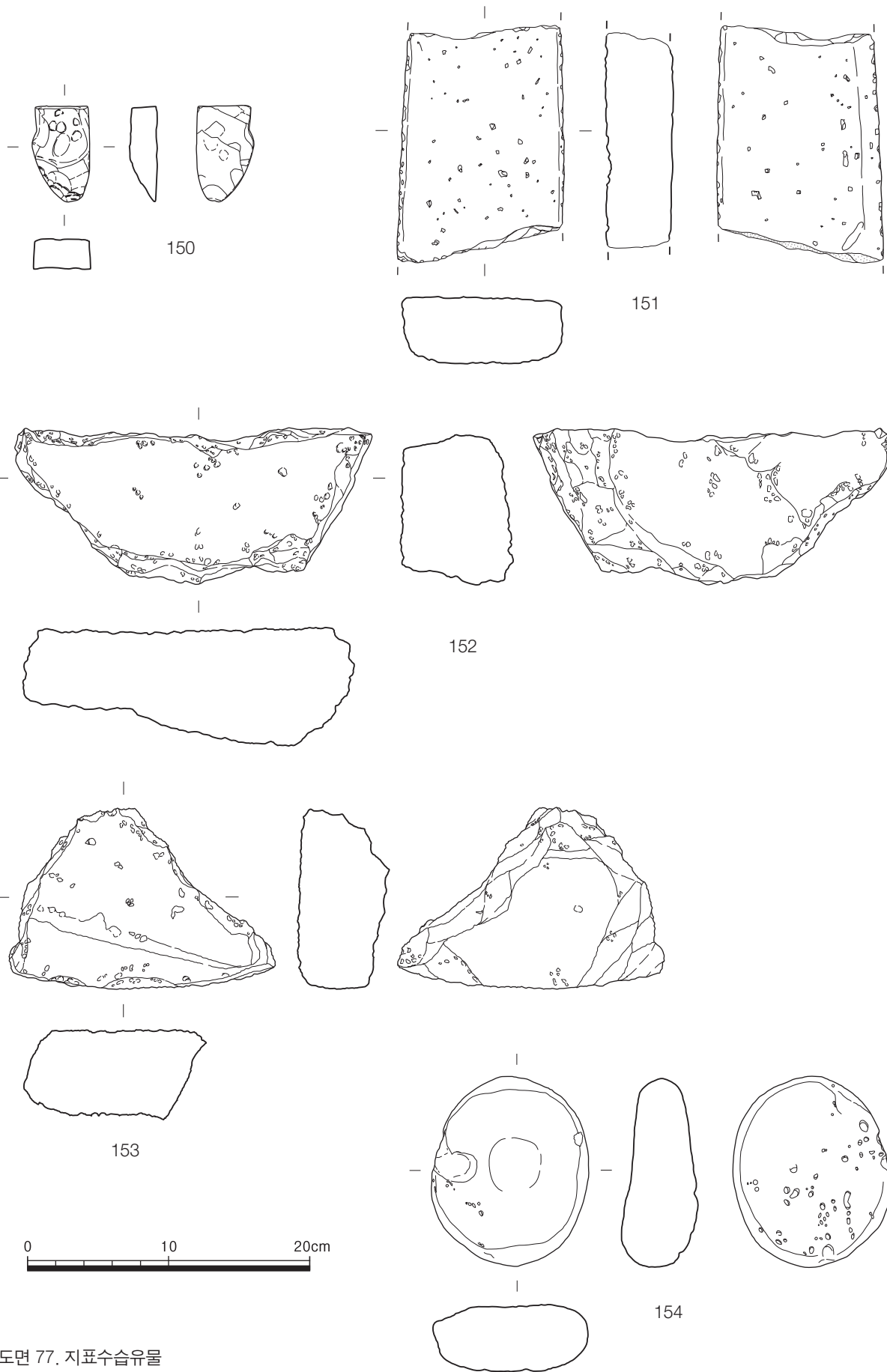
長 17.2cm, 幅 12.6cm, 厚 6.3cm

154. 연석(도면: 77-154, 도판: 39-154)

현무암제 요석으로 평면과 단면형태는 모두 장타원형에 가깝다. 전면에는 흙이 얇게 형성된 점으로 미루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물로 추정된다.

長 13.5cm, 幅 10.6cm, 厚 4.2cm

(김경주 · 현승룡)



도면 77. 지표수습유물